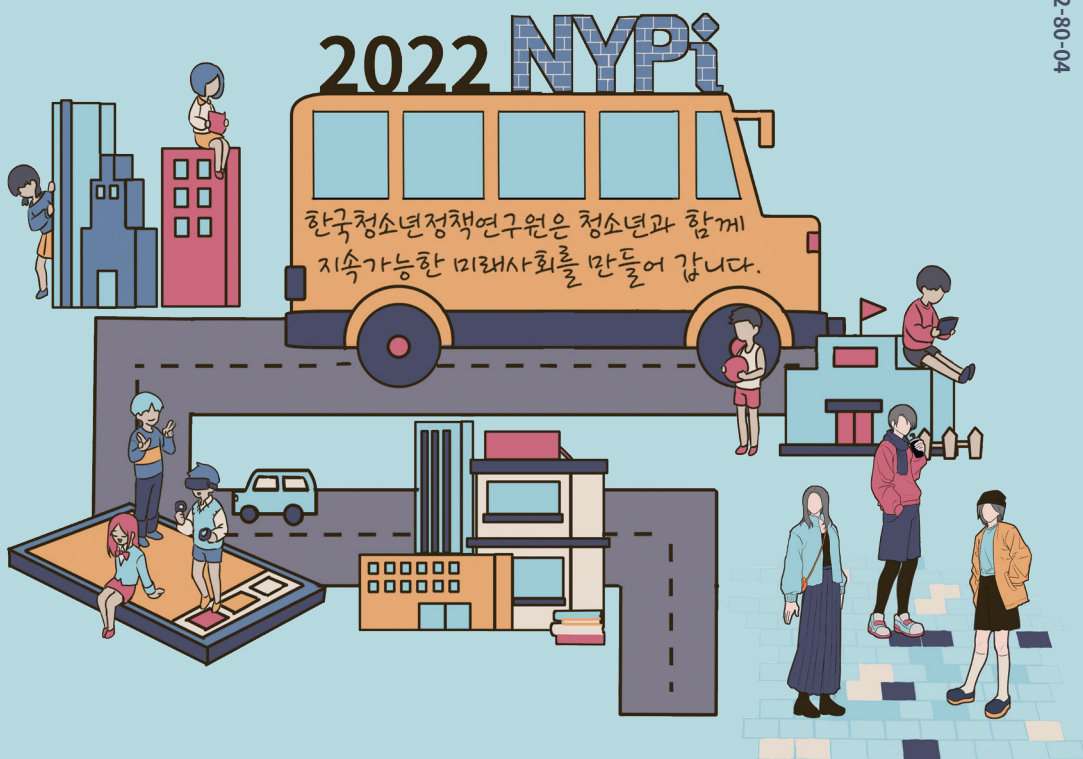


#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이상정 · 류정희 · 변수정 · 하태정





---

협동연구총서 22-80-04

연구보고22-일반08-03

---

##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저 자 이상정, 류정희, 변수정, 하태정

연구진 연구책임자\_이상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_류정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_변수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조원\_하태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청년종합연구 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 연구보고서명                        | 연구기관       |
|--------------|-------------------------------|------------|
| 22-80-01     | 청년종합연구 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22-80-02     |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22-80-03     |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통일연구원      |
| 22-80-04     |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22-80-05     |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2. 참여연구진

| 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진                                                                                                                                                         |
|----------------|----------------|-----------------------|---------------------------------------------------------------------------------------------------------------------------------------------------------------|
| 주관<br>연구<br>기관 | 한국청소년<br>정책연구원 | 김지연 선임연구위원<br>(총괄책임자) |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br>김미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br>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br>정소연(서울여자대학교 교수)<br>조양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
| 협력<br>연구<br>기관 | 통일연구원          | 이우태 연구위원              | 조정아(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br>이규창(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br>이지순(통일연구원 연구위원)<br>최규빈(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br>김정원(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br>장인숙(남북하나재단 선임연구위원)<br>박환보(충남대학교 교수)<br>최종학(통일연구원 연구원) |
| 협력<br>연구<br>기관 | 한국보건사회<br>연구원  | 이상정 부연구위원             | 류정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br>변수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br>하태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 협력<br>연구<br>기관 | 한국보건복지<br>인재원  | 박광욱 교수                | 이기연(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br>이복실(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br>안예지(경일대학교 교수)<br>양해만(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임)<br>김상희(성공회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생)<br>송기호(성공회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생)                              |



## 보고서를 펴내며

방송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삶이 알려지면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021년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연령이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청년이 학업과 취업을 성취한 후, 결혼과 출산,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자립을 이루는 것에 반해,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 중인 초기 청소년의 청소년부모는 스스로의 ‘자립’과 자녀의 임신·출산과 양육이라는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며 예기치 못한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자원이 부족할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이전까지, 청소년부모 가구는 그동안 주류 정책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등과 같이 주로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대상의 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청소년부모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청소년부모도 아동 양육·교육 서비스,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등의 가족지원,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그리고 청소년부모와 자녀에 대한 생활, 의료, 주거, 활동 영역 등에서의 복지 지원을 드디어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으로서 청소년부모의 자립 실태 및 욕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생애주기적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으로서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부모 지원의 기반이 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대상으로서의 청소년부모 소외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자립실태와 욕구를 실태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교육, 고용·경제, 건강, 가족·사회적 관계 영역 등에서 부모 당사자의 자립과 자녀의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의 지원을 위한 욕구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청소년부모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향과 과제가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부모 가구의 부모와 아동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제어: 청소년부모, 청년정책, 자립지원, 양육지원

## 연구요약

### ■ 연구목적

-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으로서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의 규모와 현황, 지원 제도와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립실태와 욕구를 파악
- 청소년부모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 개선 방향과 청년정책 내에서 추진이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 제고에 기여

###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청소년부모 현황과 특성 분석
  - 행정통계(인구동향조사),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정책대상으로서의 청소년부모 규모와 특성을 분석
- 청소년부모 정책소외 실태 분석
  - 청소년부모의 자립과 자녀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의 사각지대와 문제점을 파악
- 청소년부모 자립실태 분석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구의 청소년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와 「2021년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일반 청년부모와 청(소)년부모의 자립 현황을 비교·분석
-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개선 방안 제안
  - 청소년부모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발굴 및 지원체계의 구축과 현행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들을 청년정책대상으로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연속적·통합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방안과 추진 과제를 제시

## ■ 연구결과

### 주요 연구결과

- 정책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
  - 정책 대상으로서 청소년부모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5세~34세에 해당하는 개별 청년은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34세 속하는 청년·청소년부모는 청소년부모 사업이나 정책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 동일 대상, 지원의 격차
  - 저소득 청년·청소년 부모(부부)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이전에는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었음. 그러나 중앙부처 차원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한부모가 받는 지원과 비교할 때 여전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지원상의 격차는 청소년부모가 비혼 동거 상태로 남게 하는 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에서 청소년이 포함된 저소득 청소년·청년 부모가구는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체계 부재
  -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이나 사업 대부분은 청소년부모를 특정하여 지원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 무엇보다 청소년부모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부처별, 사업별로 서비스 제공 주체가 공공 또는 민간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주의 기반의 현재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짐.
  - 또한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관련 현금성 지원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신·출산, 자녀 양육 과정의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및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가 부재하여 현재의 지원만으로는 청소년부모 스스로의 성장과 자립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 주요 연구결과

### ● 청소년부모의 자립 현황

- (주거) 거주지 점유형태(주거비용 지불 방식) 확인 결과 상대적으로 청소년부모의 주거는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불안정한 상태로 확인됨.
- (건강) 우울 정도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부모는 전체 응답자의 61.4%가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남.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사건 경험도 청소년부모는 일반 청소년부모에 비해서는 부정적 사건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경제 상황) 청소년부모 응답자와 배우자 모두 돈을 벌고 있지 않는 사례는 전체 응답자의 12.9%로 확인됨. 또한 청소년부모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남. 또한 청소년부모 응답자의 약 40%가 물질적 박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각 상황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응답자의 사회적 지지체계 유무를 확인한 결과,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청소년부모가 도구적지지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음. 또한 청소년부모는 사회적 지지 체계 중 정서적 지지체계도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 ● 청소년부모의 정책 인지, 이용 경험 및 욕구

- 청소년부모에게 첫 자녀의 임신출산과 양육, 자립을 하는 데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을 물었을 때, 도움을 받은 기관이 없었다는 경우를 제외하면 청소년부모 카페나 지역 맘카페 등의 인터넷에서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청소년부모 관련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꼽았음. 또한 지원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다, 지원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다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확대와 자립수당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의 확대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주택 또는 주거비 지원 등)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0.8%로 나타남.

## ■ 핵심 정책제언

### 핵심 정책제언

- 청소년부모 발굴지원 체계 마련
  - 현재 운영되는 체계 안에서 청소년부모 대상의 전국적 통합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한다면, 2020년 7월부터 시행하여 2021년 4월 기준 전국 30개 지역 보건소로 확대된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과 더불어 이를 시군구의 취약 아동·가구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청소년부모 특성 반영, 지원제도 개선
  - 주거 및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청소년부모를 특별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가구로 인정하여 자산조사의 분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청소년부모가 교육, 훈련을 받는 동안 돌봄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함.
  - 청소년부모가 교육훈련취업 등 자립을 위한 활동들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가구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것임.
-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 청소년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으로 정의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으로 포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청소년부모가 초기 청년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대상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1인 가구 중심으로 청소년부모는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따라 청소년부모를 관련 정책 및 서비스의 특별 지원 대상으로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대상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기존에 구축된 체계(보건소,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원단, 지역별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부모 발굴 및 지원, 정보제공 등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해야 할 것임.

#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협동연구총서 22-80-04

연구보고22-일반08-03

## I. 서 론

|                     |   |
|---------------------|---|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 3 |
| 2. 연구추진체계 .....     | 5 |
| 3. 연구 내용 .....      | 6 |
| 4. 연구 방법 .....      | 7 |

## II. 청소년부모의 현황과 특성

|                               |    |
|-------------------------------|----|
| 1. 청년으로서 청소년부모의 특성과 현황 .....  | 13 |
| 2.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으로서 청소년부모 ..... | 18 |
| 3. 소결 및 시사점 .....             | 26 |

## III.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현황

|                         |    |
|-------------------------|----|
| 1.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현황 ..... | 31 |
| 2. 청소년부모 지원 서비스 .....   | 34 |
| 3. 소결 .....             | 39 |

#### **IV. 청소년부모 자립 현황**

- 1. 조사 개요 ..... 45
- 2. 조사 결과: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및 FGI 결과 ..... 50

#### **V. 정책 제언**

- 1. 청소년부모의 정책 지원 과제 ..... 115
- 2.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 121

#### **참고문헌 ..... 125**

#### **부 록 ..... 135**

표 목차

|                                                               |    |
|---------------------------------------------------------------|----|
| 표 II-1.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 추정치(2017~2020) .....                      | 17 |
| 표 II-2. 2020년 출생자 기준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 .....                        | 18 |
| 표 II-3. 2020년 출생자 기준 청소년부모의 교육정도 .....                        | 21 |
| 표 II-4. 청년의 연령대별 월평균 소득 .....                                 | 22 |
| 표 II-5. 청년의 연령대별 종사상 지위 .....                                 | 22 |
| 표 II-6. 청년의 연령대별 주거 점유형태: 전체 .....                            | 23 |
| 표 II-7. 청년의 연령대별 주거 점유형태: 주거비용을 전부 또는<br>대부분 본인이 마련한 경우 ..... | 24 |
| 표 III-1.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 .....                                    | 34 |
| 표 III-2. 청소년부모 생계지원 .....                                     | 37 |
| 표 III-3. 청소년(한)부모 주거지원 .....                                  | 38 |
| 표 III-4. 청소년부모 자립생활지원 .....                                   | 39 |
| 표 III-4.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 40 |
| 표 IV-1.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자 모집 경로별 응답 인원 ..                     | 46 |
| 표 IV-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과 문항별 출처 .....                       | 46 |
| 표 IV-3. 청소년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개요 .....                             | 49 |
| 표 IV-4. 청소년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 .....                             | 50 |
| 표 IV-5. 응답자(청소년부모)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                     | 51 |
| 표 IV-6. 응답자(일반 청년부모)의 일반적 특성:<br>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 52 |
| 표 IV-7. 청소년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의 특성 .....                        | 53 |
| 표 IV-8. 현재 배우자 외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 .....                           | 54 |
| 표 IV-9. 현재 거주지 .....                                          | 54 |
| 표 IV-10. 현재 주거 형태 .....                                       | 55 |
| 표 IV-11. 현재 거주지의 점유 형태(주거비용 지불 방식) .....                      | 55 |
| 표 IV-12. 현재 거주지의 주거 비용을 마련한 사람 .....                          | 56 |
| 표 IV-13. 주거비용을 전부 또는 대부분 본인이 마련한 경우의<br>거주지 점유 형태 .....       | 57 |
| 표 IV-14. 향후 주거지 마련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1순위) ..                  | 58 |

|                                                      |    |
|------------------------------------------------------|----|
| 표 IV-15. 주거 관련 지원에 대한 필요여부 및 인지여부 .....              | 58 |
| 표 IV-16. 주거 관련 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            | 59 |
| 표 IV-17. 신체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                      | 63 |
| 표 IV-18. 지난 1년간 건강검진 수검 여부 .....                     | 63 |
| 표 IV-19. 응답자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의 조치 .....                | 64 |
| 표 IV-20. 응답자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br>이유 .....    | 64 |
| 표 IV-21. 응답자의 우울 정도 .....                            | 65 |
| 표 IV-22. 응답자의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인 경험 .....                 | 66 |
| 표 IV-23. 가장 먼저 확대가 필요한 건강 관련 정책 .....                | 68 |
| 표 IV-24. 모(응답자)의 삶의 만족도 .....                        | 69 |
| 표 IV-25. 첫 자녀 출산 당시 모(응답자)와 부의 연령 .....              | 69 |
| 표 IV-26. 출산 결정 주된 이유 .....                           | 69 |
| 표 IV-27. 출산 결정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 .....                    | 70 |
| 표 IV-28. 첫 자녀 임신사실 인지 시기 .....                       | 70 |
| 표 IV-29. 첫 자녀 출산 전 임신기간 산전 진찰 경험 여부 .....            | 70 |
| 표 IV-30. 첫 자녀 산전 진찰 받지 않은 이유 .....                   | 71 |
| 표 IV-31. 임신·출산 관련 지원에 대한 필요 여부 및 인지 여부 .....         | 72 |
| 표 IV-32. 임신·출산 관련 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         | 73 |
| 표 IV-33. 맞벌이 여부 .....                                | 80 |
| 표 IV-34. 지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        | 80 |
| 표 IV-35. 현재 일자리의 고용 형태 .....                         | 81 |
| 표 IV-36. 근로시간 유형 .....                               | 81 |
| 표 IV-37. 전일 근로 하지 않는 이유 .....                        | 82 |
| 표 IV-38. 근로소득 .....                                  | 82 |
| 표 IV-39. 지난 4주 내 구직 활동 여부 .....                      | 83 |
| 표 IV-40.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 .....        | 83 |
| 표 IV-41. 가족 한 달 생활비 및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 받는<br>비율 ..... | 84 |
| 표 IV-42. 채무 유무 및 평균 채무액 .....                        | 84 |
| 표 IV-43. 채무 발생 이유 .....                              | 85 |
| 표 IV-44. 물질적 박탈 수준 .....                             | 86 |
| 표 IV-45. 물질적 박탈 항목 .....                             | 86 |
| 표 IV-46. 최종 학업 상태 .....                              | 91 |
| 표 IV-47. 대학 진학하지 않은 이유 .....                         | 91 |
| 표 IV-48. 학업 중단 이유 .....                              | 92 |

|                                              |     |
|----------------------------------------------|-----|
| 표 IV-49. 학업 지속에 가장 큰 어려움(1순위) .....          | 92  |
| 표 IV-50. 현재 학력보다 더 높은 학력 필요성에 대한 견해 .....    | 93  |
| 표 IV-51. 자립을 위해 필요한 학력 .....                 | 93  |
| 표 IV-52. 학력 취득을 위해 가장 받고 싶은 교육 유형 .....      | 94  |
| 표 IV-53. 미취학 자녀 돌봄 방식 .....                  | 97  |
| 표 IV-54. 일주일 중 미취학 자녀 혼자 있는 기간 .....         | 98  |
| 표 IV-55. 미취학 자녀 양육 시 힘든 점(1순위) .....         | 98  |
| 표 IV-56.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지원 필요 여부 및 인지 여부 ..... | 99  |
| 표 IV-57.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지원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    | 100 |
| 표 IV-58. 현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 만족도 .....             | 104 |
| 표 IV-59. 자녀 앞 배우자와 다투는 빈도 .....              | 104 |
| 표 IV-60. 모(응답자)의 부모 효능감 .....                | 105 |
| 표 IV-61. 부모님(길러주신 분)과의 관계 .....              | 106 |
| 표 IV-62. 부모님(길러주신 분)과 잘 만나지 않는 이유 .....      | 107 |
| 표 IV-63.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              | 108 |
| 표 V-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일부) .....               | 122 |

## 그림 목차

|                                             |     |
|---------------------------------------------|-----|
| 그림 Ⅰ-1. 청소년부모 연령 .....                      | 3   |
| 그림 Ⅰ-2. 연구수행체계 .....                        | 6   |
| 그림 Ⅰ-3. 조사표 개발 과정 .....                     | 8   |
| 그림 Ⅱ-1. 청년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 15  |
| 그림 Ⅱ-2. 청년 연령별 자살률 .....                    | 15  |
| 그림 Ⅲ-1.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 .....       | 33  |
| 그림 Ⅳ-1. 응답자의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인 경험 .....         | 66  |
| 그림 Ⅳ-2. 가장 먼저 확대가 필요한 건강 관련 정책 .....        | 68  |
| 그림 Ⅳ-3. 임신·출산 관련 지원에 대한 인지 여부 및 필요 여부 ..... | 71  |
| 그림 Ⅳ-4. 임신·출산 관련 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 | 73  |
| 그림 V-1. 청소년부모를 위한 통합 지원 경로 .....            | 117 |
| 그림 V-2. 일본의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 연계 흐름 .....         | 124 |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 내용
- 4. 연구 방법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는 아동기와 청년기의 중간 단계에 있는 ‘자립’이라는 발달과업을 이루어가는 초기 청년이다. 일반 청년이 학업과 취업을 성취한 후, 결혼과 출산,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자립을 이루는 것에 반해, 청소년부모는 학업과 취업, 자녀의 임신·출산과 양육이라는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청년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정책대상이다. 청소년부모가 주로 속하는 19세~24세의 초기 청년은 후기 청년에 비해 사회경제적, 심리정서적으로 취약성을 나타내는 청년정책대상이며(변금선, 유민상, 한경훈, 2022, 재인용), 일부 청소년부모는 스스로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정책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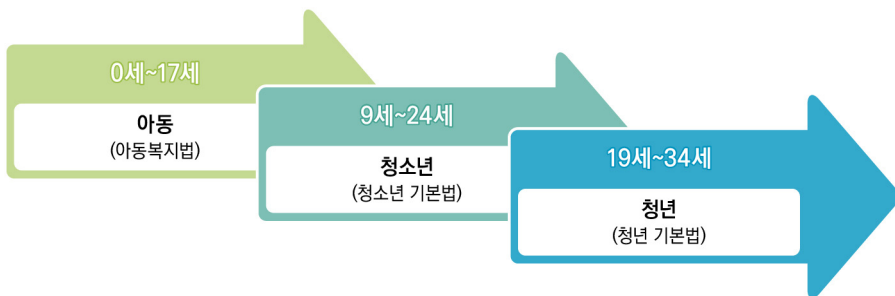


그림 | -1. 청소년부모 연령

1) 1장은 이상정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청소년부모 가구는 그 동안 주류 정책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한채,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등과 같이 주로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대상 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아왔다.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 청년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을 발표함으로써 청년은 우리사회의 공식적인 정책대상으로서 본격 편입되었고, 본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대 영역에서 일반 청년은 물론, 자립준비청년, 청년 장애인, 빈곤청년, 위기청년, 청소년한부모 등의 청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한부모가 아닌 청소년부모는 청년정책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연령이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청소년부모도 아동 양육·교육 서비스,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등의 가족 지원,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그리고 청소년부모와 자녀에 대한 생활, 의료, 주거, 활동 영역 등에서의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법을 기초로 정부는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관계부처합동, 2021년 11월)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립과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개정법과 대책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청소년부모 가구에서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의 청년 또는 성인일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미 발생시키고 있다.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에서는 기존의 부처별 아동·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청년정책 등의 사업 대상을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에게 포괄 적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청소년부모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파편적인 지원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는 「청소년 기본법」 상의 연령과 정의에 해당하는 청소년이기도 하지만, 「청년기본법」상 19세~34세에 해당하는 초기 청년으로서 일반 청년과 마찬가지로 취업, 학업, 결혼, 자녀의 출산·양육 등의 발달 과업 달성을 통해 자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으로서 청소년 부와 모를 ‘따로 또 같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생애주기적 자립지원의 관점에서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정책의 대상으로서 포괄하여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때 연령 제한 또는 대상자 구분으로 인한 정책 사각지대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으로서 청소년부모의 자립실태 및 욕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생애주기적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으로서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청소년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구와 청소년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인 가구 현황을 각각 파악하여 청년정책 대상으로서의 그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부모 지원의 기반이 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대상으로서의 청소년부모 소외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부처별·사업별로 제공되고 있는 청소년부모 지원 제도와 사업들을 분석하여 청소년부모 소외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셋째,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자립실태와 욕구를 실태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교육, 고용·경제, 건강, 가족·사회적 관계 영역 등에서 부모 당사자의 자립 현황과 함께 자녀의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욕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부모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 개선 방향과 청년정책 내에서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청년종합연구 I :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의 협동 연구로 수행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청소년부모 정책 소외 실태 및 정책 개발 연구’를 총괄하여 수행하면서 과제수행에 필요한 정책 및 행정자료의 확보, 연구진행 상황 점검, 연구방법 및 정책대안 모색 등에서 주관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 결과 및 성과는 정책포럼의 공동운영과 참여를 통해 공유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청소년부모 정책 소외 실태 및 자립현황과 욕구 파악을 위해 위기 아동청소년과 가구 대상 정책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또한, 학계 및 민간 실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상시 개최하여 연구 방법 및 실태조사 설계, 연구 결과의 해석 및 정책 수요 파악, 정책 대안과 추진과제 도출 등과 관련하여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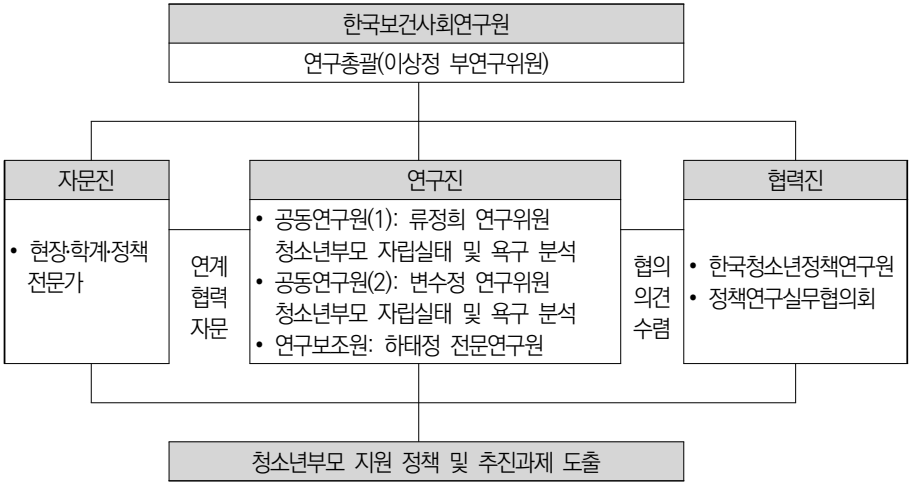


그림 1 -2. 연구수행체계

### 3. 연구 내용

#### 1) 청소년부모 현황과 특성 분석

행정통계(인구동향조사),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 즉 청년정책대상으로서의 청소년부모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인구동향조사를 분석하여 34세 이하의 청년부모,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그리고 부모는 모가 24세 이상인 청년·청소년 부모 가구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또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와 청(소)년 (한)부모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녀의 임신·출산과 양육, 그리고 학업과 취업, 주거 등 부모 당사자의 다영역에 걸친 자립 현황과 특성을 살펴 보았다.

## 2) 청소년부모 정책 소외 실태 분석

현재 부처별·사업별로 제공되고 있는 청소년부모 지원서비스를 살펴보았다. 청소년부모의 자립과 자녀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정책, 가족정책, 청년정책 분야의 사업 현황을 분석하여 청소년부모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부모 지원서비스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기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과 쟁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3) 청소년부모 자립실태 분석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주거, 건강, 교육, 가족·사회적 관계, 자녀 임신·출산·양육 등의 영역에서 자립 현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구의 청소년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와 「2021년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일반 청년부모와 청(소)년부모의 자립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부모의 정책 욕구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청년정책대상으로서 통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 4)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개선 방안

본 연구의 결과로서 청소년부모의 욕구가 반영된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으로서의 지원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소년부모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부모 발굴 및 지원체계의 구축과 현행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청년정책대상으로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소년부모를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방안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 4. 연구 방법

## 1) 문헌연구

청소년부모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행정통계(인구동향조사),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 즉 청년정책대상으로서의 청소년부모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인구

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자녀의 임신·출산과 양육, 그리고 학업과 취업, 주거 등 부모 당사자의 자립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와 청(소)년(한)부모에 관한 선행연구를 활용하였다.

##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주거, 건강, 교육, 가족·사회적 관계, 자녀 임신·출산·양육 등의 영역에서 자립 현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부모가구의 모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와 조사를 기반으로 조사표(안)을 개발하고 조사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진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조사표를 최종 확정한다(【그림 1-3】 참조). 특히, 일반 청년부모와 청(소)년부모의 자립 현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2021년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항을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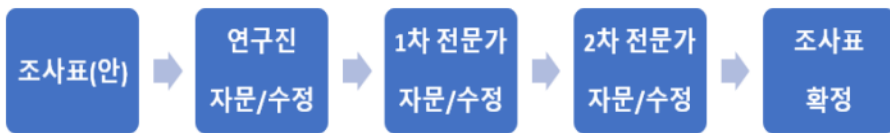


그림 1-3. 조사표 개발 과정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2022-037호)을 받았다. 실사는 전문조사기관을 활용하였으며 설문조사 참여자는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청소년부모 지원 실천현장과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되었다. 설문조사는 2022년 6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웹조사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유효 표본은 101명이다.

## 3) 청소년부모 FGI(초점집단인터뷰)

청소년부모의 자립 이행 과정과 정책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FGI를 수행한다. 주거, 건강, 교육, 가족·사회적 관계, 자녀 임신·출산·양육 등의 영역에서 자립과정의 어려움과 자립지원 욕구를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실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청소년부모가 된 경로와 청소년부모로서의 자립 경험

을 탐색하였다. 청소년부모 FGI는 총 3개 그룹,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4)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 설계와 조사표 개발 및 확정, 정책 수요 파악과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연구 진행 각 단계에서 현장과 학계, 정책 담당자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청소년부모 대상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여성정책연구원을 포함하여, 실무 현장에서 청소년부모 대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의 민간기관 담당자와 자문회의를 거쳐 현장 밀착도가 높은 정책 및 추진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 ○———— 제2장

# 청소년부모의 현황과 특성

- 1. 청년으로서 청소년부모의  
특성과 현황
- 2.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으로서  
청소년부모
- 3. 소결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청소년부모가 청소년이자 청년이라는 연령적 특성을 가짐과 동시에 부모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과 자녀 양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청소년부모의 특성을 파악하고, 국가승인통계자료인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분석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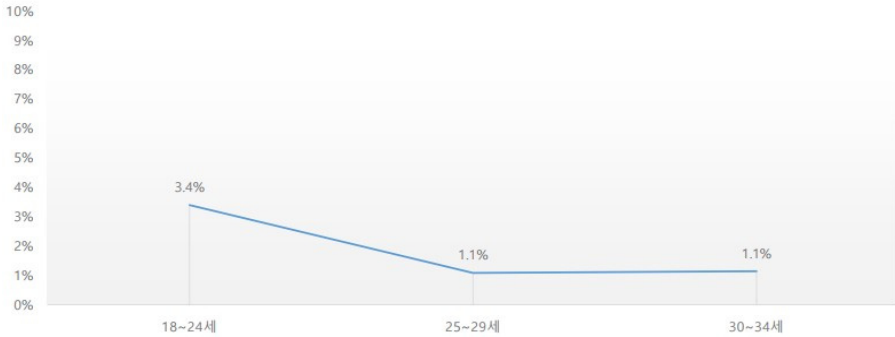
## 1. 청년으로서 청소년부모의 특성과 현황

그간 정책 영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인 모 또는 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경우 홀로 자녀를 맡게 되어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기도 하지만, 민법상의 혼인연령 제한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사례도 존재한다(은주희, 임고운, 2019). 설령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다하더라도 여전히 성인기로 향하는 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부모는 자녀 양육과 학업, 소득, 주거 등 여러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으나, 공적인 제도 안에서 청소년 한부모 이외에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했기에 청소년부모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필연적이었다(은주희, 임고운, 2019). 그러나 2021년 3월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조의 정의에 ‘청소년부모’가 명시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 뿐만 아니라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 차원에서도 청소년 부모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11월에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지원 대책이 본격화되었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관심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2) 2장 1절은 하태정 전문연구원과 이상정 부연구위원이, 2절은 하태정 전문연구원, 3절은 이상정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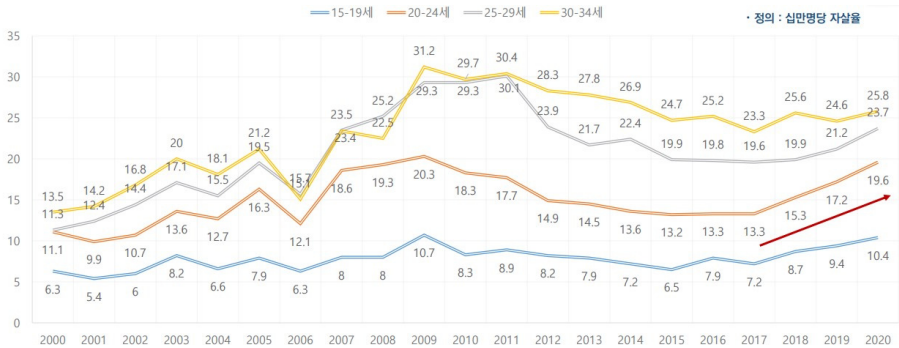
법령상 정의하는 청소년부모의 연령대는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청년의 연령대(19세 이상 34세 이하)와도 중첩된다. 생애주기상 성인기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독립이나 주거지의 독립, 원가족 이외의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등의 사회적인 행위들이 주로 20대에 이루어졌던 1980년대에 비해(김은정, 2011; 이정봉, 2021), 그 사회적 행위가 발생하는 연령대가 지연된 현 시대를 고려하면 현재 법령상 청년으로 정의하는 연령대에 속하는 이들 역시 여전히 성인으로 향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특히 18세부터 24세의 연령대는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초기 청년기’로서 삶의 질 격차가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변금선 외, 2022). 초기 청년기에 속하는 청년들 다수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생애사건은 대학 진학과 졸업, 군복무, 첫 취업 등인데, 이러한 생애사건에 더해 성별이나 가족배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초기 청년의 이행 상태(state)는 비구직 미취업자, 군인, 학생, 노동자, 구직자 등 다양하게 분화할 수 있고 이는 삶의 질 격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변금선 외, 2022).

18세부터 24세까지의 초기 청년을 중심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지표로 살펴본 변금선 외(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초기 청년은 후기 청년(25세~34세)에 비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더 높고(【그림 II-1】 참고), 취업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연령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본 김기태 외(2020)의 연구에서는 전체 연령대의 실업률은 약 3%인 반면, 15~29세 연령대는 적게는 6.6%에서 많게는 8.2%의 실업률을 보였다.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행위라 볼 수 있는 경제적 독립 자체도 초기 청년에게는 쉽지는 않은 것이다. 이렇게 노동시장으로의 참여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층은 사회 진출 기간이 짧아 충분한 자산을 획득하기도 어려우며,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다른 경제활동 연령층에 비해 건강, 주거,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김태완 외, 2019; 이주미, 김태완, 2022). 실제 변금선 외(2022)의 연구에 따르면 또한 초기 청년은 고립감을 항상 느낀다는 비율이 후기 청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초기 청년의 최근 5년 동안의 청년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6%p 이상 급격히 증가(그림 II-2 참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변금선 외, 2022). 초기 청년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는 청소년부모는 같은 연령대의 청년에 비해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 출처: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건복지부(2021).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2) 변금선, 유민상, 한경훈. (2022).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초기 청년의 삶의 질.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코로나 시기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변화와 대응' 자료집. p.91의 그림 재인용.

그림 II-1. 청년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출처: 1) KOSIS 사망원인통계 - 고의적 자해(자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F\\_27&scrl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F_27&scrl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2) 변금선, 유민상, 한경훈. (2022).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초기 청년의 삶의 질.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코로나 시기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변화와 대응' 자료집. p.92의 그림 재인용.

그림 II-2. 청년 연령별 자살률

그렇다면 국내 청소년부모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현재 국내에 청소년부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는 마련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sup>3)</sup> 자료 중 출생신고가 된 출생자와 그 부모의 연령 정보가 담긴 출생연간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부모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인구동향조사는 혼인 외 출생자를 포함하고 있어 부모의 결혼연도와 연령을 토대로 사실혼 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청소년부모 가구를 포함할 수 있다.<sup>4)</sup>

〈표 II-1〉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정의된 청소년부모의 연령과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청소년부모 가구를 추정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이자 청소년인 가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0년 기준으로 부모 모두 34세 이하로 청년이자 청소년인 연령대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는 약 55만여 가구이다. 이중에서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는 부모 모두 34세 이하인 가구 추정치의 약 1.4% 수준인 7천 8백여 가구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모 모두 청년의 연령대이지만 둘 중 하나라도 24세 이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의하는 청소년부모에서 벗어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약 2만 6천여 가구, 전체 청년부모(부모 모두 34세 이하인 가구) 중 4.7%로 추정된다. 즉, 부모의 연령을 ‘모두’ 24세 이하로 정의한 현행 법적 근거에 의해 청소년부모 정책대상을 규정할 경우, 청년·청소년 부모가구인 18,334가구(부모 모두 34세 이하인 가구의 3.3%)가 정책적 지원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다. 또한 출생신고에 기초한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통계청, 1997~2020)를 통해 추정한 청소년부모 가구의 규모는 현재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청소년부모는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분석 결과보다 더 많은 청소년부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3) 인구동향조사는 신고인이 출생·사망·혼인·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읍·면·동 또는 사구)에 제출한 자료와 4종의 신고 이외에 지자체에서 기아발견조사, 실종신고, 혼인취소신고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통계 자료임(통계청, 2020. 12.). 현재 인구동향조사 원자료는 통계청의 MD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공용 데이터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4) 혼인외자 중 결혼연도(출생신고 서류에 기재하는 결혼연도는 혼인신고 날짜를 기재하는 것은 아님) 또는 부/모의 연령 정보가 모두 있는 경우 사실혼 출생 자녀로 추측할 수 있음.

표 II-1.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 추정치(2017~2020)

(단위: 가구)

| 연 도  | 부모 모두<br>24세 이하인 가구<br>추정치 | 부 또는 모가<br>24세 이하인 가구<br>추정치 | 부모 모두<br>34세 이하인 가구<br>추정치 |
|------|----------------------------|------------------------------|----------------------------|
| 2020 | 7,876                      | 26,210                       | 551,827                    |
| 2019 | 9,991                      | 31,599                       | 613,899                    |
| 2018 | 12,167                     | 37,619                       | 690,588                    |
| 2017 | 14,233                     | 43,660                       | 791,973                    |

\* 출처: 통계청(1997~2020).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분석.

- \* 주: 1) 음영 표시된 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임.  
 2)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는 현재 199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부모 모두 34세 이하인 가구의 추정치를 제시하기 위해 부모 모두가 14세 이하인 시작 시점을 각 연도별로 고려하면 제시 가능한 분석 연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임.  
 3) 청년부모(출생자 중 부모 모두 34세 이하) 가구 현황의 추정치의 산출 방식은 기준 연도가 도래했을 때에도 출생자 부모의 연령이 여전히 34세 이하인 연령을 최대한 포괄하고자, 부모 모두의 연령이 14세 이하인 연도부터 기준연도까지 누적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예를 들어, 2020년 기준으로 부모 모두 34세 이하인 가구의 추정치는 부모 모두의 연령이 14세 이하인 2000년을 시작시점으로 하여, 2001년에는 부모 모두의 연령이 15세 이하인 가구 등 각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해당 연령 이하인 사례수를 계산하여 연도별 결과를 합산하였음.  
 4)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구의 추정치는 연도별 자료를 통합한 데이터에서 부모 연령의 최솟값(부 14세, 모 12세)을 확인 후, 부나 모의 연령이 12세 이하인 연도부터 기준연도까지 누적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5) 청소년부모(출생자 중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현황의 추정치는 기준 연도가 도래했을 때에도 출생자 부모 모두의 연령이 여전히 24세 이하인 연령을 최대한 포괄하고자, 부모 모두의 연령이 14세 이하인 연도부터 기준연도까지 누적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표 II-2〉는 2020년 출생자 기준으로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2020년 현재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는 2,298가구이며, 이 중에서 민법 제4조와 제808조에 따라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없으면 결혼할 수 없는 부 또는 모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부모 가구 중 약 7.1%(126가구)를 차지한다. 이렇게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자녀를 낳은 가구는 부모 자신도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sup>5)</sup>에 해당하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

- 5) 민법상 성년의 정의(제4조), 혼인적령(제807조)과 미성년자와 같이 동의가 필요한 혼인에 관한 사항(제808조)은 아래와 같음.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함과 동시에 자립을 해야 하는 고위기의 정책 지원 대상자라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분석 자료의 특성상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출생신고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고위기의 정책 지원 대상자의 규모는 분석 결과보다 더 많을 수 있다.

표 II -2. 2020년 출생자 기준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

(단위: 가구)

| 부모 모두<br>19세 미만인<br>가구 | 부 또는 모가<br>19세 미만인<br>가구 | 부모 모두<br>24세 이하인<br>가구 | 부 또는 모가<br>24세 이하인<br>가구 | 부모 모두<br>34세 이하인 가구 |
|------------------------|--------------------------|------------------------|--------------------------|---------------------|
| 38                     | 126                      | 2,298                  | 7,361                    | 111,076             |

\* 출처: 통계청(2020).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분석.

\* 주: 음영 표시된 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구임.

2.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으로서 청소년부모

국내에서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소년 한부모에 관한 연구는 대상에 대한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편이다. 또한 청소년부모와 연령대가 중첩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대상의 연구 역시 청소년부모에 비해서는 활발히 진행되어온 편이다. 이에 따라 이 절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및 청년을 다룬 기존 연구들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이자 청년으로서 청소년부모가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임신 및 출산과 양육, 학업, 생계와 근로, 주거, 가족 및 사회적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민법 제808조(동의를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 1) 임신 및 출산과 양육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성관계를 처음 시작한 연령은 평균 13.6세였으며, 이들 중 피임 실천율은 59.3%로 나타났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2020년에도 시행된 같은 조사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피임 실천율은 66.8%로 나타나 이전보다는 증가한 수치를 보이기는 했으나(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1). 이른 나이부터 성 경험에 노출된 청소년과 피임을 실천하지 않아 발생하는 청소년기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이선희, 김수지, 서해인, 2021).

기존 연구들에서 청소년기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성인에 비해 산전 및 산후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이다. OECD와 WHO(2018: 92; 이재희 외, 2021: 20)에 따르면 산모의 적절한 산전 관리와 의료시설에서의 출산과 숙련된 의료 전문가의 분만 개조, 산후 관리 등은 산모의 출산 후 합병증과 감염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산모와 신생아 모두의 건강에 중요하다. 특히 산모의 산전 및 산후 관리는 임신 사실에 대한 인지로부터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는 임신을 인지하는 시기가 늦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변수정 외, 2019; 은주희, 임고운, 2020; 이선희 외, 2021; 이영호, 박지윤, 2021; 이재희 외, 2021). 청소년기에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한 미혼 한부모에게 임신 인지 시기를 조사한 변수정 외(2019)의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이 임신 사실을 인지한 시기는 평균 9.7주로 나타났고, 이영호와 박지윤(2021)의 연구에서는 임신을 인지한 시기가 9~12주 또는 13~16주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미혼모가 아닌 15~49세의 기혼 여성으로 산전관리를 위한 초진 시기를 조사했을 때 일반적으로 임신 후 평균 5.4주에 초진을 받는다는 이소영 외(2018)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임신 사실에 대한 인지가 대체로 늦은 청소년기의 산모는 산전관리를 위한 초진 시기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혼 여성 중 산후에 건강 관리를 위해 진찰 또는 검진을 받은 비율은 94.7%에 달하나(이소영 외, 2018),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산후 진찰 경험이 없는 비율은 약 35%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난 점(변수정 외, 2019)에 비춰볼 때, 청소년부모는 일반 성인 부모보다 산전 및 산후 관리가 취약할 수 있으며 결국 모성건강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편, 청소년부모는 출산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면서 주어진 부모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기에 출산을 경험

한 기혼모나 미혼모를 대상으로 부모 역할에 대해 질적 연구를 수행한 기존 연구들(송지나 외, 2014; 이선희 외, 2021)에서는 일반적인 양육자들은 기존의 인맥이나 산후조리원 모임 등을 통해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까지 형성하는 반면, 청소년기에 출산을 경험하는 경우 또래 중에 같은 상황에 놓인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출산 과정 뿐만 아니라 출산 후에도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자녀 양육 기술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습득하는 것 자체가 수월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 송지나 외(2014)의 연구에서 인터뷰한 참여자는 본인과 같은 또래인 양육모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또래의 양육모들을 찾고 어울리고자 노력을 해야만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2) 학업

기존 연구들에서는 청소년기의 임신과 출산은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영정, 2020; 송지나 외, 2014; 은주희, 임고운, 2020). 한 연구에서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중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 중 원가족에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녀 양육을 위해 늘어나는 생활비 지출에 더해 자신의 학비까지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아 결국은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영정, 2020).

〈표 II-3〉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중 2020년 출생자를 기준으로 청소년부모의 교육정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부모 모두의 연령이 34세 이하인 가구의 교육정도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부모 모두 대졸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경우는 고졸이 압도적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부모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나, 청소년부모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은주희와 임고운(2019)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년부모는 학업 중단이라는 위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연구에서 청소년부모 응답자 중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중퇴자가 그 다음으로 많은 수로 나타났으며, 무학, 초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휴학) 등 여전히 학업을 온전히 마치지 못한 청소년부모의 비율이 응답자의 약 4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은주희, 임고운,

2019). 이렇게 자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청소년부모는 자녀 양육과 더불어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근로를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도 불리한 시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부모가 생계와 근로 차원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II-3. 2020년 출생자 기준 청소년부모의 교육정도

| 구 분                    |   | 전체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 이상            |
|------------------------|---|--------------------|--------------|----------------|------------------|------------------|
| 부모 모두<br>34세 이하인<br>가구 | 부 | 108,591<br>(100.0) | 104<br>(0.1) | 1,162<br>(1.1) | 24,649<br>(22.7) | 82,676<br>(76.1) |
|                        | 모 | 108,599<br>(100.0) | 115<br>(0.1) | 1,153<br>(1.1) | 19,366<br>(17.8) | 87,965<br>(81.0) |
| 부모 모두<br>24세 이하인<br>가구 | 부 | 2,225<br>(100.0)   | 10<br>(0.5)  | 261<br>(11.7)  | 1,569<br>(70.5)  | 385<br>(17.3)    |
|                        | 모 | 2,241<br>(100.0)   | 19<br>(0.9)  | 268<br>(12.0)  | 1,431<br>(63.9)  | 523<br>(23.3)    |

\* 출처: 통계청(2020).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분석.

### 3) 생계와 근로

청소년부모가 해당되는 연령대 즉, 24세 이하의 청소년은 자녀가 없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임금 수준과 종사상지위가 그다지 안정적이지는 않다. <표 II-4>는 만 18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현재 임금 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들의 월평균 소득을 분석한 결과이다. 청소년부모가 해당하는 연령대인 18~24세 이하인 응답자의 경우 200~3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100만원 미만이 28.9%, 100~200만원 미만이 28.2%로 25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보다는 월평균 소득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종사상지위의 경우 25~34세의 청년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85.9%였으나, 청소년부모의 연령대인 18~24세 청년의 경우 56.6%가 비정규직인 상태로 임금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II-5> 참고).

표 II-4. 청년의 연령대별 월평균 소득

(단위: 명, %, 만원)

| 구 분    | 전체               | 100만원 미만      | 100~200만원 미만  | 200~300만원 미만  | 300~40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평균 (SD)          |
|--------|------------------|---------------|---------------|---------------|---------------|-------------|------------------|
| 전체     | 1,330<br>(100.0) | 132<br>(10.3) | 211<br>(15.2) | 652<br>(48.6) | 258<br>(19.8) | 77<br>(6.1) | 234.6<br>(102.0) |
| 18-24세 | 331<br>(100.0)   | 93<br>(28.9)  | 99<br>(28.2)  | 118<br>(36.1) | 17<br>(6.0)   | 4<br>(0.8)  | 162.6<br>(85.7)  |
| 25-34세 | 999<br>(100.0)   | 39<br>(4.2)   | 112<br>(11.0) | 534<br>(52.7) | 241<br>(24.3) | 73<br>(7.8) | 258.2<br>(95.6)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II-5. 청년의 연령대별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 구 분    | 전체               | 정규직           | 비정규직          |
|--------|------------------|---------------|---------------|
| 전체     | 1,186<br>(100.0) | 885<br>(74.7) | 301<br>(25.3) |
| 18-24세 | 316<br>(100.0)   | 137<br>(43.4) | 179<br>(56.6) |
| 25-34세 | 870<br>(100.0)   | 748<br>(85.9) | 122<br>(14.1)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앞서 <표 II-3>에서 확인했듯이 청소년부모의 교육 수준은 고졸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만약 청소년부모가 고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저임금비숙련 일자리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연구들(김부태, 2011; 남재욱 외, 201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학력이라는 요소는 구직자의 잠재적인 능력을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청소년부모가 자녀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학업중단이라는 위기를 겪고 고졸 이하의 학력을 유지하게 될 경우,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비해 안정적인 고용상의 지위를 획득하기 어려우며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남재욱 외, 2018; 채창균, 양정승, 2015).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한 은주희, 임고운(2019)의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청소년부모의 월평균 수입은 50~100만원 이내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 315명 중 27%로 가장 많았으며, 50만원 이내인 경우가 26%로 뒤를 이었다. 은주희, 임고운(2019)의 조사 당시 시점(2019년 8월 조사 진행 → 2019년 3/4분기) 기준으로 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이 1인가구는 약 291만원(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21)인 것을 보면 청소년부모의 소득은 1인 가구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인 자녀가 1명인 가구가 지출하는 월 평균 금액이 약 293만원, 영유아 1인당 지출하는 비용이 약 66만원 수준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최효미 외, 2018), 청소년부모는 자녀 양육은 물론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여건 역시 긍정적인 상태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 4) 주거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청년의 주거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38.2%는 전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보증부 월세가 35.7%, 자가 20.0% 순으로 나타났다(〈표 II-6〉 참고).

표 II-6. 청년의 연령대별 주거 점유형태: 전체

(단위: 명, %)

| 구 분    | 전체             | 자가            | 전세            | 월세<br>(보증금 있음) | 월세<br>(보증금 없음) | 사글세, 연세,<br>일세 등 | 무상          |
|--------|----------------|---------------|---------------|----------------|----------------|------------------|-------------|
| 전체     | 835<br>(100.0) | 146<br>(20.0) | 296<br>(38.2) | 335<br>(35.7)  | 9<br>(1.0)     | 10<br>(0.9)      | 39<br>(4.3) |
| 18-24세 | 146<br>(100.0) | 12<br>(9.1)   | 27<br>(17.0)  | 91<br>(61.7)   | 5<br>(3.2)     | 2<br>(0.7)       | 9<br>(8.3)  |
| 25-34세 | 689<br>(100.0) | 134<br>(22.0) | 269<br>(42.1) | 244<br>(30.9)  | 4<br>(0.6)     | 8<br>(0.9)       | 30<br>(3.5)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여기서 주거 비용을 부모나 친지 등의 도움을 받지 않고 비용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청년 스스로 마련한 경우에 한 해 주거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보증부 월세의 비율(41.2%)이 전세(37.4%)보다 높게 나타난다(표 II-7 참고). 주거 비용을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마련하는 청년의 경우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주거 안정성도 더욱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청년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그 차이는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표 II-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년부모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18~24세 청년의 경우 보증부 월세 형태로 주거비를 부담하는 비중이 25~34세의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또한 18~24세 청년 내에서 주거 비용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본인이 마련하는 경우는 25~34세의 청년에 비해서는 그 수가 매우 적기는 하지만 해당자 중에서도 약 80%는 보증부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II-7〉 참고).

표 II-7. 청년의 연령대별 주거 점유형태: 주거비용을 전부 또는 대부분 본인이 마련한 경우

(단위: 명, %)

| 구 분    | 전체             | 자가           | 전세            | 월세<br>(보증금 있음) | 월세<br>(보증금 없음) | 사글세, 연세,<br>일세 등 | 무상          |
|--------|----------------|--------------|---------------|----------------|----------------|------------------|-------------|
| 전체     | 556<br>(100.0) | 87<br>(17.5) | 191<br>(37.4) | 252<br>(41.2)  | 8<br>(1.2)     | 7<br>(1.0)       | 11<br>(1.7) |
| 18~24세 | 69<br>(100.0)  | 1<br>(3.1)   | 8<br>(10.2)   | 54<br>(80.2)   | 4<br>(4.0)     | 1<br>(1.0)       | 1<br>(1.4)  |
| 25~34세 | 487<br>(100.0) | 86<br>(19.4) | 183<br>(41.1) | 198<br>(35.9)  | 4<br>(0.9)     | 6<br>(1.0)       | 10<br>(1.7)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기본법상의 정의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모두 같은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18~24세 청년은 임금 근로를 한다고 할지라도 소득이나 종사상 지위가 25~34세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고(표 II-3, II-5 참고), 특히 18~24세 청년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경우 생계와 근로, 주거 등 모든 측면에서의 위험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취약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부모라는 역할이 추가된 청소년부모가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이 새롭게 꾸린 가족이 살아야 할 주거지를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본인의 생계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부모에게 주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자립의 기반이 되는 주거지 자체도 불안정하게 된다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게 된다.

청소년부모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연구(은주희, 임고운, 2019)에서도 이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불안정성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4.4%가 보증부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가족이나 친인척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찜질방이나 모텔 등 임시거주 형태로 지내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거주지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질문했을 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원가족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0%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부모가 자력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

## 5)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청소년기에 겪는 임신과 출산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원가족에게도 적잖은 충격일 수 있다.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원가족 대부분은 자녀의 임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적 지지 보다는 자녀의 임신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유산이나 입양을 권유하는 등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당사자는 원가족과 갈등을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다(송지나 외, 2014; 은주희, 임고운, 2019; 이용우, 양호정, 2019; 은주희, 임고운, 2020).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경험하는 원가족과의 갈등을 청소년부모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일반화 할 수는 없으나, 청소년부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생각하면 원가족이 처음부터 이들이 처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2019년 서울신문에서 20세 이상의 성인 504명에게 청소년부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2%가 정상적인 양육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서울신문, 2019.5.7.). 또한 어린 나이에 부모됨을 선택한 이들을 “용감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도 했으나, “사회적 약자로 살아갈 아이와 부모가 불쌍하다”는 등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미래가 불행할 것이라는 편견 어린 시선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서울신문, 2019.5.7.).

한편, 청소년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은 이들의 사회적 관계 역시 단절시킬 가능성이 높다. 십대에 출산한 기혼모들을 연구한 송지나 외(201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기의 임신과 출산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을 당사자들 스스로도 갖고 있으며 자신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경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해나갈 수 있는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벗어나게 되거나 기존 지인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등의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할 수 있다(송지나 외, 2014; 이용우, 양호정, 2019; 은주희, 임고운, 2020). 또한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비롯된 ‘어린’ 부모라는 프레임으로 인해, 청소년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평가절하되는 사회적 무시를 경험하기도 한다(은주희, 임고운, 2020).

### 3. 소결 및 시사점

#### 1) 법적 정의에 따라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 놓인 청소년부모

19세~34세의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정책대상으로서 2020년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및 교육, 참여와 권리 등의 영역에서 179개 사업, 16.9조원의 지원을 받았고, 2021년도에는 사업과 예산이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270개 사업, 22조여원) 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20.12.;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2021.8.31.). 사업에 따라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19세~34세의 청년은 교육, 일자리, 주거, 건강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대상으로서 청소년부모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부 또는 모가 25세~34세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 개인은 청년 정책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부모를 위한 사업이나 정책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앞서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듯이(〈표 II-1〉 참고), 2020년 기준으로 부모 모두 34세 이하인 청년부모 약 55만여 가구 중, 청소년부모 가구에 해당되지 않으나,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년·청소년부모가구는 전체 청년부모 가구의 약 3.3%인 1만 8천여 가구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의로 인해 1만 8천여 가구가 유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체계에서 청소년부모에 포함되지 못하는 청소년·청년부모의 생활 실태 및 정책 소외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의 대상으로서 이들을 포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 청소년·청년부모, 청년부모의 실태와 정책 욕구를 비교·분석하여 근거기반의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청소년부모 실태 파악 연구 필요

앞서 기존 연구들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청소년부모가 속하는 24세 이하의 초기 청년은 사회경제적 그리고 심라정서적 건강 측면에서 후기 청년(25세~34세)에 비해 취약할 수 있다. 초기 청년은 연령 특성상 교육 수준이나 취업률이 후기 청년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소득, 건강,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변금선 외, 2022, 재인용; 김태완 외, 2019; 이주미, 김태완, 2022). 선행 연구 검토 결과, 청소년기 혹은 초기 청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경우 일반 청년보다 더 많은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 문제에서부터 스스로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학업, 생계와 근로, 주거 문제, 자녀의 돌봄과 양육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원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경제적, 심라정서적인 지원이나 지지체 제조차 부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청소년부모와 같이 사회통념과 다르게 이른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경우, 주거, 학업, 주거, 취업과 경제적 상황,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성을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취약성은 대부분 미혼모 또는 한부모 대상 연구에 의해 밝혀진 내용이다. 청소년부모 역시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으로서 면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에 초점을 두고 실태를 파악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최근 은주희, 임고운(2019)의 연구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도되었지만, 이들의 연구에서도 조사응답자 총 315명 중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는 47.9%에 불과해, 대부분 청소년한부모에 기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청소년부모의 취약성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와 청소년부모 정책에서 소외된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 경제적 상황과 취업, 임신·출산·양육 등의 실태와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 — 제3장

#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현황

- 1.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현황
- 2. 청소년부모 지원 서비스
- 3. 소결



## 1.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현황

### 1) 근거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2021년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신설되었다. 【제5장의 2 청소년부모 지원】에서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위한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는 동법 제18조의2에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관리사업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기준, 범위 및 기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제18조의3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통령령」 제10조의 2 제2항): ①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②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서비스 지원, ③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 ④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그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복지지원. 제18조의 4, 제18조의5에서는 청소년부모의 학업,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 관한 근거로 국가와

6) 3장은 이상정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 검정고시 지원,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 직업교육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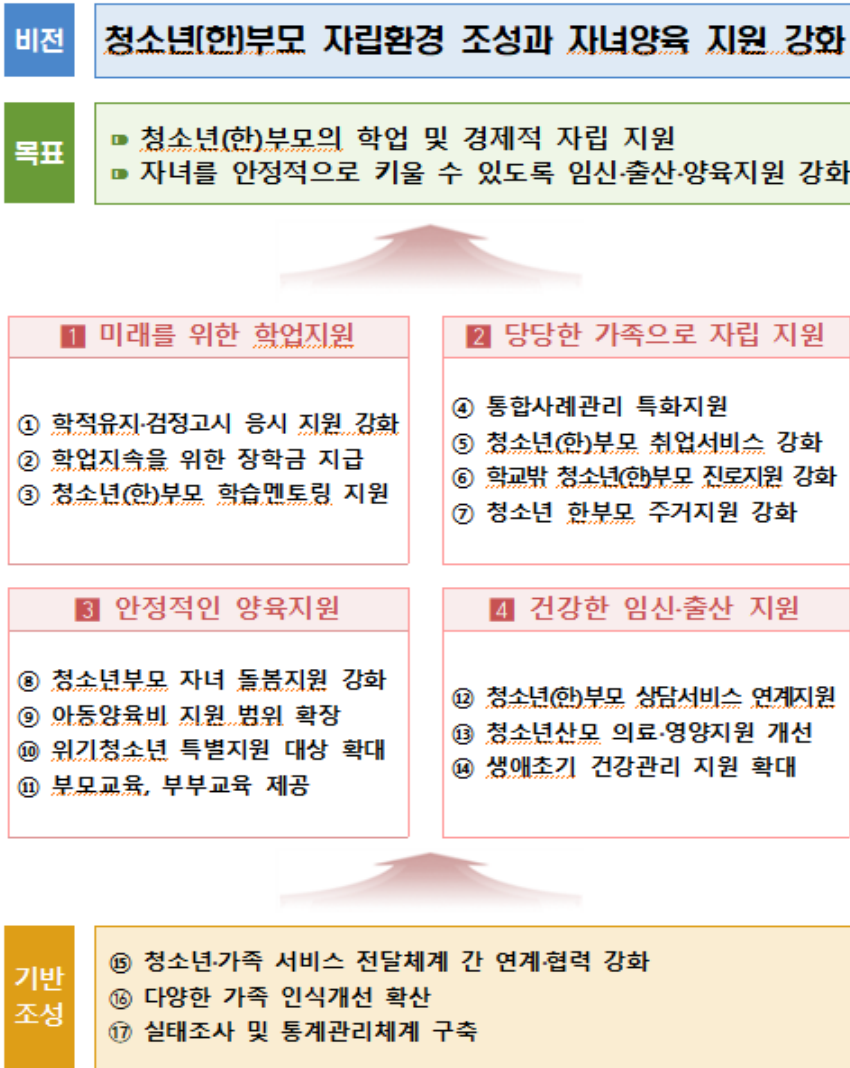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청소년부모 지원 근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명확히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임의 규정이다. 또한, 청소년부모 대상 가족지원서비스와 복지지원 기간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1년이며, 지원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에 24세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기간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하고 있어(「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통령령」 제10조의2 제2항 제5호), 자녀의 임신과 출산, 양육 그리고 당사자의 자립이라는 청소년부모의 장기적·다중적 위기 지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무엇보다 24세 이후의 연속적인 지원을 단절시키고 있다.

## 2) 청소년부모 지원 대책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2021년 3월 근거법이 신설된 직후인 2021년 11월에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되었다.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시범사업, 통합사례관리 도입, 청소년산모 의료비 사용기간 확대 및 대상 연령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2021.11.)은 <그림 III-1>과 같다. 우선, 학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부모가 대학생인 경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 등에 있어 소득심사에서 원가정 부모의 소득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것과 청소년부모 학습멘토링 지원 등의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취약·위기 가족 사례관리 대상에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통합사례관리를 전국 93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 청소년부모 취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진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주거지원 은 청소년한부모에 중심으로 미혼모시설을 한부모가족시설로 개편하는 과제와 매입임대주택 확대 공급물량 확대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부모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를 통한 주거부담 완화가 유일하다.

자녀 양육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청소년부모에게 확대 적용하고, 어린 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청소년부모에게도 부여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를 인상하는 한편, 청소년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만 24세까지 확대하여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청소년(한)부모를 조기발굴, 지원한다는 계획과 부모교육 매뉴얼 제공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1.11.).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217](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217)에서 2022년4월 14일 인출.

그림 Ⅲ-1.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

임신·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소년(한)부모 상담서비스 체계 표준화, 의료지원 연령 및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재 29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산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여성가족부 중심의 청소년(한)부모 지원 협력체계 강화, 인식개선 사업 추진, 실태조사와 통계관리체계 구축 과제 또한 포함하고 있다.

## 2. 청소년부모 지원 서비스

청소년부모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청년 또는 일반 정책과 사업들은 표 III-1과 같다. 그러나 대부분이 청소년부모가 ‘신청가능’한 사업들로서 청소년부모를 특정하여 배려하거나 포괄하지 않고 있다. 특히,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지위로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주거와 생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관련 내용은 부재하며, 소득과 연관된 근로 지원에 있어서도 영유아 자녀 돌봄 문제와 같은 청소년부모의 특성을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다.

우선, 임신·출산지원을 살펴보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첫만남 이용권 등의 의료비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조제분유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2022). 이러한 지원들은 국민행복카드 전자바우처로 발급 받는 현금성 지원이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사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만 해당하며, 최소 5일에서부터 최대 2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c).

표 III-1.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

| 구분    | 정책·사업                         | 주요 내용                          |
|-------|-------------------------------|--------------------------------|
| 임신·출산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 • 만 19세 이하 120만원(일반 임신부 100만원) |
|       | 첫만남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시 200만원 지원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 수급, 차상위 가구 대상<br>• 본인부담금 有   |
|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 2021.4.1. 기준, 30개 보건소 시행     |
|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br>(국민행복카드) | • 수급, 차상위 가구 등                 |

| 구분             | 정책·사업                     | 주요 내용                                                                         |
|----------------|---------------------------|-------------------------------------------------------------------------------|
| 양육             | 아동수당                      | • 8세 미만 월 10만원                                                                |
|                | 양육수당(영아수당)                | • 10~30만원 월령에 따른 차등 지급                                                        |
|                | 아동양육비                     | • 소득기준, 한부모 35만원/청소년부모 20만원 등                                                 |
|                | 아이돌봄서비스                   | •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 有                                                               |
| 주거             | LH임대지원,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지원 | • 수급가정 우선<br>• 자부담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이 (청소년)한부모 중심<br>•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법정대리인동의/대리 필요 |
| 생계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 • 부양의무자 조사<br>• 소득인정액 기준                                                      |
| 근로             | 국민취업지원제도                  | • 소득기준(Ⅱ유형, 특정 대상 중 청소년부모 포함)                                                 |
|                | 국민내일배움카드                  | • 훈련비 지원                                                                      |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전국 159개소 운영                                                 |
| 가족<br>역량<br>강화 |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 청소년부모 대상 신규(2022)사업                                                         |
|                | 법률지원                      | • 소득기준, 시간/횟수/기간 제한 有                                                         |
|                | 학습정서지원(자녀대상)              | • 건강가정센터 93개소 제공                                                              |

\* 출처: 이 표는 아래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1) 임신·출산 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22c). 사업별소개-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24](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24)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2) 첫만남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22b). 사업별소개-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69](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69)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c). 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201&PAGE=1&topTitle=](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201&PAGE=1&topTitle=)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국민행복카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22a). 사업별소개-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39](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39)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5)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d). 정책-인구아동-아동복지정책-아동수당지급.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1&PAGE=1&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1&PAGE=1&topTitle=)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6) 양육수당.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a). 정책-보육-보육사업기획-영아수당.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204&PAGE=4&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204&PAGE=4&topTitle=)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7) 아동양육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2a).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양육-양육지원-아동양육비. [http://www.mogef.go.kr/cs/ops/cs\\_opf\\_f921.d](http://www.mogef.go.kr/cs/ops/cs_opf_f921.d)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8)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2022). 아이돌봄 사업소개.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5&L\\_MENU\\_CD=020101&H\\_MENU\\_CD=0201&SITE\\_ID=FRONT&MENU\\_SITE\\_ID=FRONT](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5&L_MENU_CD=020101&H_MENU_CD=0201&SITE_ID=FRONT&MENU_SITE_ID=FRONT)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9) 주거. 아름다운재단, 킹메이커 (2022). 청소년부모 지원 사례관리 매뉴얼북. [https://www.kingmaker.or.kr/bbs/board.php?bo\\_table=file&wr\\_id=55&me\\_code=6010](https://www.kingmaker.or.kr/bbs/board.php?bo_table=file&wr_id=55&me_code=6010)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10)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b). 정책-복지-기초생활보장-급여수준-급여개요-급여상세설명-생계급여.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5&PAGE=5&topTitle=에서](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5&PAGE=5&topTitle=에서) 2022년 9월 22일 인출.

- 11)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022). 사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란-지원대상.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Trgt.d에서> 2022년 9월 22일 인출.
- 12)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포털HRD-Net 홈페이지 (2022). 정보마당-직업능력개발사업 안내-개인-국민내일배움카드 <https://www.hrd.go.kr/hrdp/gi/pgibo/PGIB00100T.do에서> 2022년 9월 22일 인출.
- 1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2022). 새일센터소개-사업소개. [https://saeil.mogef.go.kr/hom/HOM\\_Main.do에서](https://saeil.mogef.go.kr/hom/HOM_Main.do에서) 2022년 9월 22일 인출.
- 14) 가족역량강화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II). 서울: 여성가족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영아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보건소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만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2020년도에 도입된 본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뿐만 아니라 수유·육아 교육 및 양육서비스, 심리정서적 지원, 육구 기반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방문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지만,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30개소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21.4.1.). 이러한 서비스는 임신·출산과정에서 건강 관리 및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가 취약한 청소년부모에게 매우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영국의 경우에는 가족간호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10대 청소년부모를 집중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김성아, 정소연, 이우태, 이상정, 박광옥, 2022).

특히, 예기치 못한 임신·출산으로 생계의 위기에 놓여있는 청소년부모에게 생활비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지원은 맞춤형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생계비가 대표적이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의 청소년부모가구는 맞춤형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한부모가구는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1.4.). 청소년부모 가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있으나 원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자산조사에 포함되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주거비를 마련하지 못해 원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자산조사에 포함되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표 III-2. 청소년부모 생계지원

| 사업                                    | 관할부처      | 내용                                                                                                                                                                                        |
|---------------------------------------|-----------|-------------------------------------------------------------------------------------------------------------------------------------------------------------------------------------------|
| 맞춤형기초생활<br>보장<br>(생계급여) <sup>1)</sup> | 보건<br>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li> <li>-3인가구 125만8410원</li> <li>-4인가구 153만6324원</li> <li>*의로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적용</li> </ul>                   |
| 긴급복지지원<br>(생계지원) <sup>2)</sup>        | 보건<br>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지원 후조사</li> <li>• 1개월 선지원, 2개월 연장지원(심의, 3개월 추가연장 가능)</li> <li>-3인가구 106만6000원</li> <li>-4인가구 130만4900원</li> <li>*해산비, 장제비 등도 긴급지원 가능</li> </ul> |

\* 출처: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b). 정책-복지-기초생활보장-급여수준-급여개요-급여상세설명-생계급여.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5&PAGE=5&topTitle=에서](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5&PAGE=5&topTitle=에서) 2022년 9월 22일 인출.  
 2) 보건복지부 (2022).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p.2, p.39의 내용과 p.45의 표를 참고하여 작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생계비 지원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생계위기에 놓여있는 청소년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배보은, 2022).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부모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배보은, 2022). 그러나 긴급 생계비 지원은 일시적·한시적 지원으로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부모, 특히 미성년 청소년부모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받는 과정 자체를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필요로 하며, 지원체계를 통해 긴급 생계비 지원 이후의 생계가 위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다른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한)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은 <표 III-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거지원사업 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며, 1순위로 우선 지원대상이다(아름다운재단, 킹메이커, 2022). 신희희망타운주택은 그나마 청년부모가구가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원할 수 있지만, 한부모가족이 우선 공급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청소년부모는 그렇지 않다. 더욱이 미성년 연령의 청소년이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조차 할 수 없다.

표 III-3. 청소년(한)부모 주거지원

| 사업   | 관할부처      | 내용                   |                         |
|------|-----------|----------------------|-------------------------|
| 공공분양 | 국토<br>교통부 | • 공공분양주택*            | • 특별공급                  |
|      |           | • 신혼희망타운주택           | • 한부모 가점제로 우선공급         |
| 공공임대 | 국토<br>교통부 | • 영구임대*              | -                       |
|      |           | • 국민임대               | • 우선공급, 일반공급 시 가점 부여    |
|      |           | • 행복주택*              | • 일반공급 대상(일반형)          |
|      |           | • 분양전환 공공임대(5년, 10년) | • 특별공급(기관추천)            |
|      |           | • 매입임대*              | • 가족주택 매입임대<br>• 청년매입임대 |
|      |           | • 전세임대*              | • 가족주택 매입임대<br>• 청년매입임대 |

\* 출처: 아름다운재단, 킹메이커 (2022). 청소년부모 지원 사례관리 매뉴얼북.  
[https://www.kingmaker.or.kr/bbs/board.php?bo\\_table=file&wr\\_id=55&me\\_code=6010](https://www.kingmaker.or.kr/bbs/board.php?bo_table=file&wr_id=55&me_code=6010)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주: 공공분양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한부모가족일 경우 1순위에 해당함.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여성가족부의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검정고시 등의 학습지원(연 154만원 이내)이나 교육비(연 500만원 이내 고등학교 학비), 그리고 월 10만원(총 12개월)의 자립촉진수당은 청소년한부모만 해당되고 청소년부모는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2b).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일 때 청소년부모도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사업은 93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 기반으로 제공되며, 해당 사업 내에서 학습정서지원은 배움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 계획과 지도, 정서지원 등을 1년 동안 지원하는데 필요시 1년 더 연장가능하며, 자녀와 청소년부모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부모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해 상담 서비스도 제공되며, 가구당 10회 이내 전문상담기관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법률서비스 연계도 가능하다. 한편, 전문상담기관 상담서비스와 법률서비스는 총합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2). 한편,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내에서의 청소년부모 자립생활지원은 단기, 일시적으로 제공되며 금액과 횟수에도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한부모 지원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타난다. 즉, 자녀의 임신과 출산,

양육, 당사자의 교육 및 취업·훈련 등 장기적 과정인 자립에 실질적인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표 III -4. 청소년부모 자립생활지원

| 사업                 | 관할부처      | 내용                                                                         |                                                                                                                                                    |
|--------------------|-----------|----------------------------------------------------------------------------|----------------------------------------------------------------------------------------------------------------------------------------------------|
| 가족역량<br>강화지원<br>사업 | 여성<br>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정서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움지도사(청소년부모 멘토) 파견</li> <li>•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li> <li>• 1년 이내(필요시 1년 연장 가능)</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제공(청소년부모 멘토 또는 가족센터 상담팀 연계)</li> <li>• 필요시 전문상담기관 연계(가구당 10회 이내)</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 소액대출채무 문제 상담 및 신용회복 지원 등</li> <li>* 가구당 법률지원 금액,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 금액 총합 200만원 이내 지원</li> </ul> |

\* 출처: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II). 서울: 여성가족부.

### 3. 소결

#### 1) 동일 대상, 지원의 격차

청소년부 또는 모, 청년 부 또는 모는 이른 시기에 자녀의 출산과 양육, 돌봄을 수행함과 동시에, 성인으로서 스스로의 자립을 위한 학업, 취업과 같은 발달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진 정책 대상이다(류정희 외, 2022).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 부모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아동에게도 미칠 수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근거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청년 또는 청소년 부모에게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여성가족부, 2022.2.18.), 지원금액은 부모의 소득과 연령, 아동의 연령을 구분하여 세분화되어 있다(류정희 외, 2022).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부모의 연령이 청년(만 25세~34세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자녀가 만 5세 이하이면 월 10만원을 추가하여 30만원이 제공되고 자녀가 만 6세 이상일 경우에는 월 5만원이 추가되어 총

25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로 청소년에 해당하면, 가구 소득 기준은 60% 이하, 지급액도 35만원으로 기준이 조정·적용되고, 학업·취업 등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 총 45만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류정희 외, 2022). 저소득 청년과 청소년 한부모는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 청년·청소년 부모(부부)에게는 양육비 지원이 없었다.

표 III-4.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구분                       |            | 근거법              | 부모 연령                              | 가구소득 기준<br>(중위소득) | 아동 연령              | 추가금액                      | 총<br>지원금액 |
|--------------------------|------------|------------------|------------------------------------|-------------------|--------------------|---------------------------|-----------|
| 한부모가족<br>아동 양육비<br>지원사업  | 청년<br>한부모  | 한부모<br>가족<br>지원법 | 만 25<br>~34세                       | 52% 이하            | 만 5세 이하            | 10만원                      | 30만원      |
|                          |            |                  |                                    |                   | 만 6세 이상<br>~18세 미만 | 5만원                       | 25만원      |
|                          | 청소년<br>한부모 | 한부모<br>가족<br>지원법 | 만 24세<br>이하                        | 60% 이하            | 만 18세 미만           | 15만원                      | 35만원      |
|                          |            |                  |                                    |                   |                    | 10만원<br>*취업·학업 등<br>자립활동시 | 45만원      |
| 청소년부모<br>아동 양육비<br>지원 사업 | 청소년<br>부모  | 청소년<br>복지<br>지원법 | 부모 모두<br>만 24세<br>이하<br>*사실혼<br>인정 | 60% 이하            | 만 18세 미만           | -                         | 20만원      |

\* 출처: 류정희 외.(2022).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따라서 2021년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  
에 근거하여, 22년 7월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부모가구의 기준 소득이 60% 이하일 때,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추가금액이나 자립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조건에서 가구 수가  
1명(배우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15만원~25만원의 지원 금액 격차가 발생한다. 이러  
한 지원의 격차는 사실혼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청년 또는  
청소년 한부모가구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청소년부모가 비혼 동거

상태로 남게 하는 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배보은, 2022). 이에 더하여 「한부모가족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아동양육비지원사업에서 청소년이 포함된 저소득 청소년·청년 부모가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지원체계 부재

2022년 7월 도입된 아동양육비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청소년부모 특화사업은 가족역량 강화 사업이 거의 유일하다. 2021년 대책에서 약속한 바대로 전국 93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기반으로 가족역량강화사업 또한 청소년부모대상 신규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해당 사업들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시간, 횟수, 기간 제한이 있다. 무엇보다 건강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청소년부모 사례에 대한 전문성 부족,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청소년부모가 이용하고 있는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부모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부처별, 사업별로 서비스 제공 주체가 공공 또는 민간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주의 기반의 현재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라 할 수 있다(류정희 외, 2022). 또한,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관련 현금성 지원은 강화되고 있지만 임신·출산, 자녀 양육 과정의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및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가 부재하여 현재의 지원만으로는 청소년부모 스스로의 성장과 자립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배보은, 2022).



## ○———— 제4장

# 청소년부모 자립 현황

- 1. 조사 개요
- 2. 조사 결과
  - :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및 FGI 결과



## 1. 조사 개요

### 1)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 (1) 조사 개요

청소년부모 실태조사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부모(부 또는 모가 1998년 이후 출생자인 경우)<sup>8)</sup>가구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부모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조사는 연구 목적에 따라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구까지 포괄하여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정책 소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부모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진행하였으며(IRB 승인번호 제2022-037호),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웹 설문 방식으로 2022년 6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는 모집단 규모가 특정되지 않고 조사 대상자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조건에서 가능한 많은 수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한 유의추출(purposive sampling) 방식으로 표본을 확보하였다(〈표 IV-1〉 참조). 조사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에게 조사 참여 안내문과 설문 참여 동의 여부 등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조사 참여링크를 전송하였고, 이에 응답한 참여자들은 설문 응답용 웹링크를 전달 받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출된 본 조사의 최종 유효 표본은 101명이며, 조사 대상자 모집 경로별 인원은 〈표 IV-1〉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4장 1절과 2절의 1) 응답자 특성은 하태정 전문연구원이 2절의 2) 주거, 3) 건강, 4) 취업과 경제상황은 류정희 연구위원이, 5) 교육, 6) 자녀 양육, 7) 가족 및 사회적 관계는 변수정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8)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부모의 연령은 만 나이 기준으로 24세 이하임. 그러나 법적 연령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조사 대상자의 특성상 충분한 표본 확보가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조사연도(2022년) 기준으로 세는 나이로 25세 이하(1998년 이후 출생자)인 자를 조사 대상으로 모집하였음. 분석 진행시에는 1998년 출생자는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만 24세 이하로 계산하였음을 밝힘.

표 IV-1.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자 모집 경로별 응답 인원

(단위: 명)

| 모집 경로                   |              | 응답 인원 |
|-------------------------|--------------|-------|
| 1. 청소년부모 관련 민간지원단체 소개   |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 37    |
|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4     |
| 2. 아동/청소년/가족 관련 복지시설 소개 |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 2     |
|                         | 가족센터         | 1     |
| 3. 청소년부모 섭외담당자를 통한 모집   |              | 35    |
| 4. 오픈카톡방을 통한 모집         |              | 16    |
| 5. 가응답자 통한 눈덩이표집        |              | 6     |
| 계                       |              | 101   |

## (2) 조사 항목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의 조사 영역은 주거, 건강, 임신 및 출산, 취업, 경제 상황, 학업, 자립, 자녀 양육,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및 서비스로 나눌 수 있으며, 총 150개 문항(정책 사업별 필요 여부 등의 세부 항목 포함)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의 일부 문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의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문항별 조사 내용과 출처는 <표 IV-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V-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과 문항별 출처

| 영역                 | 문항 번호 | 조사 내용             | 출처     |
|--------------------|-------|-------------------|--------|
| Screening Question | SQ1-1 | 배우자 동거여부          | 연구진 개발 |
|                    | SQ1-2 | 배우자 혼인신고 여부       | "      |
|                    | SQ1-3 | 혼인신고 하지 않은 이유     | "      |
|                    | SQ2   | 출생년월(응답자, 배우자)    | "      |
|                    | SQ3-1 | 자녀 유무             | "      |
|                    | SQ3-2 | 함께 생활 중인 자녀 수     | "      |
|                    | SQ3-3 | 첫째 자녀의 아니         | "      |
|                    | SQ3-4 | 현 배우자 첫째 자녀 친부 여부 | "      |

| 영역                     | 문항 번호  | 조사 내용                                        | 출처                        |
|------------------------|--------|----------------------------------------------|---------------------------|
| A.<br>주거               | A1     | 거주 지역                                        | "                         |
|                        | A2     | 배우자 외 동거인                                    | 은주희, 임고운(2019)            |
|                        | A3     | 현 거주지                                        | 변수정 외(2019)               |
|                        | A3-1   | 현 주거 형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
|                        | A3-2   | 현 거주 주택 소유 형태                                | "                         |
|                        | A3-3   | 현재 거주지의 주거비용을 마련한 사람                         | "                         |
|                        | A4     | 주거 마련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 "                         |
|                        | A5     | 정부의 주거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여부,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 변수정 외(2019) 수정            |
|                        |        |                                              |                           |
| B.<br>건강               | B1     | 신체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
|                        | B2     | 지난 1년 간 건강검진 수검 여부                           | "                         |
|                        | B3     |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취한 조치                          | "                         |
|                        | B3-1   |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 "                         |
|                        | B4     | 우울 수준                                        | "                         |
|                        | B5     | 아동·청소년기의 경험                                  | "                         |
|                        | B6     | 자기 삶 평가                                      | 류정희 외(2019)               |
|                        | B7     | 건강 관련 정책 중 정부가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사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
| C.<br>임신 및 출산<br>관련 사항 | C1     | 첫 자녀 출산 당시 나이(응답자, 아이 아버지)                   | 이영호, 박지윤(2021)            |
|                        | C2     | 출산을 결정한 주된 이유                                | 김지현 외(2018)               |
|                        | C3     | 출산 결정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                           | "                         |
|                        | C4     | 첫 자녀 임신사실 인지 시기                              | 변수정 외(2019)               |
|                        | C5     | 첫 자녀 출산 전 임신기간 산전 진찰 경험 여부                   | 변수정 외(2019) 수정            |
|                        | C6     | 첫 자녀 산전 진찰 받지 않은 이유                          | 변수정 외(2019)               |
|                        | C7     | 정부의 임신·출산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여부,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 변수정 외(2019) 수정 및<br>사업 추가 |
|                        | C8     | 임산·출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                         | 변수정 외(2019)               |
| D.<br>취업 관련 사항         | D1     | 맞벌이 여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
|                        | D2     | 근로 여부                                        | "                         |
|                        | D3-1   | 고용 형태                                        | "                         |
|                        | D3-2-1 | 월급(세후)                                       | "                         |
|                        | D3-2-2 | 지난 달 총 소득                                    | 연구진 개발                    |

| 영역                       | 문항 번호 | 조사 내용                                         | 출처                          |
|--------------------------|-------|-----------------------------------------------|-----------------------------|
|                          | D3-3  | 근로시간 유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
|                          | D4    | 전일 근로 하지 않는 이유                                | 연구진 개발                      |
|                          | D5    | 구직 여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
|                          | D5-1  | 구직 성공시 일 시작 가능 여부                             | "                           |
|                          | D5-2  | 일 시작 불가했던 이유                                  | "                           |
| E.<br>경제 상황<br>관련 사항     | E1    | 한 달 가족 생활비                                    | 연구진 개발                      |
|                          | E1-1  | 생활비 중 부모님/친지 지원 금액                            | "                           |
|                          | E2    | 채무 유무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
|                          | E2-1  | 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유                                 | "                           |
|                          | E3    | 물질적 박탈 경험                                     | "                           |
| F.<br>학업 관련 사항           | F1    | 최종학력                                          | 연구진 개발                      |
|                          | F2    | 대학 진학하지 않은 이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수정         |
|                          | F3    | 학업 중단 이유                                      | 변수정 외(2019)                 |
|                          | F4    | 학업 지속에 가장 큰 어려움                               | "                           |
| G.<br>자립을 위한<br>교육 관련 사항 | G1    | 자립 위해 높은 학력 필요 여부                             | "                           |
|                          | G1-1  | 자립 위해 필요한 최소 학력                               | "                           |
|                          | G1-2  | 높은 학력 위해 가장 받고 싶은 교육 유형                       | "                           |
| H.<br>자녀 양육              | H1    | 미취학 자녀 돌봄 방식                                  | 김지현 외(2018)                 |
|                          | H2    | 일주일 중 미취학 자녀가 혼자 있는 기간                        | 변수정 외(2019),<br>류정희 외(2019) |
|                          | H2-1  | 미취학 자녀 혼자 있는 시간                               | "                           |
|                          | H3    | 미취학 자녀 양육 시 힘든 점                              | "                           |
|                          | H4    | 정부의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정책에 대한 필요여부,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 변수정 외(2019) 수정 및<br>사업 추가   |
| I.<br>가족 및<br>사회 관계      | I1    | 현 배우자 결혼생활 만족 여부                              | 류정희 외(2019)                 |
|                          | I2    | 자녀 앞 배우자와 다투는 빈도                              | "                           |
|                          | I3    |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부모효능감)                           | "                           |
|                          | I4    | 부모님/양육자와의 관계                                  | 변수정 외(2019)                 |
|                          | I4-1  | 부모님/양육자와의 잘 만나지 않는 이유                         | "                           |
|                          | I5    | 사회적지지 체계 유무<br>(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

| 영역                        | 문항 번호 | 조사 내용                      | 출처             |
|---------------------------|-------|----------------------------|----------------|
| 청(소)년부모<br>지원 정책 및<br>서비스 | J1    | 첫 자녀 임신출산 시 가장 많은 도움 받은 기관 | 변수정 외(2019)    |
|                           | J2    | 첫 자녀 양육 시 가장 많은 도움 받는 기관   | "              |
|                           | J3    | 자립을 하는 데에 가장 많은 도움 받는 기관   | "              |
|                           | J4    | 청소년부모 국가지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 "              |
|                           | J5    | 청소년부모 자립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변수정 외(2019) 수정 |

## 2) 청소년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개요

청소년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이하 FGI)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IRB 승인번호 제2022-060호)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또는 애인, 아이 아버지)의 올해 나이가 25세 이하(1998년 이후 출생)이고, 현재 배우자(또는 애인, 아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임신 중인 가구의 어머니로 하였고, 연구진이 개발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4회기를 진행하였다.

표 IV-3. 청소년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개요

| 구분        | 세부 내용                                                                                                                                                                                                                                                                                                                                |                          |    |
|-----------|--------------------------------------------------------------------------------------------------------------------------------------------------------------------------------------------------------------------------------------------------------------------------------------------------------------------------------------|--------------------------|----|
| 인터뷰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연도(2022년) 기준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의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본인 또는 배우자(또는 애인, 아이 아버지)의 올해 나이가 25세 이하(1998년 이후 출생)</li> <li>② 현재 배우자(또는 애인, 아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임신 중</li> </ul> </li> <li>※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FGI 참여를 희망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선정</li> </ul> |                          |    |
| 인터뷰 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 8월 1일 ~ 8월 17일</li> </ul>                                                                                                                                                                                                                                                               |                          |    |
| 인터뷰 진행 경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4회, 9명</li> </ul>                                                                                                                                                                                                                                                                           |                          |    |
|           | 그룹                                                                                                                                                                                                                                                                                                                                   | 인터뷰 일시                   | 인원 |
|           | A                                                                                                                                                                                                                                                                                                                                    | 2022. 8. 1. (월) 14시      | 3명 |
|           | B                                                                                                                                                                                                                                                                                                                                    | 2022. 8. 3. (수) 10시      | 2명 |
|           | C                                                                                                                                                                                                                                                                                                                                    | 2022. 8. 3. (수) 18시 30분  | 3명 |
|           | D                                                                                                                                                                                                                                                                                                                                    | 2022. 8. 17. (수) 15시 30분 | 1명 |

웹링크를 통해 진행한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와 별도로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FGI를 진행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실태를 보다 심도 깊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문지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청소년부모가 된 과정, 청소년부모로서의 삶, 청소년부모 자신의 자립 상황, 국내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나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IV-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V-4. 청소년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

| 구분                    | 세부 내용                                                                                                                                                                                                                                                                                                                                                                                            |
|-----------------------|--------------------------------------------------------------------------------------------------------------------------------------------------------------------------------------------------------------------------------------------------------------------------------------------------------------------------------------------------------------------------------------------------|
| 청소년부모가 된 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부모’에 대한 생각, 스스로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li> <li>• 배우자 만남 경로 및 가정을 꾸리게 된 계기, 배우자와의 관계</li> <li>• 청소년부모가 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준 관계,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li> <li>• 청소년부모가 된 후의 삶의 변화(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li> <li>• 청소년부모가 되기로한 자신의 결정에 대한 현재의 생각</li> </ul>                                                                                                   |
| 청소년부모로서의 삶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출산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 본인이 자녀의 건강상의 문제점, 임신출산 과정상의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 및 관계</li> <li>• 자녀 양육교육상 어려운 점, 자녀에 대해 현재 가장 걱정하는 것, 자녀 양육교육에 도움을 받고 있는 관계, 방법</li> <li>• 청소년부모의 임신출산, 자녀 양육교육 지원 방법에 대한 의견, 정부 또는 민간 지원에서 만족스러웠던 점과 만족스럽지 않았던 점</li> </ul>                                                                                                                   |
| 나 스스로의 자립 상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래의 일반 청(소)년과 비교할 때 스스로의 자립 상황에 대한 평가,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li> <li>• (신체 건강) 주관적 신체 건강 평가, 질병 여부,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경험 여부</li> <li>• (경제주거) 현재 상황, 경제주거 관련 정부 또는 민간의 지원 경험 여부,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 지원 경험이 없을 경우 그 이유</li> <li>• (학업·취업) 현재 상황, 향후 계획, 학업취업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li> <li>• (사회적 관계) 주로 연락하는 사람, 가깝게 지내는 사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부모님과의 관계, 원가족의 지원 여부</li> </ul> |
| 국내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에 대한 생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비, 아동양육비, 자립촉진 수당 등의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에 대한 생각</li> <li>• 청소년부모를 청년정책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li> <li>•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청년 자립지원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li> </ul>                                                                                                                                                                                                             |

## 2. 조사 결과: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및 FGI 결과

이 절에서는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결과와 FGI 결과를 실태조사의 각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에서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 조사’의 문항을 활용한 조사 항목은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부모 가구의 어머니가 응답한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청소년부모의 정책 소외 실태 및 일반 청년과의 격차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1) 응답자 특성

### (1)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응답자는 총 101명이었으며,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는 전체의 71.3%, 부모 중 한 명만 만24세 이하인 경우는 28.7%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만 24세 이하였으며, 응답자 전체의 64.4%는 교육 수준이 고졸 이하였다.

청소년부모의 자녀 수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3.2%가 1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6.8%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양육 중인 첫째 자녀의 연령은 전체 응답자의 93.1%가 만1세에서 3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의 배우자가 첫째 자녀의 친부인지 물었을 때 전체의 3%만이 친부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표 IV-5. 응답자(청소년부모)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 (단위: 명, %)          |                    |     |         |
|---------------------|--------------------|-----|---------|
| 구 분                 |                    | 사례수 | 비율      |
| 전체 <sup>1)</sup>    |                    | 101 | (100.0) |
| 가구 유형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 72  | (71.3)  |
|                     | 부모 중 한 명만 만 24세 이하 | 29  | (28.7)  |
| 모 연령<br>(응답자)       | 만 24세 이하           | 100 | (99.0)  |
|                     | 만 25세 이상           | 1   | (1.0)   |
| 교육 수준 <sup>2)</sup> | 고졸 이하              | 65  | (64.4)  |
|                     | 대학 이상              | 36  | (35.6)  |
| 자녀 수                | 1명                 | 84  | (83.2)  |
|                     | 2명 이상              | 17  | (16.8)  |
| 부 연령<br>(배우자)       | 만 24세 이하           | 73  | (72.3)  |
|                     | 만 25세 이상           | 28  | (27.7)  |

| 구 분                      |            | 사례수 | 비율     |
|--------------------------|------------|-----|--------|
| 첫째 자녀<br>연령              | 임신중        | 0   | (0.0)  |
|                          | 만 1세 미만    | 0   | (0.0)  |
|                          | 만 1세~3세 미만 | 94  | (93.1) |
|                          | 만 3세 이상    | 7   | (6.9)  |
| 현 배우자가<br>첫째 자녀의 친부인지 여부 | 예          | 98  | (97.0) |
|                          | 아니오        | 3   | (3.0)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조사대상 모집시 표본을 최대한 확보하기위해 조사연도(2022년) 기준으로 세는 나이로 25세 이하(1998년 이후 출생자)인 자를 모집하였음. 이에 따라 분석을 진행할 때에는 1998년 출생자는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만 24세 이하로 계산하였음.
- 2) 교육 수준 중 대학 이상에는 대학 진학 후 중퇴/휴학인 경우도 포함됨.

다음으로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와의 비교를 위하여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가 만 25세 이상이었으며, 응답자 중 69.3%는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는 1명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5.1%로 나타났으며, 2명 이상인 경우는 44.9%였다.

표 IV-6. 응답자(일반 청년부모)의 일반적 특성: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단위: 명, %)

| 구 분           |          | 사례수 | 비율      |
|---------------|----------|-----|---------|
| 전체            |          | 154 | (100.0) |
| 모 연령<br>(응답자) | 만 24세 이하 | 4   | (2.0)   |
|               | 만 25세 이상 | 150 | (98.0)  |
| 교육 수준         | 고졸 이하    | 47  | (30.7)  |
|               | 대학 이상    | 107 | (69.3)  |
| 자녀 수          | 1명       | 84  | (55.1)  |
|               | 2명 이상    | 70  | (44.9)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교육 수준 중 대학 이상에는 대학 진학 후 중퇴/휴학인 경우도 포함됨.

##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의 참여자는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참여를 희망한 사람들 중에서 선정하였다.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설문 응답 종료 후에 FGI 참여자 안내문을 전달 받아 인터뷰의 목적과 참여 대상, 인터뷰 과정, 인터뷰 참여 시간, 인터뷰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 참여 혜택과 개인 정보 비밀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FGI 참여 의사를 연구진에게 밝히도록 하였다. 이후 연구진은 FGI 참여를 희망한 응답자 중에서 지역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인터뷰 참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절차를 거친 후에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FGI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총 9명이며 거주지역과 연령 기준으로 정리하면 <표 IV-7>과 같다.

표 IV-7. 청소년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의 특성

| 그룹 | 인터뷰 대상자 | 거주 지역 | 성별 | 연령(세는 나이 기준) |
|----|---------|-------|----|--------------|
| A  | A1      | 경기    | 여성 | 24세          |
|    | A2      | 서울    | 여성 | 19세          |
|    | A3      | 경기    | 여성 | 23세          |
| B  | B1      | 경기    | 여성 | 23세          |
|    | B2      | 경기    | 여성 | 25세          |
| C  | C1      | 부산    | 여성 | 24세          |
|    | C2      | 부산    | 여성 | 23세          |
|    | C3      | 부산    | 여성 | 24세          |
| D  | D1      | 경기    | 여성 | 24세          |

## 2) 주거

청소년 부모의 주거상태 및 주거욕구에 대한 파악을 위해 거주지 주거현황, 주거형태, 주거지원 욕구와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비교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 청년부모의 조사결과와 비교분석 결과를 포함하였다.

### (1)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결과, 현재 함께 배우자 외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82.2%가 자녀였으며, 20.8%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4%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친인척이라고 응답했다.

표 IV-8. 현재 배우자 외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자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아버지·어머니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할아버지·할머니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인척 | 친구, 동료 및 지인 | 기타           |
|-----|----------------|--------------|--------------------|---------------------|----------------|-------------|--------------|
| 전체  | 101<br>(100.0) | 83<br>(82.2) | 21<br>(20.8)       | 2<br>(2.0)          | 2<br>(2.0)     | 0<br>(0.0)  | 11<br>(10.9)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의 거주지에 대해, 조사참여자의 74.3%가 현재 거주지의 점유 형태와 관계없이 응답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집에서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 등 가족이나 친인척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는 19.8%로 나타났다.

표 IV-9. 현재 거주지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나(또는 배우자)의 집<br>(자가, 전세, 월세 등<br>관계없이) |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 등<br>가족 및 친인척 집 | 친구 또는<br>지인 집 | 생활(복지)시설<br>(모·부자 관련<br>시설(쉼터)) | 기타         |
|-------|----------------|----------------------------------------|-------------------------------|---------------|---------------------------------|------------|
| 청소년부모 | 101<br>(100.0) | 75<br>(74.3)                           | 20<br>(19.8)                  | 0<br>(0.0)    | 0<br>(0.0)                      | 6<br>(5.9)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거주지의 점유 형태와 관계없이 응답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집에서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가구의 주거 형태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부모 가구는 다세대나 빌라

형태의 거주지에 살고 있는 경우가 38.7%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36%, 원룸이나 단독주택이 17.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부모 가구의 경우,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58.4%)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29.5%가 다세대빌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현재 주거 형태

| (단위: 명, %) |                |            |              |              |            |            |            |            |             |            |
|------------|----------------|------------|--------------|--------------|------------|------------|------------|------------|-------------|------------|
| 구 분        | 사례수            | 원룸<br>(다방) | 아파트          | 다세대/<br>빌라   | 오피스텔       | 하숙         | 기숙사        | 고시원        | 단독주택        | 기타         |
| 청소년부모      | 75<br>(100.0)  | 7<br>(9.3) | 27<br>(36.0) | 29<br>(38.7) | 5<br>(6.7) | 0<br>(0.0) | 0<br>(0.0) | 0<br>(0.0) | 6<br>(8.0)  | 1<br>(1.3) |
| 일반 청년부모    | 140<br>(100.0) | 1<br>(1.1) | 81<br>(58.4) | 41<br>(29.5) | 1<br>(1.0) | 0<br>(0.0) | 0<br>(0.0) | 0<br>(0.0) | 15<br>(8.9) | 1<br>(1.1)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표 IV-9>에서 '나(또는 배우자)의 집(자가, 전세, 월세 등 관계없이)'에 응답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독립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의 거주지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청소년부모의 경우 전세 응답자의 57.3%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전세가 24.0%, 자가인 경우가 12.0% 순이었다. 반면,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았고, 자가가 33.5%, 보증금 있는 월세가 16.4%를 차지했다. 청소년부모의 주거점유형태는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1. 현재 거주지의 점유 형태(주거비용 지불 방식)

| (단위: 명, %) |               |             |              |               |               |                  |            |
|------------|---------------|-------------|--------------|---------------|---------------|------------------|------------|
| 구 분        | 사례수           | 자가          | 전세           | 보증금이<br>있는 월세 | 보증금이<br>없는 월세 | 사글세, 연세,<br>일세 등 | 무상         |
| 청소년부모      | 75<br>(100.0) | 9<br>(12.0) | 18<br>(24.0) | 43<br>(57.3)  | 4<br>(5.3)    |                  | 1<br>(1.3) |

| 구 분     | 사례수            | 자가           | 전세           | 보증금이 있는 월세   | 보증금이 없는 월세 | 사글세, 연세, 일세 등 | 무상         |
|---------|----------------|--------------|--------------|--------------|------------|---------------|------------|
| 일반 청년부모 | 140<br>(100.0) | 48<br>(33.5) | 65<br>(47.4) | 23<br>(16.4) | 0<br>(0.0) | 2<br>(1.4)    | 2<br>(1.2)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는 '사글세, 연세, 일세 등'의 보기 항목을 제외하고 문항을 구성함.  
3) <표 IV-9>에서 '나(또는 배우자)의 집(자가, 전세, 월세 등 관계없이)'에 응답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부모의 45.3%가 전부 본인(또는 배우자) 스스로 마련했다고 응답했으며,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해주시고 본인(또는 배우자)가 일부 도운 경우(14.7%)가 뒤를 이었다.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전부 본인(또는 배우자)가 스스로 마련한 경우가 35.5%로 청소년부모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본인(또는 배우자)가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왔다고 한 경우(31.6%)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V-12. 현재 거주지의 주거 비용을 마련한 사람

| (단위: 명, %) |                |              |              |              |              |            |            |
|------------|----------------|--------------|--------------|--------------|--------------|------------|------------|
| 구 분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청소년부모      | 75<br>(100.0)  | 34<br>(45.3) | 9<br>(12.0)  | 11<br>(14.7) | 8<br>(10.7)  | 6<br>(8.0) | 7<br>(9.3) |
| 일반 청년부모    | 140<br>(100.0) | 52<br>(35.5) | 43<br>(31.6) | 24<br>(16.9) | 21<br>(16.0) |            | 0<br>(0.0)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①전부 본인(또는 배우자) 스스로 마련, ②본인(또는 배우자)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 ③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해주시고 본인(또는 배우자)이 일부 도움, ④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심, ⑤청소년부모 지원 기관 등에서 도와줌, ⑥기타  
3) <표 IV-9>에서 '나(또는 배우자)의 집(자가, 전세, 월세 등 관계없이)'에 응답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주거 비용을 전부 또는 대부분 본인이 마련한 경우의 점유 형태를 보면, 청소년부모의 62.8%가 월세 형태로 거주했고, 27.9%가 전세, 9.3%가 자가로 가장 낮았다. 일반 청년부모의 주택점유 형태는 자가와 전세의 비율이 청소년부모 보다 높았고 월세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청년부모의 자가 비율은 32.7%로 청소년부모 보다 3.5배 높았고 전세 거주는 46.9%로 1.68배 높았으며, 월세는 18.9%로 청소년부모 보다 1/3로 낮았다,

표 IV-13. 주거비용을 전부 또는 대부분 본인이 마련한 경우의 거주지 점유 형태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자가           | 전세           | 보증금이 있는 월세   | 보증금이 없는 월세 | 사글세, 연세, 일세 등 | 무상         |
|---------|---------------|--------------|--------------|--------------|------------|---------------|------------|
| 청소년부모   | 43<br>(100.0) | 4<br>(9.3)   | 12<br>(27.9) | 25<br>(58.1) | 2<br>(4.7) |               | 0<br>(0.0) |
| 일반 청년부모 | 95<br>(100.0) | 34<br>(32.7) | 43<br>(46.9) | 17<br>(18.9) | 0<br>(0.0) | 1<br>(1.4)    | 0<br>(0.0)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는 ‘사글세, 연세, 일세 등’의 보기 항목을 제외하고 문항을 구성함.  
3) <표 IV-9>에서 ‘나(또는 배우자)의 집(자가, 전세, 월세 등 관계없이)’에 응답한 사례 중에서 분석한 결과임.

향후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청소년 부모의 60.4%가 주거비용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주택환경(14.9%), 아파트, 다세대/빌라 등의 주택 유형(9.9%), 주택 노후도, 방의 개수 등을 의미하는 주택 상태(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청년부모 역시 청소년부모와 마찬가지로 주거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나(38.3%) 청소년부모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었다. 다음으로 주택유형(18.7%), 주택환경(17%), 주택위치(13.3%) 등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응답하였으며, 청소년 부모와는 달리 향후 주택가격 변화(4.5%)도 고려사항으로 포함되어 청소년부모와의 차이를 보였다.

표 IV-14. 향후 주거지 마련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1순위)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주거<br>비용     | 주택<br>유형     | 주택<br>상태    | 주택<br>위치     | 주택<br>환경     | 향후<br>주택 가격<br>변화 | 기타         |
|---------|----------------|--------------|--------------|-------------|--------------|--------------|-------------------|------------|
| 청소년부모   | 101<br>(100.0) | 61<br>(60.4) | 10<br>(9.9)  | 9<br>(8.9)  | 6<br>(5.9)   | 15<br>(14.9) | 0<br>(0.0)        | 0<br>(0.0) |
| 일반 청년부모 | 154<br>(100.0) | 59<br>(38.3) | 28<br>(18.7) | 13<br>(8.1) | 21<br>(13.3) | 26<br>(17.0) | 7<br>(4.5)        | 0<br>(0.0)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다음으로 주거 관련 지원의 필요성, 주거 관련 지원제도의 이용에 대한 청소년부모의 경험과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관련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하여 공공분양주택이 75.2%로 가장 인지도가 높았고,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정부지원 전월세 자금보증의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여부는 공공분양주택(91.1%), 공공임대주택(90.1%)가 가장 높았고 정부지원 전월세 자금보증, 주거급여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주거 관련 지원에 대한 필요여부 및 인지도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필요 여부        |              | 사례수            | 인지 여부        |              |
|----------------|----------------|--------------|--------------|----------------|--------------|--------------|
|                |                | 필요없음         | 필요함          |                | 모름           | 알고 있음        |
| 주거 급여          | 101<br>(100.0) | 21<br>(20.8) | 80<br>(79.2) | 101<br>(100.0) | 43<br>(42.6) | 58<br>(57.4) |
| 정부 지원 전월세 자금보증 | 101<br>(100.0) | 17<br>(16.8) | 84<br>(83.2) | 101<br>(100.0) | 64<br>(63.4) | 37<br>(36.6) |
| 공공 분양 주택       | 101<br>(100.0) | 9<br>(8.9)   | 92<br>(91.1) | 101<br>(100.0) | 25<br>(24.8) | 76<br>(75.2) |
| 공공 임대 주택       | 101<br>(100.0) | 10<br>(9.9)  | 91<br>(90.1) | 101<br>(100.0) | 32<br>(31.7) | 69<br>(68.3)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거관련 지원제도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주거급여(43.1%)가 가장 높았고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정부지원 전월세 자금보증(10.8%)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도움정도는 공공분양주택(76.2%)이 가장 높았고 정부지원 전월세 자금보증(75%),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주거 관련 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이용 경험        |              | 사례수           | 도움 정도       |             |             |             |              |
|----------------|---------------|--------------|--------------|---------------|-------------|-------------|-------------|-------------|--------------|
|                |               | 경험 없음        | 경험 있음        |               | 전혀 도움 되지 않음 | 별로 도움 되지 않음 | 보통          | 다소 도움 됨     | 매우 도움 됨      |
| 주거 급여          | 58<br>(100.0) | 33<br>(56.9) | 25<br>(43.1) | 25<br>(100.0) | 0<br>(0.0)  | 1<br>(4.0)  | 3<br>(12.0) | 4<br>(16.0) | 17<br>(68.0) |
| 정부 지원 전월세 자금보증 | 37<br>(100.0) | 33<br>(89.2) | 4<br>(10.8)  | 4<br>(100.0)  | 0<br>(0.0)  | 1<br>(25.0) | 0<br>(0.0)  | 0<br>(0.0)  | 3<br>(75.0)  |
| 공공 분양 주택       | 76<br>(100.0) | 55<br>(72.4) | 21<br>(27.6) | 21<br>(100.0) | 0<br>(0.0)  | 0<br>(0.0)  | 4<br>(19.0) | 1<br>(4.8)  | 16<br>(76.2) |
| 공공 임대 주택       | 69<br>(100.0) | 48<br>(69.6) | 21<br>(30.4) | 21<br>(100.0) | 0<br>(0.0)  | 1<br>(4.8)  | 3<br>(14.3) | 3<br>(14.3) | 14<br>(66.7)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FGI 결과

① 열악한 주거상황과 주거지원에 대한 높은 욕구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주거와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원가족의 지원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 집이 제일 절실해요
- 저희가 뭐 집이, 집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갈 곳도 없고 하니까. 저는 친가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거든요...

## ② 주거지원제도 이용현황과 문제점

본 실태조사 분석결과, 주거비를 마련하지 못해 부모님 또는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약 20%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주거지원제도의 욕구가 큰 청소년부모로 파악된다.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가구 소득으로 포함되어 LH와 같은 정부지원주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생계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정부지원주택이 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며 보증금이 없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나타났다.

- (LH 주거지원서비스비 수급조건의 어려움) LH가 주택, 무주택 기간이 점수가 높잖아요. 그런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날짜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쳐가지고 점수가 0점이예요.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가고 우선 사업자 때문에 소득 분위도 걸리고... LH 지원금이 제한적임
- (대출의 어려움) 그런데 저희 나이대에는 그런 안정적인 직장도 아니고 대출도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게 제일 문제예요.
- (LH 자부담금 마련의 어려움) 그리고 여기 매입 임대를 가게 되면 2천, 한 1,500에서 2천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들어가도 월세를 30만 원씩 내야 돼요. .

LH 주거지원서비스 등 공공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높지만 수급조건 및 자부담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킹메이커 등 민간의 유관 단체를 통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참가자들도 확인되었다.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지금은 한국미혼모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긴급 주거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지내는 동안 공과금이라 그런 것만 내고 월세나 그런 보증금 자체는 아예 저희에게서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저축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이런 지원이 한국미혼모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있어요.
- 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처음 청소년부모에 대해서 지원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부모들에게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사는 빌라가 다 청소년부모들이예요.
- (킹메이커 등 주거 지원 사업 활용) 저기 킹메이커에서 지원하는 주거 지원도 저가 한국미혼 저기서 연계해줘가지고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었거든요...그런데 그게 지원해주는 돈이 되게 커거든요. 그래서 당첨되면 되게 좋은... 거기는 집도 되고 가구도 다, 다 넣어주고 좋은 것 같아요.

### ③ 주거지원정책 개선방안

주거지원정책 개선을 위해 제시된 기본적인 방향성으로 특수한 정책적 욕구를 가진 대상인 청소년 부모를 위한 주거지원제도를 특화시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세대로 인정하여 자산조사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분가가 어려운 청소년부모들이 독립된 가구로서의 자립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목돈의 보증금 납부에 대한 대안, 소득 기준 현실화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주거지원이) 따로 있었으면, 뭐 신혼부부에 통합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부모라고 명칭을 할 거면, 주거지원 정책을 해주든가, 아니면 아예 소득 분위를 정확히 따져서 해주든가. 돈도 돈이지만 애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주거가 제일 좀 크게 잡히는 것 같아요.
- 신혼부부 1전형으로 해가지고 넣어서 당첨이 됐는데, 그러니까 자부담금 5%가 안 나는 거예요. 저희 둘 다 대출도 안 나와요. 지금 빚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500만원이 없어서) 못 했어요. 기간 놓쳐서.
- 재산 확인한다 이렇게 가족 등본 같은 거 떼가면 아, 시부모님 앞으로 집이 있어서 이게 안 된다고 할 때가 많았어요.
- (LH 주택 선택권의 제약) 그러니까 LH를 넣을 때 집을 제대로 못 보는 거랑 구조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선택 사항이 아예 없어요.

### (3) 소결

청소년 부모의 주거현황 관련 조사분석결과를 청소년 부모의 주거상태 및 주거욕구에 대한 파악을 위해 거주지 주거현황, 주거형태, 주거지원 욕구와 지원현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조사참여 청소년부모의 74.3%가 현재 거주지의 점유 형태와 관계없이 응답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집에서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거주 유형은 다세대나 빌라 형태가 38.7%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36%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의 거주지 점유형태별로 전체 응답자의 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57.3%), 전세(24.0%), 자가(12.0%) 순이었다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부모가 전부 본인(또는 배우자) 스스로 마

련'(45.3%),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하고 본인(또는 배우자)가 일부 도운 경우'(14.7%)가 뒤를 이었다. 일반 청년부모의 주거실태와 비교할 때 이러한 청소년부모의 현황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청소년 부모가 주거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주거비용(60.4%), 주택환경(14.9%), 주택유형(9.9%) 등의 순이었다. 주거관련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공공분양주택(75.2%),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정부지원 전월세 자금보증의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여부는 공공분양주택(91.1%), 공공임대주택(90.1%)가 가장 높았다. 주거관련 지원제도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주거급여(43.1%)가 가장 높았고, 도움정도는 공공분양주택이 가장 높았다.

FGI 분석결과는 청소년 부모의 열악한 주거상황과 주거지원에 대한 높은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행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제도의 이용에 있어서의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부모로부터 독립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본인들 외의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가구소득으로 포함되어 정부의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주거지원서비스 수급조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부담금, 보증금 납부의 부담 등이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부모들은 임신출산지원서비스로부터 출발하여 민간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서비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3) 건강

청소년 부모의 건강상태는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건강검진 수검여부, 의료시설 사용 현황, 응답자의 우울감 수준, 아동기 부정적인 삶의 경험, 삶의 만족도, 건강관련 정책수요, 출산경험과 임신출산 관련 지원정책과 사업 및 이용경험, 임신출산관련 지원정책으로 구성되었다.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비교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 청년부모의 조사결과와 비교분석결과를 포함하였다.

#### (1)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부모의 신체 건강에 대해 주관적 평가를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평가(그렇다, 매우 그렇다)하는 응답이 전체의 52.5%였고 '보통이다'가 20.6%, 부정적인 평가(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가 20.8%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76.5%, 부정적 평가는 약 3%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표 IV-17. 신체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 (단위: 명, %) |                |            |              |              |               |              |
|------------|----------------|------------|--------------|--------------|---------------|--------------|
| 구 분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청소년부모      | 101<br>(100.0) | 1<br>(1.0) | 20<br>(19.8) | 27<br>(26.7) | 38<br>(37.6)  | 15<br>(14.9) |
| 일반 청년부모    | 154<br>(100.0) | 0<br>(0.0) | 6<br>(3.0)   | 31<br>(20.6) | 102<br>(67.2) | 15<br>(9.3)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청소년부모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의 건강검진 수검 여부를 살펴 보면, 지난 1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부모는 전체 응답자의 21.8%였다.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건강검진 수검 받은 자의 비율이 48.6%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IV-18. 지난 1년간 건강검진 수검 여부

| (단위: 명, %) |                |              |              |
|------------|----------------|--------------|--------------|
| 구 분        | 사례수            | 예            | 아니오          |
| 청소년부모      | 101<br>(100.0) | 22<br>(21.8) | 79<br>(78.2) |
| 일반 청년부모    | 154<br>(100.0) | 78<br>(48.6) | 76<br>(51.4)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진찰 후 치료받은 경험 또한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의 경험은 큰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 부모의 절반(49.5%)만 병원 진찰 후 치료를 받았던

반면,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83.5%가 병원진찰 및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의료적 조치 없이 참았다고 한 응답자의 수는 청소년부모는 14.9%로 일반청년부모보다 약 3배가량 높았다.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 부모가 29.4%였다.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라 응답한 청소년 부모의 비율은 41.2%로 나타났는데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82.6%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IV-19. 응답자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의 조치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병원 진찰 후<br>치료 받음 | 병원 방문 없이<br>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아무런 조치를<br>취하지 않고 참음 | 기타         |
|---------|----------------|------------------|-------------------------|----------------------|------------|
| 청소년부모   | 101<br>(100.0) | 50<br>(49.5)     | 33<br>(32.7)            | 15<br>(14.9)         | 3<br>(3.0) |
| 일반 청년부모 | 154<br>(100.0) | 130<br>(83.5)    | 18<br>(12.1)            | 6<br>(4.4)           | 0<br>(0.0)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표 IV-20. 응답자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경제적 여유가<br>없어서 | 시간적 여유가<br>없어서 | 가까운 곳에<br>병원이 없어서 | 증상이 가볍<br>다고 생각해서 | 기타         |
|---------|---------------|----------------|----------------|-------------------|-------------------|------------|
| 청소년부모   | 51<br>(100.0) | 15<br>(29.4)   | 11<br>(21.6)   | 0<br>(0.0)        | 21<br>(41.2)      | 4<br>(7.8) |
| 일반 청년부모 | 24<br>(100.0) | 2<br>(7.2)     | 3<br>(10.3)    | 0<br>(0.0)        | 19<br>(82.6)      | 0<br>(0.0)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표 IV-19>에서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을 선택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다음은 청소년 부모의 정신건강을 우울정도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이다. 우울 정도는 한국어판 우울척도(CESD-11)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는데, 변환 점수가 16점 이상일 경우 우울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청소년부모는 평균 18.6점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위험군(변환 점수 16점 이상)으로 판단되는 청소년부모는 전체 응답자의 61.4%를 차지하였다. 반면,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우울정도 변환값 평균은 7.8점으로 청소년부모에 비해 10.8점 낮았으며, 우울위험군도 13.7%로 청소년부모 우울위험군의 1/5 수준으로 낮았다.

표 IV-21. 응답자의 우울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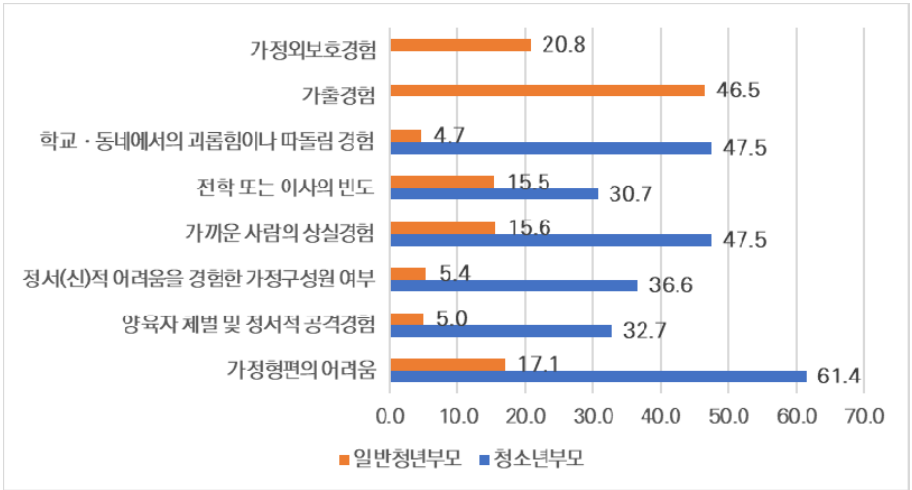
| (단위: 명, 점, %) |     |      |      |      |              |        |
|---------------|-----|------|------|------|--------------|--------|
| 구 분           | 사례수 | 중위값  | 평균   | 표준편차 | 우울 정도        |        |
|               |     |      |      |      | 우울 위험군<br>아님 | 우울 위험군 |
| 청소년부모         | 101 | 20.0 | 21.3 | 14.0 | 39           | 62     |
|               |     |      |      |      | (38.6)       | (61.4) |
| 일반 청년부모       | 154 | 5.5  | 7.8  | 8.6  | 132          | 22     |
|               |     |      |      |      | (86.3)       | (13.7)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우울 정도는 CESD-11을 사용하였음. 표에서 제시한 결과는 CESD-11의 계산 방식에 따라 전체 문항(11개)의 합계에 20/11을 곱하여 산출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16점 이상은 우울 위험군에 속함.

청소년부모의 아동·청소년기 부정적인 사건경험은 가정형편의 어려움, 양육자 체벌 및 정서적 공격경험, 정서(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가정구성원 여부, 가까운 사람의 상실경험, 전학 또는 이사의 빈도, 학교·동네에서의 괴롭힘이나 따돌림 경험, 가출경험, 가정의 보호경험으로 구성된 8개의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가출경험과 가정의 보호경험 2개 항목을 제외한 6개의 항목은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와의 비교가 가능한 항목이다. 가출경험을 가진 청소년부모는 전체의 46.5%, 양육시설, 쉼터, 위탁가정 등 가정의 보호경험을 가진 청소년부모가 20.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의 어려움을 경험한 청소년부모는 전체의 61.4%, 가까운 사람의 상실경험을 가진 청소년 부모 및 괴롭힘 또는 따돌림 경험을

가진 청소년부모가 각각 47.5%로 높았다. 일반청년부모의 경우 6개의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가정형편의 어려움 경험이 17.1%로 가장 높았고 가까운 사람의 상실경험이 15.6%, 전학 또는 이사경험 15.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IV-1. 응답자의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인 경험

표 IV-22. 응답자의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인 경험

|                     |            | (단위: 명, %)     |               |              |
|---------------------|------------|----------------|---------------|--------------|
| 구 분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 가정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 청소년부모      | 101<br>(100.0) | 39<br>(38.6)  | 62<br>(61.4) |
|                     | 일반<br>청년부모 | 154<br>(100.0) | 124<br>(82.9) | 30<br>(17.1) |
| 양육자의 체벌 및 정서적 공격 경험 | 청소년부모      | 101<br>(100.0) | 68<br>(67.3)  | 33<br>(32.7) |
|                     | 일반<br>청년부모 | 154<br>(100.0) | 144<br>(95.0) | 10<br>(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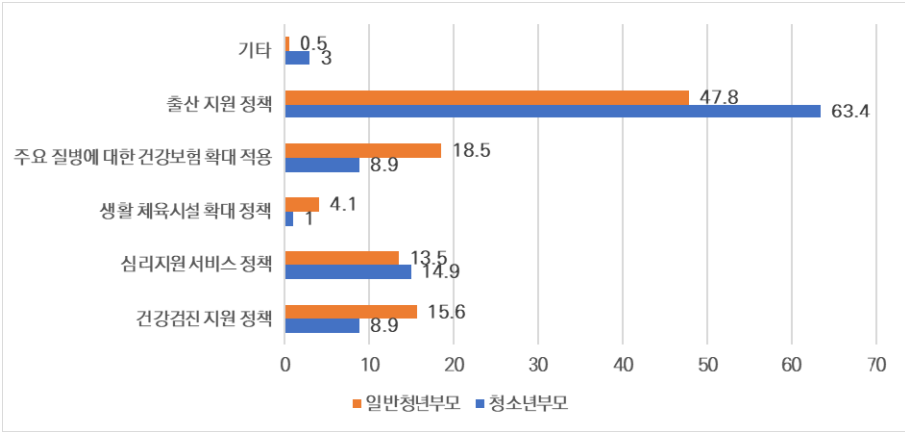
| 구 분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
| 정서적/정신적 어려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었던 경험   | 청소년부모   | 101<br>(100.0) | 64<br>(63.4)  | 37<br>(36.6) |
|                                 | 일반 청년부모 | 154<br>(100.0) | 142<br>(94.6) | 12<br>(5.4)  |
|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 청소년부모   | 101<br>(100.0) | 53<br>(52.5)  | 48<br>(47.5) |
|                                 | 일반 청년부모 | 154<br>(100.0) | 126<br>(84.4) | 28<br>(15.6) |
|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한 경험                 | 청소년부모   | 101<br>(100.0) | 70<br>(69.3)  | 31<br>(30.7) |
|                                 | 일반 청년부모 | 154<br>(100.0) | 129<br>(84.5) | 25<br>(15.5) |
|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 경험  | 청소년부모   | 101<br>(100.0) | 53<br>(52.5)  | 48<br>(47.5) |
|                                 | 일반 청년부모 | 154<br>(100.0) | 145<br>(95.3) | 9<br>(4.7)   |
| 가출 경험                           | 청소년부모   | 101<br>(100.0) | 54<br>(53.5)  | 47<br>(46.5) |
| 가정의 보호 경험<br>(양육시설, 쉼터, 위탁가정 등) | 청소년부모   | 101<br>(100.0) | 80<br>(79.2)  | 21<br>(20.8)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에게 가출 경험과 가정 외 보호 경험 문항을 추가하였음.

건강 관련 정책 중 가장 먼저 확대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 청소년부모의 63.4%가 출산지원정책을 선택했고, 14.9%가 심리지원서비스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반청년부모의 경우 47.8%가 출산지원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적용(18.5%), 건강검지지원정책(15.6%), 심리지원서비스정책(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그림 IV-2. 가장 먼저 확대가 필요한 건강 관련 정책

표 IV-23. 가장 먼저 확대가 필요한 건강 관련 정책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 청소년 부모  | 101     | 9      | 15     | 1     | 9      | 64     | 3     |
|         | (100.0) | (8.9)  | (14.9) | (1.0) | (8.9)  | (63.4) | (3.0) |
| 일반 청년부모 | 154     | 24     | 20     | 9     | 28     | 72     | 1     |
|         | (100.0) | (15.6) | (13.5) | (4.1) | (18.5) | (47.8) | (0.5)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①건강검진 지원 정책, ②심리지원 서비스 정책, ③생활 체육시설 확대 정책, ④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 ⑤출산 지원 정책, ⑥기타

청소년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이 10점 만점 중 6.6점으로 나타났다.

표 IV-24. 모(응답자)의 삶의 만족도

| (단위: 명, 점) |     |     |     |      |
|------------|-----|-----|-----|------|
| 구 분        | 사례수 | 중위값 | 평균  | 표준편차 |
| 전체         | 101 | 6.0 | 6.6 | 2.4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청소년 부모의 임신출산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자녀 출산 당시 모의 연령은 21.6세, 부의 연령은 24.2세로 나타났다. 출산 관련 결정의 주된 이유에 대해서 출산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3.6%, 출산을 고민했으나 아이 아버지와 함께 키우라고 결심해서라는 응답이 30.7%, 임신중절을 고민했으나 다양한 이유로 포기했다는 응답이 15.9%로 나타났다.

표 IV-25. 첫 자녀 출산 당시 모(응답자)와 부의 연령

| (단위: 명, 세) |     |      |      |      |      |
|------------|-----|------|------|------|------|
| 구 분        | 사례수 | 모 연령 |      | 부 연령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전체         | 101 | 21.6 | 2.1  | 24.2 | 4.5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IV-26. 출산 결정 주된 이유

| (단위: 명, %) |         |        |        |       |       |       |       |       |       |
|------------|---------|--------|--------|-------|-------|-------|-------|-------|-------|
| 구 분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전체         | 101     | 44     | 31     | 9     | 5     | 2     | 2     | 5     | 3     |
|            | (100.0) | (43.6) | (30.7) | (8.9) | (5.0) | (2.0) | (2.0) | (5.0) | (3.0)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①나의 아이이므로 출산을 고민하지 않음, ②출산을 고민하였으나 아이 아버지와 함께 키우기로 약속해서 결심, ③임신중절을 고려했으나 결심을 할 수 없어서, ④임신중절 시기를 놓쳐서, ⑤임신중절하려 했으나 비용이 없어서, ⑥가족 등 주변의 강한 지지로, ⑦청소년부모에 대한 인식변화로 주변의 차별이나 편견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⑧기타

출산결정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아이 아버지가 44.6%, 도움

준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29.7%, 아이 아버지의 가족이 14.9%를 차지했다.

표 IV-27. 출산 결정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

| (단위: 명, %) |         |        |        |        |       |       |       |       |       |       |       |       |       |
|------------|---------|--------|--------|--------|-------|-------|-------|-------|-------|-------|-------|-------|-------|
| 구 분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 전체         | 101     | 30     | 45     | 15     | 0     | 2     | 1     | 0     | 0     | 4     | 1     | 0     | 3     |
|            | (100.0) | (29.7) | (44.6) | (14.9) | (0.0) | (2.0) | (1.0) | (0.0) | (0.0) | (4.0) | (1.0) | (0.0) | (3.0)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①도움 준 사람 없음, ②아이 아버지, ③나의 부모, ④나의 형제자매, ⑤아이 아버지의 가족, ⑥나의 친구, ⑦나의 학교 선생님, ⑧직장 동료 및 상사, ⑨시설 또는 기관 상담원, ⑩종교인, ⑪청소년부모인 친구나 지인, ⑫기타

첫 자녀의 임신 사실을 인지했던 시기는 응답자의 62.4%가 4주-8주 사이, 12주 이후가 13.9%, 4주 미만과 8주-12주가 각각 11.9%로 나타났다. 산전 진찰 경험 여부에서 “없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부모는 14.9%였다.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53.3%는 ‘산전진찰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라고 응답했고 20%는 ‘출산시까지 임신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라고 응답했다.

표 IV-28. 첫 자녀 임신사실 인지 시기

| (단위: 명, %) |         |               |        |        |        |
|------------|---------|---------------|--------|--------|--------|
| 구 분        | 사례수     | 임신 후<br>4주 미만 | 4주-8주  | 8주-12주 | 12주 이후 |
| 전체         | 101     | 12            | 63     | 12     | 14     |
|            | (100.0) | (11.9)        | (62.4) | (11.9) | (13.9)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IV-29. 첫 자녀 출산 전 임신기간 산전 진찰 경험 여부

| (단위: 명, %) |         |        |        |
|------------|---------|--------|--------|
| 구 분        | 사례수     | 있다     | 없다     |
| 전체         | 101     | 86     | 15     |
|            | (100.0) | (85.1) | (14.9)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IV-30. 첫 자녀 산전 진찰 받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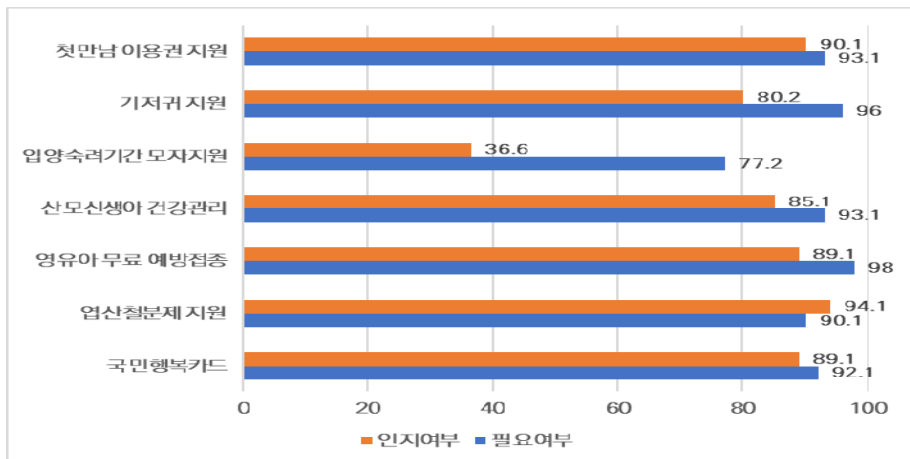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 전체  | 15      | 3      | 8      | 1     | 0     | 1     | 1     | 1     |
|     | (100.0) | (20.0) | (53.3) | (6.7) | (0.0) | (6.7) | (6.7) | (6.7)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①출산이 가까워질 때까지 임신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②산전진찰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③건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따로 진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④받으려 했지만 시간이나 상황상 여유가 없어서, ⑤받으려 했지만 비용이 부담되어서, ⑥병원에서 청소년부모인 것을 알 것 같아 불편해서, ⑦기타

임신출산 관련 지원의 필요성 및 인지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엽산철분제 지원(94.1%), 첫만남 이용권지원제도(90.1%)가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국민행복카드(89.1%)와 영유아무료예방접종(89.1%)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이 36.6%로 현저하게 인지도가 떨어지는 지원사업이었다. 임신출산관련 지원사업 별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이 98%로 가장 높았으며 기저귀지원(96%), 첫만남이용권 지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가 각각 93.1%로 높게 나타났다. 엽산철분제지원을 제외하고 모든 임신출산 지원사업들은 인지도에 비해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IV-3. 임신출산 관련 지원에 대한 인지 여부 및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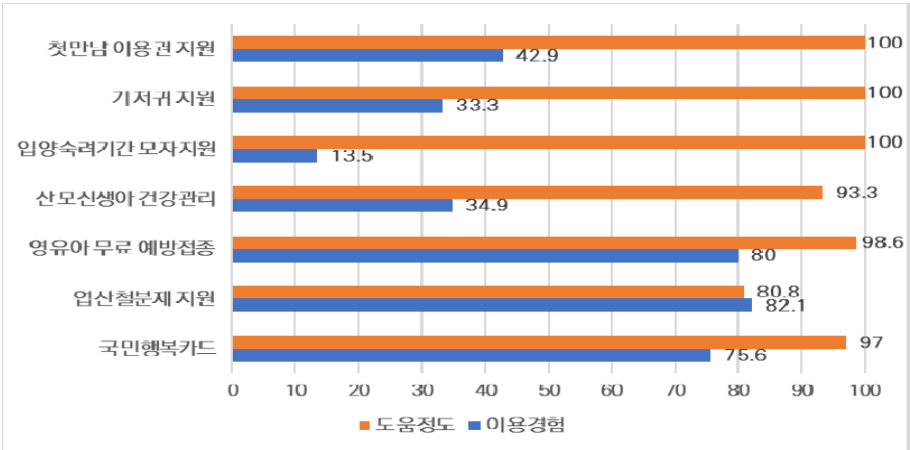
표 IV-31. 임신·출산 관련 지원에 대한 필요 여부 및 인지 여부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필요 여부        |              | 사례수            | 인지 여부        |              |
|-------------|----------------|--------------|--------------|----------------|--------------|--------------|
|             |                | 필요없음         | 필요함          |                | 모름           | 알고 있음        |
| 국민행복카드      | 101<br>(100.0) | 8<br>(7.9)   | 93<br>(92.1) | 101<br>(100.0) | 11<br>(10.9) | 90<br>(89.1) |
| 엽산철분제 지원    | 101<br>(100.0) | 10<br>(9.9)  | 91<br>(90.1) | 101<br>(100.0) | 6<br>(5.9)   | 95<br>(94.1) |
|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 101<br>(100.0) | 2<br>(2.0)   | 99<br>(98.0) | 101<br>(100.0) | 11<br>(10.9) | 90<br>(89.1)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101<br>(100.0) | 7<br>(6.9)   | 94<br>(93.1) | 101<br>(100.0) | 15<br>(14.9) | 86<br>(85.1) |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101<br>(100.0) | 23<br>(22.8) | 78<br>(77.2) | 101<br>(100.0) | 64<br>(63.4) | 37<br>(36.6) |
| 기저귀 지원      | 101<br>(100.0) | 4<br>(4.0)   | 97<br>(96.0) | 101<br>(100.0) | 20<br>(19.8) | 81<br>(80.2) |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101<br>(100.0) | 7<br>(6.9)   | 94<br>(93.1) | 101<br>(100.0) | 10<br>(9.9)  | 91<br>(90.1)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임신출산 관련 지원사업의 이용경험과 도움정도에 대한 조사에서 이용경험이 가장 높은 임신출산 지원사업(82.1%)이었고 다음으로 영유아 무료예방접종(80%), 국민행복카드(75.6%), 첫만남 이용권지원(42.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34.9%), 기저귀지원(3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움정도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는 엽산철분제 지원(80%)사업이었고 첫만남 이용권 지원, 기저귀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의 도움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유아 무료예방접종(98.6%), 국민행복카드(9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93.3%)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그림 IV-4. 임신·출산 관련 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표 IV-32. 임신·출산 관련 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이용 경험        |              | 사례수           | 도움 정도       |             |              |              |              |
|-------------|---------------|--------------|--------------|---------------|-------------|-------------|--------------|--------------|--------------|
|             |               | 경험 없음        | 경험 있음        |               | 전혀 도움 되지 않음 | 별로 도움 되지 않음 | 보통           | 다소 도움 됨      | 매우 도움 됨      |
| 국민행복카드      | 90<br>(100.0) | 22<br>(24.4) | 68<br>(75.6) | 68<br>(100.0) | 0<br>(0.0)  | 0<br>(0.0)  | 2<br>(2.9)   | 6<br>(8.8)   | 60<br>(88.2) |
| 임산철분제 지원    | 95<br>(100.0) | 17<br>(17.9) | 78<br>(82.1) | 78<br>(100.0) | 0<br>(0.0)  | 2<br>(2.6)  | 13<br>(16.7) | 17<br>(21.8) | 46<br>(59.0) |
|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 90<br>(100.0) | 18<br>(20.0) | 72<br>(80.0) | 72<br>(100.0) | 0<br>(0.0)  | 0<br>(0.0)  | 1<br>(1.4)   | 11<br>(15.3) | 60<br>(83.3)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86<br>(100.0) | 56<br>(65.1) | 30<br>(34.9) | 30<br>(100.0) | 2<br>(6.7)  | 0<br>(0.0)  | 0<br>(0.0)   | 3<br>(10.0)  | 25<br>(83.3) |
| 입양속려기간 모자지원 | 37<br>(100.0) | 32<br>(86.5) | 5<br>(13.5)  | 5<br>(10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5<br>(100.0) |

| 구 분        | 사례수           | 이용 경험        |              | 사례수           | 도움 정도       |             |            |            |              |
|------------|---------------|--------------|--------------|---------------|-------------|-------------|------------|------------|--------------|
|            |               | 경험 없음        | 경험 있음        |               | 전혀 도움 되지 않음 | 별로 도움 되지 않음 | 보통         | 다소 도움 됨    | 매우 도움 됨      |
| 기저귀 지원     | 81<br>(100.0) | 54<br>(66.7) | 27<br>(33.3) | 27<br>(100.0) | 0<br>(0.0)  | 0<br>(0.0)  | 0<br>(0.0) | 2<br>(7.4) | 25<br>(92.6) |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91<br>(100.0) | 52<br>(57.1) | 39<br>(42.9) | 39<br>(100.0) | 0<br>(0.0)  | 0<br>(0.0)  | 0<br>(0.0) | 1<br>(2.6) | 38<br>(97.4)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2) FGI 결과

### ① 건강상의 문제

FGI 결과는 청소년부모들이 임신, 출산기에 본인 혹은 자녀의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응급제왕 절개를 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고, 제왕절개 후 감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역아로 인한 수술, 산후 출혈을 겪은 사례도 있었으며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심각한 산후풍을 경험하는 청소년모도 있었다. 갑상선 등 기저질환이 악화되거나, 산후풍 등 새로운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병원비 걱정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 (신체건강) 작년도 수술하고. 쓸개 제거 수술하고 한 번은. 그리고 심장이 또 안 좋았어가지고...그냥 좀 저는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편인 것 같아요. 돈이 아까우니까. 그 피 같은 돈이...
- (산후풍) 저 산후풍이 와서...지금 정형외과에서 관절염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맞고 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너무 아프다. 이게 다 산후조리를 못 해서. 정말 아파요. 너무 아파요. 뼈가 시리단 말이 확 뭔 말인지 알았어요. 지금도 스테로이드를 하루에 2번 맞고 있고...

한편, 청소년부모들은 임신, 출산과정에서 경험했던 고립감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청소년모의 경우 산후우울증을 심하게 겪기도 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이러한 심라정서적 어려움과 고통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 (산후우울증) 애기도 못 보고 우울증도 오고 혼자 있고...그때 코로나라 왔다 갔다도 못 하고...그냥 3주 그렇게 병원에 있다가 애기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왜 산후우울증이라는 말이 있는 줄 알 것 같더라고요. 애기가 밤새 내내 우는데 진짜 그 순간 육하는 마음에 아, 진짜 애기 던져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더라고요.
- (혼자 고민하는 과정의 외로움, 고립감) 나 혼자만 겪고 있어서 더 외롭고 그리고 내가 외딴 섬에 혼자 뭔가 일을 겪는 기분. 그런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 (개인 욕구 충족 어려움) 하고 싶은 건 있고 애기를 낳고는 할 수 없는 게 많고 이걸 많으니까 당연한 건데 저희 나이 때 누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 안 가더라도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
- (코로나와 고립감의 심화) 저는 혼자 집에 있고 만날, 친구도 만날 수가 없는 게 코로나가 너무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주변의 시선) 저도 선입견이 있었나 봐요. 어린 부모에 대한. 그런데 그 시선이 너무 싫었어요. 또 남편 없이 혼자, (돌보니까) 어. 그런 받는 시선이 너무 스트레스여서 임신했을 때 집에서 정말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무시 안 당하려고.

상당수의 청소년부모는 심리·정서적 치료서비스를 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으나 돈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정신과적 진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 (정신과 진료) 솔직히 정신과는 가보고 싶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정신과도 솔직히 예약도 어렵고 이게 길잖아요, 상담 시간이.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 ② 임신출산 서비스 이용경험

경제적 어려움은 청소년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시되었다. 임신·출산 과정의 필요 지원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준비 비용 및 물품 지원, 임신·출산 기간동안 생활비를 약 80%가 1순위로 응답했다.

- (생활비 부담) 이제 병원비 자체는 어차피 바우처로 받고 뭐 저거 뭐야, 남편 저기, 군 월급 들어오는 걸로도 조금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생활비가 문제여가지고. 병원비는 딱히 막 어려운 건 없었어요.

생활비 뿐만 아니라 조산 등 응급한 임신출산의 위기상황에서 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병원비 등의 지원도 부족한 상황으로 지적되었다.

- 임신 27주 때 조산기가 있어 입원을 했는데 1번 맞는 데 50만 원짜리 약을 썼어야 됐어요. 애 낳기 전까지 입원을 계속했다 보니까 병원비가 400, 5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미성년자라서(혼인신고 못함) 남편 밑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밑에 들어가 있는데 중위 80% 이하 가구가 아니라서 고위험 산모 국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저희 힘으로 살겠다고 한 상태로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데 국가의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게 제일 난관이었던 것 같아요.
- 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뭐랄까, 재산 확인한다 이렇게 가족 등본 같은 거 떼가면 아, 시부모님 앞으로 집이 있어서 이게 안 된다고 할 때가 많았었어요.

응급한 임신출산의 위기상황에서 청소년부모들은 미혼모센터 등 민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통해 병원비부담을 해결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 (병원비부담) 그런데 이제 더 이게 미뤄지다 보니까 더 지체되고 해서 애가 위험하다고 대학병원 가라 해가지고 대학병원 갔는데 응급 제왕하고 그다음 미혼모센터 들어가가지고 해결 다 하고 왔어요. 그때는. 돈이 갑자기 없었으니까. 그거 말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 ③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청소년부모의 30% 이상이 임신·출산 당시 도움을 받은 기관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약 29%가 인터넷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바와 같이 현재 청소년부모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청소년부모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제도 이용을 위한 신청자 중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방식의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부모 지원제도의 인지도) 청소년 다른 엄마가 알려줬어요. 그것도 미혼모센터에 있는. 그럼 미혼모센터에 있으면 더 알기 쉽잖아요. 저희는 아예 몰랐어요.

동사무소에서 전화도 안 왔고. 전혀 몰랐어요. 아니, 이게 그래도 어쨌든 등본에 뜬 거 아니에요. 연락이 개인적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 (온라인 신청을 통한 신청의 편의성) 저는 신청을 양육, 이번에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 이거를 직접 가서가 아닌 인터넷으로, 청년내일 그거 계좌도, 저축 계좌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는데 우리는 왜 직접 가서 하나. 그리고 좀 내가 일을 해서 못 갈 때 남편이 대리인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도 직접 전화해가지고 서류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싸꾸를 당했어요.

#### ④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아이돌보미서비스 등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서비스의 개선 방안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지역별에 따른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에 있어서의 큰 편차를 조정하고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출산지원바우처 등 출산 지원금의 절대액이 출산시 필요한 의료비, 생활비 등 커지는 지출을 커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출산지원금 지원수준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청소년부모들이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교육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지원 중 개선 요구 사항은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산후도우미에 집중되어, 청소년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개선을 바라는 지원임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산후도우미의 경우 꼭 필요했음에도 신청자격에서 소득기준이 낮아서 사용하지 못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았는데 방문한 산후도우미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산후도우미의 활동방식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등 불만을 갖기도 하였다. 이에, 산후도우미 출산육아지원서비스의 경우 철저한 자격증 등 인력의 질과 서비스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 역시 신청 및 선정이 어렵다는 불만이 있었으며 이용자중심의 편의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어떤 돌보미가 배정될지 선택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나, 돌보미의 역량, 윤리의식, 헌신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도 하였다.

- (지역별 출산축하금 차등의 해소) 좀 똑같이 주면 좀 안 그럴겠는데 진짜 주소지를 옮기고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그래서 평등하게 주든가 아니면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축하금. 그리고 첫째부터.
- (첫만남 이용권) 저 첫만남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받고 싶어서. (웃음) 아, 진짜 센 거잖아요, 200만 원이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첫만남, 그냥 날기만 하니까 200만 원 나오는 건데. 그게 또 현금처럼 쓸 수 있고 쿠팡 뭐 이런 데 다 되더라고요.

- (아이 돌보미 서비스) 실질적으로는 힘들어요. 어떤 선생님이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어떻게 봐주실지도 모르고 신청하는 그런 방법 자체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고 신청을 이날에, 만약에 5일에 쓰고 싶으면 그전 달 5일에는 신청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한 달 앞서서 예산을 한 다음에 다 이거를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어렵고 꼬여 있다 보니까 정작 그거를 받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 (산후도우미) 그게 진짜 얼마 전에도 뉴스에 엄청 나오고 했는데 그게 계속 개선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막 진짜 자격증 없는 분들도 가끔가다 계시고 그러니까 그걸 개편을 해야 된다는...
- (출산지원금) 행복카드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었어요, 생각보다. 아마 100만 원이었나. 그랬어요. ... 이게 출산까지 솔직히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고 아기 낳을 때도 뭐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기 낳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입원비 뭐, 그런 수술비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냥 제 돈으로 했어요
- (임신, 출산 비용 추가 지원) 이런 것들도 너무 많고 이제 다 애기 출산용품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너무 많이 필요한데 바우처로는 너무 부족해요.

### (3) 소결

청소년 부모의 건강상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건강검진 수검여부, 의료시설 사용 현황, 응답자의 우울감 수준, 아동기 부정적인 삶의 경험, 삶의 만족도, 건강관련 정책수요, 출산경험과 임신출산 관련 지원정책과 사업 및 이용경험, 임신출산관련 지원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청소년 부모의 신체 건강에 대해 응답자의 52.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20.8%가 부정적으로 평가(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부모는 전체 응답자의 21.8%였다. 청소년 부모의 절반(49.5%)만 병원 진찰 후 치료를 받았으며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였다. 청소년부모의 우울수준은 평균 18.6점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위험군(변환 점수 16점 이상)으로 판단되는 청소년부모는 전체 응답자의 61.4%에 달했다. 또한 청소년부모는 아동·청소년기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했는데 가출경험(46.5%), 양육시설, 쉼터, 위탁가정 등 가정외 보호경험(20.8%)이였다. 또한 가정평편의 어려움(61.4%), 가까운 사람의 상실경험(47.5%), 괴롭힘 또는 따돌림 경험(47.5%)으로

나타났다.

건강 관련 정책 중 가장 먼저 확대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 청소년부모의 63.4%가 출산지원정책을 선택했고, 14.9%가 심리지원서비스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임신출산 관련 지원사업의 이용경험이 가장 높은 사업은 임신출산 지원사업(82.1%)이었고 첫만남 이용권 지원, 기저귀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의 도움정도가 가장 높았다.

FGI 분석결과는 신체 및 정신건강상의 문제 및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에 청소년부모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청소년부모들은 다양한 출산관련 질병을 경험했으며 임신출산과정에서 고립과 사회적 편견, 이와 동반한 산후우울증 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은 더욱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임신출산과정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부모들은 세대의 분리가 어려운 미성년의 연령상의 한계로 인해 임신출산비용 지원을 받는 데 제약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병원비, 생활비의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부모를 위한 임신출산지원제도의 점검과 제도적인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온라인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인 접수와 신청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이러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큰 편차가 존재하는 출산축하금의 조정 및 평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만족도가 높은 임신출산지원제도인 첫만남이용권 및 행복카드 등 출산지원금제도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었다. 산후도우미는 서비스제공자의 자격 및 질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제도사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 4) 취업 및 경제 상황

청소년부모의 취업 및 경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맞벌이 여부, 근로여부, 고용형태, 근로시간유형, 근로소득·가족생활비, 부모님, 친지로부터의 지원여부, 구직활동여부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 (1)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상 연령 특성을 감안하여, 부모 모두 돈을 벌지 않는 경우를 비해당 항목으로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맞벌이 여부의 분석 결과,

청소년부모의 응답자와 배우자 모두 돈을 벌고 있지 않는 사례는 전체 응답자의 12.9%로 나타났다. 청소년부모 중 외별이는 78.2%였으며 일반청년부모의 65.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V-33. 맞벌이 여부

| (단위: 명, %) |         |        |        |        |
|------------|---------|--------|--------|--------|
| 구 분        | 사례수     | 맞벌이    | 외별이    | 비해당    |
| 청소년부모      | 101     | 9      | 79     | 13     |
|            | (100.0) | (8.9)  | (78.2) | (12.9) |
| 일반 청년부모    | 154     | 54     | 100    |        |
|            | (100.0) | (34.9) | (65.1) |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부모의 연령 특성을 감안하여 보기 항목에 비해당(응답자와 배우자 모두 돈을 벌고 있지 않음)을 추가하였음.

지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취업상태)에 대해 조사결과, 청소년부모의 70.3%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22.8%가 일을 했다고 응답했다.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전반적으로 일을 한 사람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61.8%가 일을 하지 않았고 35.1%가 일을 했다고 응답했다.

표 IV-34. 지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 (단위: 명, %) |         |        |            |           |
|------------|---------|--------|------------|-----------|
| 구 분        | 사례수     | 일을 하였음 | 휴가 및 일시 휴직 | 일을 하지 않았음 |
| 청소년부모      | 101     | 23     | 7          | 71        |
|            | (100.0) | (22.8) | (6.9)      | (70.3)    |
| 일반 청년부모    | 154     | 55     | 5          | 94        |
|            | (100.0) | (35.1) | (3.1)      | (61.8)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지난 주에 일을 했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상태’인 응답자의 고용 형태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부모 중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53.3%)이었다.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정규직이 69.2%, 13.8%가 비정규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부모와 청년부모 사이 고용형태 안정성의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났다.

표 IV-35. 현재 일자리의 고용 형태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정규직          | 비정규직         | 고용원 있는<br>자영업자 | 고용원 없는<br>자영업자 | 무급가족<br>종사자 |
|---------|---------------|--------------|--------------|----------------|----------------|-------------|
| 청소년부모   | 30<br>(100.0) | 13<br>(43.3) | 16<br>(53.3) | 0<br>(0.0)     | 1<br>(3.3)     | 0<br>(0.0)  |
| 일반 청년부모 | 60<br>(100.0) | 41<br>(69.2) | 9<br>(13.8)  | 0<br>(0.0)     | 6<br>(8.2)     | 4<br>(8.9)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표 IV-34>에서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 휴직’을 선택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또한 근로시간 유형에서도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청소년부모의 46.7%가 전일제 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거의 2배에 달하는 80.8%가 전일제 근로를 하였다. 전일 근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소년부모의 62.5%가 ‘육아 또는 자녀교육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12.5%가 ‘학력, 경력 부족으로 전일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했다.

표 IV-36. 근로시간 유형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전일제 근로       | 시간제 근로       |
|---------|---------------|--------------|--------------|
| 청소년부모   | 30<br>(100.0) | 14<br>(46.7) | 16<br>(53.3) |
| 일반 청년부모 | 60<br>(100.0) | 50<br>(80.8) | 10<br>(19.2)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표 IV-34>에서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 휴직'을 선택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표 IV-37. 전일 근로 하지 않는 이유

| (단위: 명, %) |         |       |        |       |       |       |       |       |        |        |
|------------|---------|-------|--------|-------|-------|-------|-------|-------|--------|--------|
| 구 분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전체         | 16      | 0     | 10     | 1     | 0     | 0     | 0     | 1     | 2      | 2      |
|            | (100.0) | (0.0) | (62.5) | (6.3) | (0.0) | (0.0) | (0.0) | (6.3) | (12.5) | (12.5)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①집안일이 많아서, ②육아 또는 자녀교육 때문에, ③건강상 이유 때문에, ④여가를 즐기 위해, ⑤학업 병행을 위해, ⑥다른 일자리와 병행하기 위해, ⑦직업훈련을 병행하기 위해, ⑧학력, 경력 부족으로 전일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⑨기타

응답자의 근로소득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122.4만원이었고, 지난 달 기준으로 월급과 기타 수입까지 포함해도 평균 161.3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일반청년 부모의 월평균 소득(198.6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표 IV-38. 근로소득

| (단위: 만 원) |     |              |       |                       |      |
|-----------|-----|--------------|-------|-----------------------|------|
| 구 분       | 사례수 | 근로 소득(세후 월급) |       | 지난 달 기준 총 소득(월급+기타수입)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청소년부모     | 30  | 122.4        | 89.3  | 161.3                 | 96.4 |
| 일반 청년부모   | 60  | 198.6        | 104.6 |                       |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월 평균 소득 이외에 지난 달 기준으로 월급과 기타 수입을 모두 포함한 총 소득을 응답하도록 하였음.  
3) <표 IV-34>에서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 휴직'을 선택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지난 4주 내 구직 활동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청소년 부모의 74.6%가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일반 청년부모의 91.7%가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직장을 구했지만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는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나타났다.

표 IV-39. 지난 4주 내 구직 활동 여부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직장을 구해보았다              |                        |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
|---------|---------------|------------------------|------------------------|--------------|
|         |               | 직장이 구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직장이 구해졌어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
| 청소년부모   | 71<br>(100.0) | 9<br>(12.7)            | 9<br>(12.7)            | 53<br>(74.6) |
| 일반 청년부모 | 94<br>(100.0) | 4<br>(4.2)             | 4<br>(4.1)             | 86<br>(91.7)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표 IV-34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을 선택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표 IV-40.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 청소년부모   | 9<br>(100.0) | 9<br>(10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 일반 청년부모 | 4<br>(100.0) | 3<br>(72.6)  | 1<br>(27.4)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①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 ②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③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④입시 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⑤진학 준비 중이어서, ⑥취업 준비 중이어서, ⑦기타  
3) <표 IV-34>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을 선택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청소년부모의 한 달 간의 가족생활비 평균은 207.8만원이었고, 청소년 부모의 15.8%가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 가족 한 달 생활비 및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 받는 비율

(단위: 만 원, %)

| 구 분 | 사례수   | 가족 한 달 생활비(만 원) |       |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 받는 비율 |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전체  | (101) | 207.8           | 124.4 | 15.8                  | 25.0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또한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채무가 있는지 채무여부 및 채무발생이유와 관련하여 청소년 부모의 41.6%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채무액은 2756.8만원이었다. 채무 발생 이유는 전월세 자금 대출 등 주거비 마련인 경우가 4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로 응답했다(38.1%).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에는 채무 발생 이유가 주거비 마련이 79.7%로 높았으며 생활비 마련은 7.9%로 낮았다.

표 IV-42. 채무 유무 및 평균 채무액

(단위: 명, %, 만원)

| 구 분     | 사례수            | 채무 있음        | 채무 없음         | 평균 채무액<br>(표준편차)     |
|---------|----------------|--------------|---------------|----------------------|
| 청소년부모   | 101<br>(100.0) | 42<br>(41.6) | 59<br>(58.4)  | 2,756.8<br>(4,169.2) |
| 일반 청년부모 | 154<br>(100.0) | 47<br>(30.0) | 107<br>(70.0) |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는 채무가 있는 경우 평균 채무액을 응답하도록 하였음.

표 IV-43. 채무 발생 이유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학자금<br>마련   | 주거비<br>마련    | 생활비<br>마련    | 창업 자금<br>마련 | 임신 및<br>출산 비용 마련 | 기타          |
|---------|---------------|-------------|--------------|--------------|-------------|------------------|-------------|
| 청소년부모   | 42<br>(100.0) | 2<br>(4.8)  | 17<br>(40.5) | 16<br>(38.1) | 0<br>(0.0)  | 2<br>(4.8)       | 5<br>(11.9) |
| 일반 청년부모 | 47<br>(100.0) | 7<br>(11.0) | 35<br>(79.7) | 4<br>(7.9)   | 1<br>(1.4)  |                  | 0<br>(0.0)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는 채무 발생 이유의 보기 항목에 '임신 및 출산 비용 마련'을 추가하였음.  
3) <표 IV-42>에서 '채무 있음'을 선택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청소년부모의 물질적 박탈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물질적 박탈상황은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등의 총 9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물질적 박탈은 전체 문항 중 최소 3개의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4개 이상일 경우 물질적 박탈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부모 중 41.6%가 물질적 박탈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29.7%가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년부모의 물질적 박탈상태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청년부모의 16.8%가 물질적 박탈 상태로 나타났으며, 5.1%가 심각한 물질적 박탈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부모와 비교할 때 청소년 부모의 물질적 박탈경험은 2배 이상 높았으며 심각한 박탈경험은 6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물질적 박탈 항목별 경험을 분석해보면,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가 47.5%,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가 45.5%,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가 31.7%로 나타났다.

표 IV-44. 물질적 박탈 수준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1~2개          | 3개           | 4개 이상        |
|---------|----------------|---------------|--------------|--------------|
| 청소년부모   | 101<br>(100.0) | 59<br>(58.4)  | 12<br>(11.9) | 30<br>(29.7) |
| 일반 청년부모 | 154<br>(100.0) | 129<br>(83.2) | 17<br>(11.7) | 8<br>(5.1)   |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물질적 박탈은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음. 응답자가 물질적 박탈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3개부터이며, 4개 이상일 경우 물질적 박탈이 심각함을 의미함.

표 IV-45. 물질적 박탈 항목

| 구 분                                            | 사례수            | 예            | 아니오           | 잘 모름       |
|------------------------------------------------|----------------|--------------|---------------|------------|
|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101<br>(100.0) | 32<br>(31.7) | 60<br>(59.4)  | 9<br>(8.9) |
|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 101<br>(100.0) | 7<br>(6.9)   | 87<br>(86.1)  | 7<br>(6.9) |
|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101<br>(100.0) | 46<br>(45.5) | 55<br>(54.5)  | 0<br>(0.0) |
|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 101<br>(100.0) | 30<br>(29.7) | 71<br>(70.3)  | 0<br>(0.0) |
|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 101<br>(100.0) | 57<br>(56.4) | 44<br>(43.6)  | 0<br>(0.0) |
| 6) TV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 101<br>(100.0) | 23<br>(22.8) | 78<br>(77.2)  | 0<br>(0.0) |
| 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 101<br>(100.0) | 3<br>(3.0)   | 98<br>(97.0)  | 0<br>(0.0) |
| 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 101<br>(100.0) | 48<br>(47.5) | 53<br>(52.5)  | 0<br>(0.0) |
|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또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 101<br>(100.0) | 1<br>(1.0)   | 100<br>(99.0) | 0<br>(0.0)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2) FGI 결과

### ① 취업 및 경제적 상황

청소년부모들의 경제 상황은 취업 여부, 양가 부모의 금전적 지원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부모 중 1인 이상이 취업을 통해 일상 지출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나 부모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고, 저축을 하기도 하였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첫만남 이용권, 실업급여, 긴급생계비 지원, 아동수당 등 각종 지원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이들은 대체로 가용 예산에 맞춰 지출을 최소화하거나, 부채를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 7월달 초에 남편이 일을 했었다가, 파트타임으로 일했었다가 7월 말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이번에 또 저거 뭐야, 첫만남인가? 첫만남. 그것도 있었고 저 근로 수당도 있었고. 근로 수당 양쪽에서 나오는 것도 있었고 이제 뭐 또 저거, 받은 거 여러 가지 있어서 나름 이렇게 알뜰하게 쓰고 그러고 이제 저는 3월달까지는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았었어요. 2번. 연장, 1번 연장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그냥 거의 못 먹고 안 입고 하다시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살아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는 딱.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벌어나가야죠.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니까.
- (부채를 통한 생활비충당) 남편은 통신이고 저는 이제 은행이랑 통신 해가지고 천만 원 넘, 한 1,500만원 정도 되는.
- 그냥 이제 뭐 생활비 이만큼 들어오면 이만큼 더 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다 무시하고 이만큼 그냥 최소 월세 내고 공과금 낼 것만 그렇게만 생활하고.

생계 및 경제적 어려움을 청소년 부모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로부터의 지원여부는 청소년부모들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었다. 일부의 청소년 부모는 양가 또는 한쪽 부모님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였으며, 임신 단계부터 양가 부모님과 단절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 저는 어머니. 임신 기간 중에는 제일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이고. 솔직히 저희도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어요. 남편이 빚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조금 조금씩 일하면서 갚아나가고 그 와중에도 이제 남편이 일하는 와중에 갑자기 통장이 압류가 돼버린 상황에서도 어머니께서 그거를 풀어주셨고 그리고 남편이 일자리가 없어서

아등바등하고 있을 때 남편이 엄마, 저희 어머니 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 있게 해주셔서

- 외할머니가 그나마. 해서 이번에 조금, 조금 더 쾌적한 집으로 이사할 때, 그래봤자. 그때 보증금을 좀 더 보태주셨고
- 요청을 하면 해주긴 하는데 그냥 죄송해서 잘 안 하는 편이고 오빠가 매주, 매번 받긴 해요, 매달. 이렇게 300만 원씩은. 그런데 그걸 자기 이제 빚 갚고 이렇게 하는 거고.

한편,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일정 정도 지원을 받는 경우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생활상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야기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기도 하였다.

- 아무래도 시부모님. 처음부터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집이, 집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갈 곳도 없고 하니까. 저는 친가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거든요.
- 저는 시댁에서 30만 원 해줬다가 10만 원 해줬다가 더 이상 못 주겠다 해가지고 남편이랑 싸웠거든요.

주거, 경제적·물질적 측면에서의 자립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은 취업, 경제활동에서 막막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상당수의 청소년엄마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일을 그만두는 경험을 하였고, 낮은 교육수준과 경력단절로 인하여 향후 노동시장에서 재취업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고민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 (부모님이) 이렇게 집 제공해주고 하시는데 이제 그전에 이제 집을 구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집을 구할 때 좀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랑 좀 트러블도 있었고 이제 엄마도 집에 지금 사니까 너네 나갈 때는 나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는 뭐 좀 저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 (경력단절) 애기가 고학년 되면 학원으로 돌리면 된다 치면 그때는 이미 내 경력 단절이 10년이예요. 어?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 애기 초등학교 보내고 나면 뭐 33, 34라고 하는데도 이미 그때는 늦어, 늦었으니까. 그리고 애기 엄마는 잘 안 뽑아주고. (웃음)

### ③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지원 경험과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용했던 정부의 지원제도로는 긴급생계비 지원이 있었다.

- 긴급 생계비 지원만 받았어요. ... 저희는 128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언제부터야. 8월, 8월부터인가? 7월? 아, 좀 됐어요. 작년 한 3월부터인가 4월부터인가 받았던 거였어요. 3개월 했고 그다음에 10월, 10월부터 다시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3, 이번 연도 3월까지 받았거든요. 6개월, 총 6개월 받았어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공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자산 자격 기준이 까다롭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 (수급)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 이만큼 서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족들 것도 다 써서 봐야 한다, 재산을. 했을 때부터 안 된 거예요. 저는 아예 신청서도 안 썼어요. 그게 안 된다 해서.
- 그러니까 등본상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저 이렇게 있어, 저희 이렇게 있어 가지고 어쨌든 써야 되는 거예요.
- 저희도, 이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서 소득 분위가 같이 다 잡혀가지고 그게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남편 들어오고 저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아빠 이제, 랑 엄마 소득 밑으로 이게 다 잡혀버려서. 그래서 뭐 지금 청약 같은 것도 안 되고 그냥, 네. 아예 그거,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런 서비스 받는 게 그냥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 이게 진짜 완전히 실소득으로만 따져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우리는 집도 있는 거고 차도 있는 거고 이렇게 다 그냥 통틀어서 잡히니까. 그러니까 부부만 보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거를 보니까.

이처럼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부모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민간기간을 통해, 혹은 결국 가족들의 지지와 경제적 도움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께서 그 돈을 빌려주셨고.....제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 아, 그럼 어쩔 수 없겠다 하고 미혼모지원센터를 알아봤어요.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이제 인연이 되어 계속 쪽 받고 있어요.

### (3) 소결

청소년부모의 취업 및 경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맞벌이 여부, 근로여부, 고용형태, 근로시간유형, 근로소득·가족생활비, 부모님, 친지로부터의 지원여부, 구직활동여부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부모의 78.2%가 외벌이었으며 12.9%가 무벌이 또는 비해당이었다. 응답자의 고용형태는 청소년부모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 53.3%가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고용의 안정성이 현저하게 낮았다. 청소년 부모가 전일근로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부모의 41.6%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채무액은 2756.8만원이었으며 채무 발생 이유는 전월세 자금 대출 등 주거비 마련, 생활비 마련이었다. 청소년부모의 물질적 박탈 수준의 분석결과는 청소년부모 중 41.6%가 물질적 박탈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29.7%가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소년부모가 처해있는 경제적 어려움 및 공공지원제도의 경험에 대한 FGI분석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행 지원제도에 의한 지원의 한계와 어려움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청소년부모는 영유아양육과 돌봄의 상황,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교육수준과 여건 속에서 외벌이 또는 무벌이 상태였으나 독립적인 가구구성의 법적 제약에 따라 부모세대의 구성원으로 가구구성이 되어 있어 실질적인 수급자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경제적, 물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공적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선정 및 지원자격요건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부모지원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 5) 교육

청소년 부모는 출산 및 육아 등 부모의 역할과 청소년기의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특히, 학업 수행은 청소년기 주요 과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청소년 부모의 학업 진행 및 중단 상태와 관련 이유 등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이 소절에서는 청소년 부모의 교육과 관련된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 (1)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부모 중 46.5%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제 대학교 중퇴 또는 휴학 중이 14.9%, 고등학교 중퇴나 휴학 중인 비율은 9.9%, 2-3년제 대학을 졸업한 비율은 6.9%였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재학 중, 4년제 대학교 중퇴 및 휴학이 각각 5.0%로 나타났다.

표 IV-46. 최종 학업 상태

| (단위: 명, %) |         |       |        |       |       |       |       |        |
|------------|---------|-------|--------|-------|-------|-------|-------|--------|
| 구 분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전체         | 101     | 0     | 0      | 2     | 5     | 1     | 10    | 47     |
|            | (100.0) | (0.0) | (0.0)  | (2.0) | (5.0) | (1.0) | (9.9) | (46.5) |
| 구 분        | 사례수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 전체         | 101     | 5     | 15     | 7     | 2     | 5     | 2     | 0      |
|            | (100.0) | (5.0) | (14.9) | (6.9) | (2.0) | (5.0) | (2.0) | (0.0)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①초등학교 졸업, ②중학교 재학중, ③중학교 중퇴/휴학, ④중학교 졸업, ⑤고등학교 재학중, ⑥고등학교 중퇴/휴학, ⑦고등학교 졸업, ⑧대학교 2-3년제 재학중, ⑨대학교 2-3년제 중퇴/휴학, ⑩대학교 2-3년제 졸업, ⑪대학교 4년제 재학중, ⑫대학교 4년제 중퇴/휴학, ⑬대학교 4년제 졸업, ⑭대학원 이상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가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자녀의 임신 및 출산 또는 양육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20.3%,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가 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7. 대학 진학하지 않은 이유

| (단위: 명, %) |         |       |        |       |       |        |       |        |       |
|------------|---------|-------|--------|-------|-------|--------|-------|--------|-------|
| 구 분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전체         | 64      | 4     | 26     | 3     | 1     | 10     | 2     | 13     | 5     |
|            | (100.0) | (6.3) | (40.6) | (4.7) | (1.6) | (15.6) | (3.1) | (20.3) | (7.8)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①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②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③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④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⑤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⑥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⑦자녀의 임신/출산 또는 양육 때문에, ⑧기타

학업 과정 중 중퇴를 했거나 휴학 중인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이유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가 21.9%, ‘임신 및 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와 ‘생활비(양육비)를 벌기 위해’가 각각 12.5%로 나타났다. 학업 중단 이유의 매우 다양하여 ‘기타’ 응답이 43.8%로 많았는데, 기타 의견으로는 ‘임신 상태라 학업 수행이 불가능해서’, ‘적성이나 학과가 맞지 않아서’, ‘일하기 위해’ 등이 있었다. 청소년 부모의 학업 중단 이유는 기타 의견 비율이 가장 높아 그 이유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례 수가 많지 않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IV-48. 학업 중단 이유

| (단위: 명, %) |         |        |        |       |       |        |       |        |
|------------|---------|--------|--------|-------|-------|--------|-------|--------|
| 구 분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전체         | 32      | 7      | 4      | 1     | 0     | 4      | 2     | 14     |
|            | (100.0) | (21.9) | (12.5) | (3.1) | (0.0) | (12.5) | (6.3) | (43.8)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①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②임신 및 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③주변의 차별과 편견을 견디기 어려워서, ④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이나 가족의 권유 때문에, ⑤생활비(양육비)를 벌기 위해, ⑥학교의 징계와 강요 때문에, ⑦기타

청소년 부모 중 현재 학업 중인 경우를 대상으로 학업 지속에서의 어려움을 알아보았다.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학업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음’이었는데 소수의 사례 수로 인해 통계적인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표 IV-49. 학업 지속에 가장 큰 어려움(1순위)

| (단위: 명, %) |         |        |        |        |       |       |        |       |        |
|------------|---------|--------|--------|--------|-------|-------|--------|-------|--------|
| 구 분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전체         | 8       | 3      | 1      | 1      | 0     | 0     | 1      | 0     | 2      |
|            | (100.0) | (37.5) | (12.5) | (12.5) | (0.0) | (0.0) | (12.5) | (0.0) | (25.0)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①학업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음, ②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함, ③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 ④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움, ⑤스스로 느끼는 또래와의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문제, ⑥청소년부모의 학업 지속에 대한 주변의 편견과 차별적인 시선, ⑦배우는 내용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⑧기타

자립을 위해 현재의 학력보다 더 높은 학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5.6%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고, 매우 그렇다는 22.8%로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과 그렇다는 응답은 각각 20.8%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이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56.4%로 나타났다.

표 IV-50. 현재 학력보다 더 높은 학력 필요성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101<br>(100.0) | 21<br>(20.8) | 36<br>(35.6) | 21<br>(20.8) | 23<br>(22.8)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자립을 위해 현재보다 더 높은 학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청소년 부모는 자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학력이 전문대 졸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50.0%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5.0%, 고등학교 졸업은 22.7% 등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립을 위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75.0%임을 알 수 있다.

표 IV-51. 자립을 위해 필요한 학력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전문대 졸업       | 대졸 이상        |
|-----|---------------|------------|--------------|--------------|--------------|
| 전체  | 44<br>(100.0) | 1<br>(2.3) | 10<br>(22.7) | 22<br>(50.0) | 11<br>(25.0)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갖추기 위해 받고 싶은 교육 유형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입학/편입,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등 원격교육기관에의 진학이 38.6%로 가장 높았고, 정규 학교교육이라는 응답도 31.8%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교육이나 독학 및 홈스쿨링 후 검정고시를 선택한 비율은 22.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70%가 정규 교육 기관에서의 학업을 원하며, 육아와 병행 가능한 원격 교육 방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선호를 엿볼 수 있다.

표 IV-52. 학력 취득을 위해 가장 받고 싶은 교육 유형

| (단위: 명, %) |               |              |            |             |              |            |
|------------|---------------|--------------|------------|-------------|--------------|------------|
| 구 분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전체         | 44<br>(100.0) | 14<br>(31.8) | 3<br>(6.8) | 7<br>(15.9) | 17<br>(38.6) | 3<br>(6.8)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①정규 학교교육(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 ②대안학교 교육 후 검정고시, ③독학이나 홈스쿨 후 검정고시, ④원격교육기관(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입학/편입,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등) 진학, ⑤기타

(2) FGI 결과

실태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 부모는 현재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고등학교를 마쳤거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중단 및 휴학한 경우가 더욱 많았다. 임신 및 출산 그리고 양육 과정까지 당장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인해 현재는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지만, 학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경우를 볼 수 있어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학 진학 등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

- 원래는 이제 16살 때 졸업하자마자 바로 검정고시 준비를 해서 제가 그냥 검정고시를 땀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대학 준비를 하면서 이제 패션 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애기가 생기고. (웃음) 그런데 임신한 기간 동안 태교한다 하고도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이런 건 따놔가지고. (목표 대학은) 저 홍익대.
- 국비로도 충분하긴 한데요, 약간의 좀 더 지원을 딱딱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대학 지원.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장학금을 주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 소득이 있거나 하면 그러니까 지원을 대학 같은 거는 저희 사비로 해야 되잖아요.

- 이게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저도 간호대에 들어가지고 합격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다시 또.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고.

청소년 부모는 앞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계획보다는 취업을 하려는 계획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였다. 아이를 기르면서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학보다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학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사실은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 등을 위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 학업, 학업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업은 그냥 제가 놀기 위한 수단이고. (웃음) 학업에는 절대.
- 그냥 저는 약간 배울 시간에 일을 더 하자라는 마인드라 그냥 뭔가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 일이 끝나자마자, 이 학원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취업해서 일만 주구장창 하러.
- 아, 지금도 사이버 대학 가는 건 싫은데, 너무 싫은데, 해야 되니까. 이게 사이버 대학을 나오면 국제 면허증이 나와가지고 삼을 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싫어요, 대학 가는 건.
- 자격증 한번 따가지고 그런 거 취업하고 싶어서 좀 알아보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내일배움 그것도 한번 하고...

이렇게 청소년 부모가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 등을 하고자 할 때 자녀 양육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청소년 부모의 자녀가 아직 어린 경우가 많아 학업 및 훈련을 병행하는 경우는 돌봄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진학이나 취업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고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심리적 지원 통해 청소년 부모의 시도가 포기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 집에 또 아침 일찍 학원 가서 하고 저녁 늦게 이렇게 들어오면 애기를 데리고 또 제가, 애기를 하원시키고 데리고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밥도 차려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하니까

- 항상 시작은 뭘 해요. 그런데 끝맺음을 잘 못해서 지금 이번 달에 간호조무사 실습이 끝나거든요, 드디어. 3월달에 시험 치고 이미. 이제 이것만 하면 바로 자격증 나오는데 여기를, 여기가 복지가 그나마 급여도 잘 쳐줘서 여기를 계속 다닐까? 지금 하고 있는 한의원에 계속 다닐까? 아니면 원래 저도 피부과,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이런 데를 가고 싶어가지고 주사, 수술방 이런 데 가고 싶어가지고 딱,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는 피부, 피부 자격증 3번 떨어지고 지금 그만두고. 아니면 조금 쉬면서 피부를 다시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 내 나이에 친구들은, 뭐 고등학교 때도 다 똑같은 고민하잖아요. 대학교 어떻게 하지, 수능 어떡하지. 대학교 때도 나 토익 어떡하지, 취업 어떡하지.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 고민이 되게 큰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나이에 혼자 내가 겪는 이런 고민이 너무 커 보여요. 나 혼자만 겪고 있어서 더 외롭고 그리고 내가 외딴 섬에 혼자 뭔가 일을 겪는 기분. 그런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 애기 낳기 전 마지막 직업이 그거였어요. 성형외과 코디를 하다가 애기가 생겨서 배가 부르니까 할을 못 신어서 그만두고. 그렇게 해서 비는 지금 3년, 4년 기간 동안 둘째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대학교, 사이버 대학 나오고 자격증 따고 애기 어린이집 보내면 이제 제대로 전문가한테 배우고 바로 샵 차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 (3) 소결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기의 과업인 학업과 임신·출산 및 양육 과정의 병행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학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 부모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많았는데, 임신·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진학 포기보다 가정 형편 상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 부모가 임신·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한 이유는 임신·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가 나타났는데, 청소년 부모마다 다른 상황으로 인해 그 이유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력보다 더 높은 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부모는 자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상에 몰려있어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청소년 부모 중에는 앞으로 학업을 더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당장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생각한 학력을 얻기 위한 학업 과정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다. 취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지만, 육아와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시도하지 못하거나 희망하는 학력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청소년 부모의 학업 관련 상태에서 드러난 특징이다.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청소년 부모에 대해 학업과 양육 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부모가 원하는 교육 유형이 검정고시보다는 교육을 받되 온라인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양육이 병행 가능한 방식인 점이었다. 즉, 청소년 부모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현실을 반영한 교육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부모가 희망하는 학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실패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정서적 지원 등도 필요해 보인다.

6) 자녀 양육

아동 양육 과정에서는 대다수의 부모가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중 청소년 부모는 준비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하고 자녀 양육을 경험할 가능성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았다.

(1)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부모가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 85.1%가 직접 돌봄에 대해 응답하였다. 그다음 기관 이용이 36.6%,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15.8% 등으로 나타나 청소년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3. 미취학 자녀 돌봄 방식

| (단위: 명, %) |         |        |        |        |       |       |       |       |       |
|------------|---------|--------|--------|--------|-------|-------|-------|-------|-------|
| 구 분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전체         | 101     | 86     | 37     | 16     | 0     | 4     | 0     | 0     | 7     |
|            | (100.0) | (85.1) | (36.6) | (15.8) | (0.0) | (4.0) | (0.0) | (0.0) | (6.9)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①내가 직접 돌봄, ②기관 이용, ③조부모 돌봄, ④나의 형제자매 및 친인척 돌봄, ⑤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⑥민간 양육도우미 이용, ⑦사설 학원 이용, ⑧기타

청소년 부모의 자녀 중 미취학 아동이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4. 일주일 중 미취학 자녀 혼자 있는 기간

| (단위: 명, %) |                |              |              |              |               |
|------------|----------------|--------------|--------------|--------------|---------------|
| 구 분        | 사례수            | 전혀 없음        | 1주일에<br>1~2일 | 1주일에<br>3~4일 | 1주일에<br>5일 이상 |
| 전체         | 101<br>(100.0) | 98<br>(97.0) | 1<br>(1.0)   | 0<br>(0.0)   | 2<br>(2.0)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소년 부모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할 때 힘든 점을 살펴보면, ‘아이 양육비나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은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가 17.0%, ‘아이를 돌보거나 챙길 시간이 부족하다’가 12.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히 어려움 점이 없다’는 응답도 12.0%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은 청소년 부모라는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이를 양육하는 다수의 부모가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청소년 부모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5. 미취학 자녀 양육 시 힘든 점(1순위)

| (단위: 명, %) |                |              |              |              |            |            |            |            |              |
|------------|----------------|--------------|--------------|--------------|------------|------------|------------|------------|--------------|
| 구 분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전체         | 100<br>(100.0) | 47<br>(47.0) | 12<br>(12.0) | 17<br>(17.0) | 9<br>(9.0) | 1<br>(1.0) | 0<br>(0.0) | 2<br>(2.0) | 12<br>(12.0)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①아이 양육비나 교육비가 부담스럽다, ②아이를 돌보거나 챙길 시간이 부족하다, ③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 ④아이 생활태도 지도나 훈육이 어렵다, ⑤어린 부모의 자녀라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차별·따돌림 받거나 적응을 못해 어렵다, ⑥아이에게 가족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 ⑦기타, ⑧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아동 돌봄과 관련된 여러 지원의 필요성과 인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청소년 부모는

아동수당, 아동양육비,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드림스타트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모두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보육료 지원과 같은 현금성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96%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동 돌봄 관련 지원에 대한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아동수당에 대한 인지가 90.1%로 가장 높았고, 영아수당이 81.2%,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이 각각 71.3%로 그다음 높게 나타났다. 아동양육비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각각 59.4%, 54.5%로 과반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학비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드림스타트에 대해서는 절반 이하만 인지하고 있으며, 그중 공동육아나눔터나 드림스타트의 인지율은 30% 미만에 그쳤다.

표 IV-56.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지원 필요 여부 및 인지 여부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필요 여부        |               | 사례수            | 인지 여부        |              |
|---------|----------------|--------------|---------------|----------------|--------------|--------------|
|         |                | 필요없음         | 필요함           |                | 모름           | 알고 있음        |
| 아동수당    | 101<br>(100.0) | 1<br>(1.0)   | 100<br>(99.0) | 101<br>(100.0) | 10<br>(9.9)  | 91<br>(90.1) |
| 아동양육비   | 101<br>(100.0) | 20<br>(19.8) | 81<br>(80.2)  | 101<br>(100.0) | 41<br>(40.6) | 60<br>(59.4) |
| 가정양육수당  | 101<br>(100.0) | 3<br>(3.0)   | 98<br>(97.0)  | 101<br>(100.0) | 29<br>(28.7) | 72<br>(71.3) |
| 영아수당    | 101<br>(100.0) | 3<br>(3.0)   | 98<br>(97.0)  | 101<br>(100.0) | 19<br>(18.8) | 82<br>(81.2) |
| 보육료 지원  | 101<br>(100.0) | 4<br>(4.0)   | 97<br>(96.0)  | 101<br>(100.0) | 29<br>(28.7) | 72<br>(71.3) |
| 유아학비 지원 | 101<br>(100.0) | 8<br>(7.9)   | 93<br>(92.1)  | 101<br>(100.0) | 52<br>(51.5) | 49<br>(48.5) |
| 아이돌봄서비스 | 101<br>(100.0) | 9<br>(8.9)   | 92<br>(91.1)  | 101<br>(100.0) | 46<br>(45.5) | 55<br>(54.5) |
| 공동육아나눔터 | 101<br>(100.0) | 12<br>(11.9) | 89<br>(88.1)  | 101<br>(100.0) | 71<br>(70.3) | 30<br>(29.7) |

| 구 분   | 사례수            | 필요 여부        |              | 사례수            | 인지 여부        |              |
|-------|----------------|--------------|--------------|----------------|--------------|--------------|
|       |                | 필요없음         | 필요함          |                | 모름           | 알고 있음        |
| 드림스타트 | 101<br>(100.0) | 11<br>(10.9) | 90<br>(89.1) | 101<br>(100.0) | 75<br>(74.3) | 26<br>(25.7)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아동 돌봄 관련 지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이용 경험을 알아보았다.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 지원을 받은 경험이 81.3%로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 등 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양육을 할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은 68.1%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아수당은 53.7%, 보육료 지원이 45.8% 등의 순으로 이용 경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이용한 경우는 해당 지원이 대부분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아학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드림스타트는 경험을 또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V-57.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지원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이용 경험        |              | 사례수           | 도움 정도       |             |             |             |              |
|--------|---------------|--------------|--------------|---------------|-------------|-------------|-------------|-------------|--------------|
|        |               | 경험 없음        | 경험 있음        |               | 전혀 도움 되지 않음 | 별로 도움 되지 않음 | 보통          | 다소 도움 됨     | 매우 도움 됨      |
| 아동수당   | 91<br>(100.0) | 17<br>(18.7) | 74<br>(81.3) | 74<br>(100.0) | 0<br>(0.0)  | 3<br>(4.1)  | 8<br>(10.8) | 7<br>(9.5)  | 56<br>(75.7) |
| 아동양육비  | 60<br>(100.0) | 45<br>(75.0) | 15<br>(25.0) | 15<br>(100.0) | 0<br>(0.0)  | 0<br>(0.0)  | 2<br>(13.3) | 2<br>(13.3) | 11<br>(73.3) |
| 가정양육수당 | 72<br>(100.0) | 23<br>(31.9) | 49<br>(68.1) | 49<br>(100.0) | 1<br>(2.0)  | 1<br>(2.0)  | 6<br>(12.2) | 7<br>(14.3) | 34<br>(69.4) |
| 영아수당   | 82<br>(100.0) | 38<br>(46.3) | 44<br>(53.7) | 44<br>(100.0) | 0<br>(0.0)  | 0<br>(0.0)  | 5<br>(11.4) | 3<br>(6.8)  | 36<br>(81.8) |
| 보육료 지원 | 72<br>(100.0) | 39<br>(54.2) | 33<br>(45.8) | 33<br>(100.0) | 0<br>(0.0)  | 0<br>(0.0)  | 1<br>(3.0)  | 4<br>(12.1) | 28<br>(84.8) |

| 구 분     | 사례수           | 이용 경험        |             | 사례수          | 도움 정도       |             |            |             |              |
|---------|---------------|--------------|-------------|--------------|-------------|-------------|------------|-------------|--------------|
|         |               | 경험 없음        | 경험 있음       |              | 전혀 도움 되지 않음 | 별로 도움 되지 않음 | 보통         | 다소 도움 됨     | 매우 도움 됨      |
| 유아학비 지원 | 49<br>(100.0) | 45<br>(91.8) | 4<br>(8.2)  | 4<br>(10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4<br>(100.0) |
| 아이돌봄서비스 | 55<br>(100.0) | 52<br>(94.5) | 3<br>(5.5)  | 3<br>(100.0) | 0<br>(0.0)  | 0<br>(0.0)  | 0<br>(0.0) | 1<br>(33.3) | 2<br>(66.7)  |
| 공동육아나눔터 | 30<br>(100.0) | 28<br>(93.3) | 2<br>(6.7)  | 2<br>(100.0) | 0<br>(0.0)  | 0<br>(0.0)  | 0<br>(0.0) | 1<br>(50.0) | 1<br>(50.0)  |
| 드림스타트   | 26<br>(100.0) | 22<br>(84.6) | 4<br>(15.4) | 4<br>(100.0) | 0<br>(0.0)  | 0<br>(0.0)  | 0<br>(0.0) | 2<br>(50.0) | 2<br>(50.0)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2) FGI 결과

아동 양육은 어느 부모에게나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이 어려운 과정에서 청소년 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지원을 충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현재 아동 돌봄 지원은 양육과 일을 병행할 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일을 하기 위한 학업이나 학습 과정에 놓인 경우가 많은 청소년 부모에게는 이 단계에서의 돌봄 병행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 일단 제가 뭘 할라면 배워야 되잖아요. 일단 배우는 돈은 뭐 국비를 받아서든 뭐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기를 봐줄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기가 떨어져 있는 게 싫거든요. 그, 그래서 회사들 보면 연계된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부모만을 위한 그런, 직업 훈련하는데 그 밑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진짜 완전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내가 한번 사업해볼까.
- 보건소 이런 데. 아니면 복지관. 복지관 뭐 선생님들이 출장 가서 가르쳐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병원 코디네이터나 이런 데. 복지관 같은 데 보면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린이 보육실 이거 있는 거 아니죠? 그 어린이 장난감 대여해주고 시간제 보육. 그런 데서 해도, 왜냐하면 강당이 있잖아요, 거기. 그런 데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FGI를 통해 청소년 부모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양육의 어려움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부모가 아동 양육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경제적 인 부분과 돌봄 서비스 및 인프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육 지원 욕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한 다거나 육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및 정서적 불안정, 남성 양육자로부터의 도움 부족·부재 등은 청소년 부모의 육아 경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주위의 시선) 무시, 무시 안 당하려고. 제가 그게 있었어요. 저도 선입견이 있었나 봐요. 어린 부모에 대한. 그런데 그 시선이 너무 싫었어요. 또 남편 없이 혼자, (돌보니까) 어. 그런 받는 시선이 너무 스트레스여서 임신했을 때 집에서 정말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무시 안 당하려고. 정말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고 나중에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소리 안 듣고 정말 재네 너무 잘 산다. 이런 소리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애기 잘 키웠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또 이제 나중에 애기가 재네 엄마가 너무 어려서 그래. 못 배워서 그래. 엄마, 아빠가 너무 어려서 잘 못 배워서 그래. 애기들이랑 똑같이 잘못해도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더 이렇게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 (육아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 다른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주변에도 없잖아요. 솔직히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인터넷으로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인터넷도 제가 모르면, 질문을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웃음) 그래가지고 그냥 막막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 (육아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 애가 씻기고 나니까 추워가지고 이렇게 막 떠는데 애 왜 이래? 잘못 씻긴 거 아니야? 놀라가지고 애 우는데 같이 울고 있고. 막 갑자기 병원에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리고 신생아 때 막 2시간마다 먹여야 된다, 세네 시간마다 먹여야 된다 하는 거를 꼭 지키려고 하는데 애가 잠을 푹 자서 안 깨어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안 깨어나니까 깨워도. 그 산후 거기에다가 전화해서 애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갑자기 새벽에 전화해서 하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아, 괜찮아요.
- (정서적 불안정) 아기를 낳고. 우울증도 좀 심했고 그래서 아기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단, 거의 그냥 그 기저귀를 갈아주지만 놀아주지는 않았어요. 아기 혼자 노는 거 그냥 지켜만 보고 해줄 건 해주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놀아주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우울하니까. 그렇다고 말길 데도 없고. 뭐 불안하고, 말기더라

도. 제대로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아기한테도 미안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 (남성 양육자의 도움 부족) 아무래도 남편이 어리잖아요. 저도 어리지만. 남편은 아예 사회생활을 그렇게 많이 안 해본 사람이라서 어, 뭐라 말해야 되지. 이게 대화하는 게 원래 사회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더 늘어나갔고 생각하는 게, 남을 배려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고. 그 힘든 거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서 힘들었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저거 힘들 거 아닌데 어른들은 더 힘든데 아빠인데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생각 들고. 사실 독박육아 있거든요. 거의 남편이 아직 어러가지고 애가, 아기 낳으면 그냥 알아서 크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음, 처음에는 한동안은 아빠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많이 싸워서 후회를 많이 했다가 지금은 정신 좀 차려가지고. (웃음) 정신 좀 차려가지고 좀 괜찮아졌어요.

### (3) 소결

청소년 부모는 미취학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어리거나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부모의 시간적 여유 등의 이유로 생각된다. 또한 자녀 양육 시 힘든 점에서 양육비나 교육비 등 비용의 부담이 가장 힘든 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함께 생각해 보면, 직접 돌봄으로 받게 되는 양육 수당과의 관련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양한 아동 양육 관련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고, 영유아가 사용가능한 지원을 중심으로 인지도와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이용한 지원에 대해서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응답이 대부분으로 나타나 기존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지원 대상이 정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선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육 비용과 관련된 지원뿐 아니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촘촘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 부모는 학업 또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도록 돌봄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또래들과 다른 생애 과업을 행하는 측면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심리적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부모와 아이 모두의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기존 양육 관련 정책에 더해 청소년 부모가 갖는 특성을 반영한 양육 지원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7)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와 부모님 또는 길러주신 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족 관계뿐 아니라 청소년 부모가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등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파악한다.

### (1)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부모가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 및 동거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매우 불만족한다(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4점)까지의 평균 점수로 알아본 결과, 3점으로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8. 현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 만족도

| (단위: 명, 점) |     |     |     |      |
|------------|-----|-----|-----|------|
| 구 분        | 사례수 | 중위값 | 평균  | 표준편차 |
| 전체         | 101 | 3.0 | 3.0 | 0.8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한다' 1점 ~ '매우 만족한다' 4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자녀 앞에서 배우자와 얼마나 자주 다툼을 하는지 알아본 결과, 한 달에 1-2회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고, 거의 싸우지 않는다는 응답은 27.7%, 일주일에 1-2회 이상인 경우는 19.8%로 나타났다. 즉, 자녀 앞에서 다투는 경우가 한 달에 1-2회 이상인 경우가 60% 가량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9. 자녀 앞 배우자와 다투는 빈도

| (단위: 명, %) |         |        |       |       |       |        |        |
|------------|---------|--------|-------|-------|-------|--------|--------|
| 구 분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전체         | 101     | 28     | 2     | 3     | 7     | 41     | 20     |
|            | (100.0) | (27.7) | (2.0) | (3.0) | (6.9) | (40.6) | (19.8)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①거의 싸우지 않는다, ②일년에 1-2회 싸운다, ③일년에 3-4회 싸운다, ④일년에 5-6회 싸운다, ⑤한달에 1-2회 싸운다, ⑥일주일에 1-2회 이상 싸운다

청소년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보았다. 아이들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이에 대해 잘 아는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지 등 부모의 효능감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평균 점수로 살펴보았다. 단, 부정의 내용으로 기술한 5)와 6) 문항은 역 코딩하여 다른 효능감과 동일한 방향을 만들어 평균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3점대에서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에 대해 평균 3.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다음 평균 점수가 높은 효능감은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로 3.6점이었고,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나는 부모로서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역코딩)는 내용에 대한 평균은 3.5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내용은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가 3.4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관찰은 부모라고 생각한다'가 3.3점,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와 '나는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보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역코딩)는 각각 3.2점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청소년 부모는 평균적으로 보통(3점) 이상의 부모의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아이와의 관계나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높게 평가하는 반면, '좋은 부모'라는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표 IV-60. 모(응답자)의 부모 효능감

| (단위: 명, 점)                                         |       |     |     |      |
|----------------------------------------------------|-------|-----|-----|------|
| 구 분                                                | 사례수   | 중위값 | 평균  | 표준편차 |
| 1)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 (101) | 3.0 | 3.2 | 1.0  |
| 2)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 (101) | 3.0 | 3.5 | 1.0  |
|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관찰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 (101) | 3.0 | 3.3 | 1.0  |
| 4)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 (101) | 3.0 | 3.5 | 1.0  |
| 5) 나는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보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 (101) | 3.0 | 3.2 | 1.0  |

| 구 분                                                  | 사례수   | 중위값 | 평균  | 표준편차 |
|------------------------------------------------------|-------|-----|-----|------|
| 6) 나는 부모로서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 (101) | 4.0 | 3.5 | 1.1  |
| 7)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 (101) | 3.0 | 3.6 | 0.8  |
| 8)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 (101) | 4.0 | 3.7 | 0.8  |
| 9)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 (101) | 3.0 | 3.4 | 1.0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1)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2) 항목 5)와 항목 6)의 평균 점수는 그 외의 항목과 동일한 방향을 만들기 위해 역 코딩하여 산출하였음.

청소년 부모가 자신의 부모님이나 길러주신 분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지 알아본 결과, 같이 사는 경우를 포함해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잘 지낸다'라는 응답이 6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에는 '연락은 가끔 하지만 잘 만나지는 않는다' 14.9%,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 9.9%, '연락을 끊지는 않았지만 잘 연락하지 않는다' 8.9%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과반이 부모님 또는 길러주신 분과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61. 부모님(길러주신 분)과의 관계

| (단위: 명, %) |         |       |       |        |        |
|------------|---------|-------|-------|--------|--------|
| 구 분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 전체         | 101     | 10    | 9     | 15     | 67     |
|            | (100.0) | (9.9) | (8.9) | (14.9) | (66.3)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①연락하지 않고 지낸다, ②연락을 끊지는 않았지만 잘 연락하지 않는다, ③연락은 가끔 하지만 잘 만나지는 않는다, ④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잘 지낸다(같이 사는 경우 포함)

부모님 또는 길러주신 분과 만나고 잘 지낸다는 청소년 부모를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떨어져 자라서', '본인의 임신/출산을 계기로', '아이 기르면서 바쁘게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학업·취업 등으로 집을 나와 살게 되어서' 등의 의견이 있었다. '기타' 의견은 거리가 멀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거

나 이혼해서, 학대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표 IV-62. 부모님(길러주신 분)과 잘 만나지 않는 이유

| (단위: 명, %) |         |        |       |        |        |        |
|------------|---------|--------|-------|--------|--------|--------|
| 구 분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전체         | 34      | 9      | 2     | 8      | 5      | 10     |
|            | (100.0) | (26.5) | (5.9) | (23.5) | (14.7) | (29.4)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①어릴 때부터 떨어져서 자라서, ②학업·취업 등으로 집을 나와 살게 되어서, ③본인의 임신/출산을 계기로, ④아이 기르면서 바쁘게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⑤기타

다음은 다양한 상황에서 청소년 부모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가장 먼저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70.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53.5%,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54.5%,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65.3%로 나타났다.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의 경우는 없다는 응답이 63.4%로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낙심 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63.4%,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86.1%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부모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신경 써 주는 사람이 주변에 다수 있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몸이 아플 때, 대화 상태가 필요할 때, 또는 정보가 필요할 때 등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36.6%에 지나지 않아 다른 정서적 지지나 정보에 대한 도움보다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상대적으로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부모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닐 수 있으나, 경제적인 도움을 줄 상대가 주변에 없는 비율이 다른 도움을 줄 상대의 비율과 큰 폭으로 차이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표 IV-63.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단위: 명, %)

| 구 분                                           | 사례수            | 없다           | 있다           |
|-----------------------------------------------|----------------|--------------|--------------|
| 1)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101<br>(100.0) | 30<br>(29.7) | 71<br>(70.3) |
|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101<br>(100.0) | 47<br>(46.5) | 54<br>(53.5) |
|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 101<br>(100.0) | 46<br>(45.5) | 55<br>(54.5) |
| 4)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101<br>(100.0) | 35<br>(34.7) | 66<br>(65.3) |
| 5)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101<br>(100.0) | 64<br>(63.4) | 37<br>(36.6) |
| 6)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101<br>(100.0) | 37<br>(36.6) | 64<br>(63.4) |
| 7)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 101<br>(100.0) | 14<br>(13.9) | 87<br>(86.1)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2) FGI 결과

청소년 부모는 임신·출산 과정에서부터 양육까지 본인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경우의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모와 같이 살거나 만나기도 하면 잘 지내는 비율이 과반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실태조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부모의 도움은 경제적 도움, 양육 및 돌봄 도움, 정서적 도움 등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 저는 어머니. 임신 기간 중에는 제일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이고. 솔직히 저희도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어요. 남편이 빚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조금 조금씩 일하면서 갚아나가고 그 와중에도 이제 남편이 일하는 와중에 갑자기 통장이 압류가 돼버린 상황에서도 어머니께서 그거를 풀어주셨고 그리고 남편이 일자리가 없어서 아등바등하고 있을 때 남편이 엄마, 저희 어머니 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한 3달 정도 일하긴 해서 이렇게 생활비가 들어오니깐. 그래도 그냥 무작정 돈을

주기보다는 저희 힘으로 어떻게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봐라라는 기회를 주신 분이니까 더 감사하죠. 지금도 이제 애기한테 필요한 용품이나 그런 거 있으면 말해라 한 다음에 구해서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처음에는 지워라 마라 하셔어도 지금은 사진 안 보내면 왜 안 보내냐 툭툭거리시고.

- 그래도 친정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막 진짜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냥 좀 우울감은 있지만 그래도 잘 케어해주셔가지고 버텼던 것 같아요, 많이
- 그때도 일주일마다 1번씩 엄마가 와서 아예 주말에는 제가 이틀 동안 잠만 잤거든요. 그래서 좀 살 수 있었지..없었으면, 엄마 없었으면 진짜 죽었을 것 같아요. (중략) 그래서 오늘도 말기고 오고.

본인의 부모님뿐 아니라 시부모님 역시 도움을 주는 존재로 드러났는데, 역시 돌봄과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주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항상 도움을 주는 관계는 아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거나 서운하게 만드는 경우도 물론 있었다.

-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계시고 저희 친정엄마는 진주에 계셔서 거의 주말에 내려오시고. 이렇게 급할 때는 시어머니한테 말기고. 시어머니, 아버지랑도 너무 친엄마, 아버지랑 잘 지내서 편하게 말기고 올 수 있어요.
- (시댁에서) 내보고 고생 많았다고 그때 170만 원 줬었거든요. 모두 다 합쳐가지고 친척. 그렇게 돈 주면서 그걸로 좀 생활 좀 했어요
- 경제적인 이제 시댁이 대주고 애기 봐주는 거는 다 웬만해서는 우리 집에서 주는데...
- 오빠가 매주, 매번 받긴 해요, 매달. 이렇게 300만 원씩은. 그런데 그걸 자기 이제 빚 갚고 이렇게 하는 거고.
- 시댁에서 30만 원 해줬다가 10만 원 해줬다가 더 이상 못 주겠다 해가지고 남편이랑 싸웠거든요. 왜 우리 엄마는 양육적으로 도움 더 크게 주는데, 우리한테 왜 도움을 일절 안 해주냐. 그래서 내가 더러워서 안 받는다, 그냥. 그냥 받고 안 좋은 소리 들을 바에야 그냥 안 받겠다. 안 보여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보고 싶을 때마다 약간 10만 원씩 약간 용돈 해라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청소년 부모는 가족 이외에 친구, 온라인 카페, 지원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있다. 부모나 가족의 지원이 부족한 경우는 지원단체 관계자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의지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 (미혼모지원네트워크 담당 선생님) 바로 받아요. 먼지도 이제 좀, 그러니까 연락이 뜸하다 싶으면 한 번씩 전화 오시면 그때 또 이제 전화하고 뭐 하소연 와다다다 하고 같이 이렇게 막. 거의 엄마, 그러니까 제2의 엄마가 되는 그런.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 뭐 이렇게 뭐 신청해봐라. 이러면서 잔소리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 제일 유명한. 부천 맘스홀릭이라는 제일 유명한 맘카페에 부천맘 선택해서 카테고리 올렸는데 이제 여러 명 했는데 가장 마음이 잘 맞아서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애기들끼리랑도 이제 놀게 하고 서로.

청소년 부모가 맺는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 부모라는 상황에 의해 맺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또래 친구들은 본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거나 관심사가 다른 경우가 많아 본인과 같은 경험을 한 새로운 친구에게 더 의지하는 등 청소년 부모라는 상황이 관계의 종류를 변화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 부모의 사회적 관계는 새로운 관계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 부모는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를 갖는데 한계가 있고, 어려운 부탁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부족할 수 있다.

- 친구들은 공통점이 없잖아요. 사실 딱히 대화할 거리가 없어요. 말이 끊겨요. 옛날 얘기나 주구장창 하고 있고. 말이 금방 끊기고 나에게 공감도 여차피 못 하고. 그래서 아, 너무 외롭다 해서. 또 30대 엄마들이랑 얘기하면 저희를 은근 되게, 어려서 모르는데 얘기 이렇게 해주는 거야. 몰라? 이것도 안 해주고 뭐 했어? 약간 이런 식의 무시를 받기 때문에.
- 저희(청소년 부모) 이제, 이제 막 최근에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자주 하고. 그래서 뭐 간호조무사도 여기 살 때는 같이 다니자.
- 저는 미혼모네트워크(지원단체) 말고는 지지해주고 하는 사람, 친구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 (3) 소결

청소년 부모의 가족과의 관계는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 중심으로 알 수 있다. 청소년 부모는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었다. 또한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있어 아이와 관계 측면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지만, 좋은 부모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더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필요에 따라 부모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부모의 원가족과의 관계는 부모와 연락하는 것으로 알아보았는데, 자신의 부모와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잘 지내거나 가끔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는 청소년 부모의 임신·출산 및 양육 과정을 부모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부모의 임신·출산으로 인해서 부모와 잘 만나지 않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경우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부모의 사회적 관계 특성에서는 아플 때 도와주거나 정보 공유 및 이야기 대상은 있지만 경제적인 도움을 줄 관계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 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 부모의 사회적 관계는 주로 청소년 부모라는 특성으로 인해 형성되는 관계라는 점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공통 관심사를 갖기 힘들고 주로 아이 양육에 대한 이야기가 통하는 사이, 또는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과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이러한 관계 형성의 특징은 청소년기 중요하게 여겨지는 친구와의 관계 부족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친구 관계의 부족은 친구 사이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안정감 및 소속감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러한 측면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해 보인다.





## 제5장 정책 제언

- 1. 청소년부모의  
정책 지원 과제
- 2.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 1. 청소년부모의 정책 지원 과제

### 1) 청소년부모 정책지원 방향과 추진과제

#### (1) 청소년부모 발굴·지원체계 마련

청소년부모가 되는 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 과정의 필요 지원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준비 비용 및 물품 지원, 임신·출산 기간동안 생활비를 약 80%가 1순위로 응답했다. 그러나 임신·출산과 이룬 결혼을 가족들이 반대함으로써 가족과의 불화 및 형편상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임신 27주 때 조산기가 있어 입원을 했는데 1번 맞는 데 50만 원짜리 약을 썼어야 됐어요. 애 낳기 전까지 입원을 계속했다 보니까 병원비가 400, 5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미성년자라서(혼인신고 못함) 남편 말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밑에 들어가 있는데 중위 80% 이하 가구가 아니라서 고위험 산모 국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저희 힘으로 살겠다고 한 상태로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데 국가의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게 제일 난관이었던 것 같아요.
- 저는 금전적으로 좀 힘들었고 기댈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어찌지 하다가 방황하다가 만삭 때쯤에 갑자기 한 2주 3주전부터 중독증 생겨서..... 애가 위험하다고 대학병원 가라 해가지고 대학병원 갔는데 응급 제왕하고 그다음 미혼모센터 들어가가지고 해결 다 하고 왔어요.
- 부모님들 반대가 엄청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설득하는 데도 좀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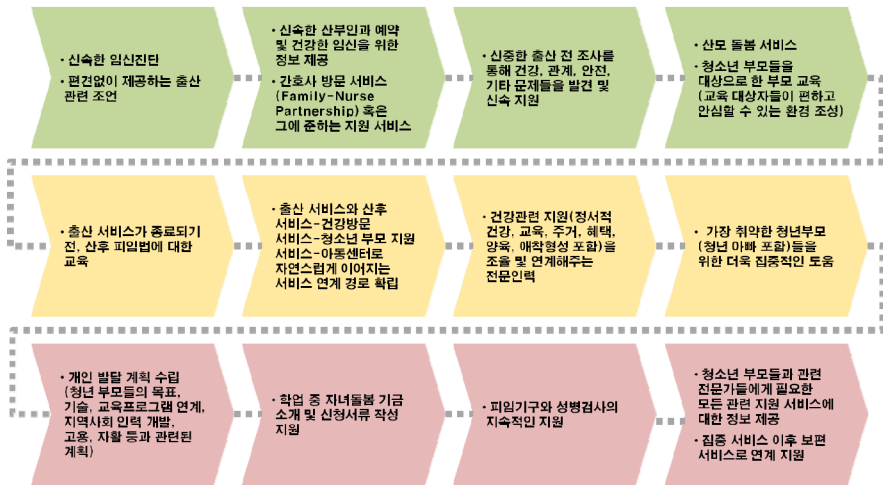
9) 5장은 이상정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집 문제도 조금 있었고. 그사이 애기를 지을 수 있는 그 기간 때 너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주 많이 싸우기도 하고. 남편이랑 싸우기도 하고.

또한, 청소년부모의 30% 이상이 임신·출산 당시 도움을 받은 기관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약 29%가 인터넷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바와 같이 현재 청소년부모 지원할 수 있는 공식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부모는 이러한 어려움을 일부 민간기관을 통해, 혹은 결국 가족들의 지지와 경제적 도움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공식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께서 그 돈을 빌려주셨고.....제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 작년 6월까지의 일을 했었는데 제가 좀 임신 빨리 알아가지고, 입덧이 좀 빨리 찾아왔어요. 도저히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또 이제 주변 토박이라서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올 테니까 시선이 조금 그럴잖아요. 남편은 군대 안에 있고 나는 밖에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그럼 어쩔 수 없겠다 하고 미혼모지원센터를 알아봤어요.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이제 인연이 되어 계속 쪽 받고 있어요.

이러한 지원체계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부모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주거지원, 심리지원, 자녀 돌봄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임신·출산 과정의 사회적 시선과 편견은 관계 단절과 새로운 관계 형성의 어려움의 요인으로 작용했고, 출산 후 우울증과 함께 외로움과 고립감을 심각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교육, 심리·정서적 지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 영국의 공중보건국은 지방정부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과 함께 조기 임신과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지침서를 발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 임신·출산, 산모·아동, 양육·자립, 통합적 서비스 제공

- 구체적 지원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자원과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가족간호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훈련된 간호사가 방문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부모와 자녀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출처: 1) Public Health England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8). A Framework for Supporting Teenage Mothers and Young Fathers. <https://www.local.gov.uk/sites/default/files/documents/identifying-and-supportin-931.pdf>에서 2022년 8월 20일 인출.  
2) 배보은(2022). 청소년부모 정책외의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 청소년부모지원 캠페이너.

그림 V-1. 청소년부모를 위한 통합 지원 경로

정부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과 함께 전국 93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관계부처 합동, 2021.11.)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가족 상담, 부모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인력·예산이 별도로 지원되지 않은 채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상황으로 청소년부모 발굴과 지원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청소년부모를 임신·출산 기간 중 조기 발굴, 지원하여 청소년부모와 아동의 건강, 경제 등 위기 예방이 필요한데 민간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으로서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영국과 유사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0년 7월부터 시행하여 2021년 4월 기준 전국 30개 지역 보건소로 확대되었다. 본 사업을 활용하여 시군구의 취약 아동·가구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상담 기관에 매칭해주고 아니면 (양육 관련) 멘토 선생님이 오시고 이런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영국에서는 주로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신청주의에 기반, 일반 산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부모의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 국민행복카드 혹은 보건소 산모 등록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산모가 24세 이하의 청소년 연령에 해당할 경우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즉각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여 청소년부모를 특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발굴, 집중 통합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사업의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어야 하고, 자녀가 2세 이상이 되면 필요시 지역의 드림스타트 혹은 희망복지지원단 연계를 통해 아동과 부모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협력 체계 구축도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2) 청소년부모 특성 반영, 지원제도 개선

### ① 주거, 경제지원 제도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주거와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원가족의 지원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거비를 마련하지 못해 부모님 또는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약 20% 정도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가구 소득으로 포함되어 LH와 같은 정부지원주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계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부지원주택이 되더라도 보증금이 없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나타났다.

- 저희가 뭐 집이, 집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갈 곳도 없고 하니까. 저는 친가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거든요.....
- 재산 확인한다 이렇게 가족 등본 같은 거 떼가면 아, 시부모님 앞으로 집이 있어서 이게 안 된다고 할 때가 많았어요.
- 신혼부부 1전형으로 해가지고 넣어서 당첨이 됐는데, 그러니까 자부담금 5%가 안 나는 거예요. 저희 둘 다 대출도 안 나와요. 지금 빚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500만원이 없어서) 못 했어요. 기간 놓쳐서.

청소년부모는 특수 정책대상으로서 별도의 주거지원을 원했다. 최소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분리된 세대로 인정하여 자산조사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에게 독립된 가구로서의 자립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목돈의 보증금 납부에 대한 대안, 소득 기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

- (주거지원이) 따로 있었으면, 뭐 신혼부부에 통합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부모라고 명칭을 할 거면, 주거지원 정책을 해주든가, 아니면 아예 소득 분위를 정확히 따져서 해주든가. 돈도 돈이지만 애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주거가 제일 좀 크게 잡히는 것 같아요.

## ② 교육, 훈련, 취업지원 제도

청소년부모는 일반청년에 비해 고용의 질과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학력 수준도 고졸 이하 비율이 대학 이상보다 매우 높았다. 한편, 자립을 위해서는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규학교와 원격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학업을 중단한 이유도 아동 돌봄의 문제가 가장 컸으며, 자립을 위해 학업이나 일을 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였다. 관련하여 근무 시간 조정이나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부모를 위한 교육, 훈련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 돌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어린이집 다닐 때는 종일반 보내면 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4교시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보낼 데가 없어요. 그러면 애기가 고학년 되면 학원으로 돌리면 된다 치면 그때는 이미 내 경력 단절이 10년이예요.
- 청소년부모가 애기를 키울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혼자 뭐를 저처럼 뭐, 뭘 차린, 자영업을 한다던가 뭐 이러면 그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부모가 교육, 훈련을 받는 동안 돌봄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아동돌봄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하

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과 인력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 원격 혹은 온라인 수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에서는 배움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 계획과 지도, 정서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청소년부모대상 원격 강의나 수업 또한 학습지원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③ 보육, 돌봄 지원제도

청소년부모가 자신의 자립을 위해 교육, 취업훈련 등을 지속 또는 시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 돌봄 지원이 우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9조(보육의 우선 제공)에 의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생활 영유아, 맞벌이 가구, 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이며 소득(수급·차상위),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기준이 된다. 즉, 청소년부모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저는 새벽 6시 반까지 회사를 가야 되는데 그때 동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있어서, 어. 그런데 그것도 소득 분위더라고요. 아침에 아이 등원시켜주는 것도 소득 분위, 모두 다 소득 분위.
- 자격증 따고 애기 어린이집 보내면 이제 제대로 전문가한테 배우고 바로 삼 차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중단된 교육과 취업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을 때까지 연기되는 것이 다반사이며, 이마저도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후순위로 밀리면서 필요한 시기에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교육과 취업훈련 등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부모가 초기 청년으로서 스스로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이루어야 청소년부모가구가 빈곤·취약가구로 이행하는 것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부모가구를 어린이집 우선 대상자로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 2.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 1)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으로서 정의 및 지원

청소년부모는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의 부모 역할을 수행하며 이미 ‘자립’을 이루어가고 있는 초기 청년이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특성 또한 대부분 일반 청년부모, 청소년·청년 부모 가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득, 직업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지원, 자녀와 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또한, 일반 가구의 산모들처럼 출산 후 심라정서적 불안과 우울, 자녀 돌봄과 양육에 대한 걱정 등을 나타냈으며, 스스로의 직업, 교육 등에 대한 욕구보다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과 양육에 대한 우선 지원을 필요로 했다. 즉, 청소년부모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 청소년으로서의 특성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으로서의 특징을 더 많이 나타냈으며, 관련 지원에 대한 욕구를 더욱 나타냈다. 청소년부모 스스로도 그들을 ‘청소년’부모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청소년’부모로 지칭하여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 어쨌든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한 아이와 가정 꾸리고 있는데..... 청소년은 어린이랑 어른 사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 저도 청소년이라고는 생각을 안했어서..... 20살 넘어서 애기 엄마가 돼서 청소년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얼마 전에 지원금 받는 거 연락이 와서 그때 제가 청소년부모에 해당되는 것을 알았어요.
- 청소년부모라는 단어 자체는 어감이 조금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웬지 그래서(아이를 낳아 부모가 되는 것)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있다.
- 청소년부모는 뭔가 아무 준비도 안 된 학생이 애 낳은 것 같은 말 같아서.....

실질적으로 2020년 기준, 청소년부모 2,298가구 중에서 부모 모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 부모가구(38가구)는 2% 미만, 부 또는 모가 19세 미만인 경우(212가구)에도 전체의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또는 모가 24 이하인 가구 중에서(10,526가구) 부 또는 모가 19세 미만인 가구(212가구)는 2%에 불과했다(표 II-2 참조). 즉, 초기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으로 명명함으로써 부정적 인식과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으로 청년정책대상에서 포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아닌 청년지원을 위한 근거법으로 법적 기반을 재정비하여야 하며, 청년연령에 근거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한부모, 청년한부모, 청년·청소년부모, 청년부모 가구 모두에게 사각지대와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가운데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 또는 모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을 통해 추가적인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서 행정적·법률적 지위를 부여하여 혼인신고, 전입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소지 기반의 사회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후기 청소년으로서의 발달과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 2) 취약 청년으로서 청소년부모 우선 지원과 정보 접근성 제고

청소년부모가 초기 청년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대상 서비스는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1인 가구 중심으로 청소년부모는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주거지원으로 보증금, 전세 자금 등이 없어 부모 가구 편입하여 살고 있는데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이 청소년부모가 정부지원 주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택 공급 정책 내 청소년부모를 우선 특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소득 기준 완화 및 부모가구와 자산 조사 분리 등의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 밖에 고용·취업 컨설팅, 청년교육비 지원, 저금리 대출 서비스 등 청소년부모를 특별 지원 대상으로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표 V-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일부)

| 구 분                     | 주요 내용                       |
|-------------------------|-----------------------------|
| 고용복지서비스망 구축             |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형고용센터·출장소 연계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컨설팅 강화        | • 경력단절 예방지원 확대, 진로설계 진화     |
| 청년내일채움공제                | • 통합, 내실 제고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확대      | -                           |
|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공급 확대        | • 청년특화주택 공급,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 |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 선정기준 확대, 기준임대로 현실화        |

| 구 분                                     | 주요 내용                               |
|-----------------------------------------|-------------------------------------|
| 고시원·반자하 등 거주 저소득 청년<br>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 소득 기준 완화, 이주비용 패키지 지원             |
|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주택코디네이터 등 종합지원      |
| 국가장학금                                   | • 기초·차상위                            |
|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br>(후학습 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 • 저소득                               |
|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 • 수급자, 차상위 대상                       |
| 청년햇살론                                   | • 미취업, 저신용 청년 저금리상품                 |
| 채무조정특례                                  | • 특례지원, 상환유예기간 확대                   |
| 청년정신건강특화사업(바우처)                         | • 우울증검사, 정신 건강바우처(소득기준 없음, 6개월)     |
| 모든청년 국가건강검진 무료 실시                       | • 20·30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피부양자까지 확대(19~) |
|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24세 미만 또는 대학생)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근로인센티브 제공           |
| 문화누리카드                                  | • 기초·차상위대상 연간 10만원                  |

\*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0.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lId=1090>  
에서 2022년 8월 12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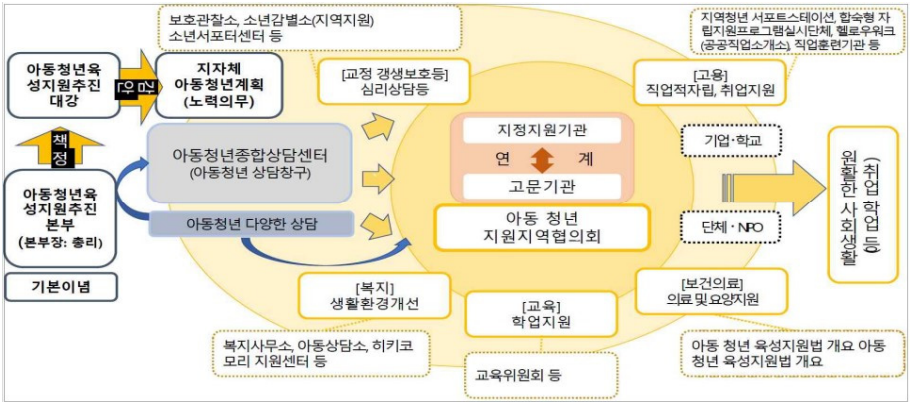
한편, 신청주의 기반의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해 공식적 지원체계가 없는 많은 청소년부모들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다. 온라인 자조모임이나 민간단체를 통해 일부 청소년부모들만이 제한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 저는 이제 제가 운영 하고 있는 어린 엄마들이 모인 카톡방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대략 한 30명 정도가 있고 거기서 이제 서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이번엔 어떤 지원이 생겼더라는 정보를 얻어가고.....
- 민간 지원 단체도 있고 국가 지원 단체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미혼모지원센터에서도 정보를 많이 얻어서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고 제가 애란원의 자문단으로 활동을 해서 거기서도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거기에서 애기 양육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사업 같은 거 있으면 정보 공유를 많이 해요.

청소년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대상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자녀의 임신·출산, 양육과 교육, 청소년부모 당사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부모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체계는 보건소,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협업

이 용이하도록 시·군·구 단위에서 제공하고, 일반 청년대상 지원 정보 제공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의 청년센터에서는 청소년부모를 포함하여 모든 청년대상 지원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청년정책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큰데, 지역 내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주체가 협의하여 연계하고, 거점 기관으로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정세정 외, 2020).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는 니트, 은둔형외톨이, 비행·범죄, 빈곤, 보육 등의 다양한 위기에 있는 모든 청년 대상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정세정 외, 2020).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의 중요한 역할은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다른 창구로 연계되지 않도록 원스톱 상담 창구로서의 기능이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개별 청년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기관 소개와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정세정 외, 2020). 일본의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와 같은 역할을 우리나라의 청년센터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마다 확대되고 있는 청년센터는 현재 주로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부모를 포함하여 다양한 위기 상황 속의 청년으로 그 대상을 넓혀 원스톱 종합상담 창구로서 청년의 문제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 기관 연계와 정보 제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1) 厚生労働省. (2010. 4.1.).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について.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s\\_gaiyo.pdf](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s_gaiyo.pdf).에서 2020. 9. 15. 인출.  
2) 정세정 외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29의 [그림 3-2-1] 재인용.

그림 V-2. 일본의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 연계 흐름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충북: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1).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충북: 질병관리본부.
- 김기태, 정세정, 김현경, 강예은, 최권호, 최한수, 남재욱, 조자영, 김윤민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청년 불안정 노동자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부태 (2011). 한국 학력·학벌주의 인식체계 분석. **교육학연구**, 49(9), 25-54.
- 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김성아, 정소연, 이우태, 이상정, 박광옥 (2022). **청년종합연구 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 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정 (2020). “일탈자”에서 권리주체로: 청소년 한부모의 재생산권, 교육권, 노동권. **이화젠더법학**, 12(1), 69-109.
- 김은정 (2011). 새로운 생애 발달 단계로서의 성인모색지(Emerging Adulthood): 20대 전반 여대생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19(2), 133-149.
- 김지현, 권미경, 최윤경 (2018).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V)-미혼모부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태완, 김기태, 정세정, 이주미, 최준영, 강예은, 김보미, 정재훈, 안주영, 송치호 (2019).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재욱, 김영민, 한기명 (2018). 고졸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불안정 연구. **사회복지연구**, 49(1), 221-262.
- 류정희, 이상정, 김지연, 정익준, 정소희, 주하나 (2022).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송현중, 유민상, 이봉주 (2019).

-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보은 (2022). **청소년부모 정책소의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 청소년부모지원 캠페이너.
- 변금선, 유민상, 한경훈 (2022).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초기 청년의 삶의 질.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코로나 시기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변화와 대응’ 자료집**.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변수정, 김유경, 최인선, 김지연, 최수정, 김희주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2).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송지나, 강혜현, 조윤희, 이순형 (2014). 십대출산기혼모의 부모됨에 관한 질적연구: 지지적 관계를 통한 적응과 성숙을 중심으로. **동광**, 109, 75-122.
- 여성가족부 (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II)**. 서울: 여성가족부.
- 은주희, 임고운 (2019).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아름다운 재단,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은주희, 임고운 (2020). 청소년미혼모가 경험하는 사회적 무시와 인정: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적 함의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41(2), 131-159.
- 이선희, 김수지, 서해인 (2021). 청소년 미혼모의 부모 역할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2), 1-23.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영호, 박지윤 (2021). 청소년부모의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10대에 자녀를 첫 자녀를 임신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1), 113-132.
- 이용우, 양호정 (2019). 양육미혼모의 자립과정에 대한 탐색-자립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0, 111-138.
- 이정봉 (2021). 이행기 관점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8), 1-21.
- 이재희, 조미라, 최은경 (2021).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이주미, 김태완 (2022). 청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시장, 소득 및 자산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350, 8-20.

정세정, 임덕영, 김문길, 임완섭, 이상림, 류진아, 강예은, 김보미, 기현주, 박이대승, 신영규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창균, 양정승 (2015). **고졸청년의 취업추이와 향후 과제**.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효미, 강은진, 조미라, 조숙인, 김태우 (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OECD, WHO (2018).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18: Measuring Progress towards Universal Health Coverag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health\\_glance\\_ap-2018-en](https://doi.org/10.1787/health_glance_ap-2018-en).에서 2022년 8월 20일 인출.

Public Health England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8). A Framework for Supporting Teenage Mothers and Young Fathers. <https://www.local.gov.uk/sites/default/files/documents/identifying-and-supportin-931.pdf>에서 2022년 8월 20일 인출.

#### 〈법령 참고 자료〉

민법, 법률 제17905호 (202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에서 2022년 5월 17일 인출.

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202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에서 2022년 5월 18일 인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95호 (202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청년기본법, 법률 제18443호 (202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B%85%84%EA%B8%B0%EB%B3%B8%EB%B2%95>에서 2022년 5월 10일 인출.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7285호 (202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B%85%84%EA%B8%B0%EB%B3%B8%EB%B2%95>

A0%B9/%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에서 2022년 4월 14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8550호 (2021). <https://law.go.kr/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liBgcolor1>에서 2022년 4월 15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통령령 제32593호 (2022). <https://law.go.kr/LSW/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undefined>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인터넷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0.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Id=1090>에서 2022년 8월 12일 인출.

관계부처 합동 (2021.11).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217](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217)에서 2022년 4월 14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21). 주제별통계-소득소비·자산-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 (2019년~)-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1인이상).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U015&vw\\_cd=MT\\_ZTITLE&list\\_id=G\\_A\\_10\\_003\\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U015&vw_cd=MT_ZTITLE&list_id=G_A_10_003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2년 5월 6일 인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21.8.31.). 기재부 등 4개 주요부처에 ‘청년’ 전담부서 생긴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559>에서 2022년 8월 12일 인출.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2022). 국가바우처사업. [http://www.voucher.go.kr/voucher/diaper.do?p\\_sn=59](http://www.voucher.go.kr/voucher/diaper.do?p_sn=59)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1.4.). 2021년1월,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

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527>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4.1.). 엄마와 아기의 건강지킴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월부터 확대 실시.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17235954954\\_20210401091235.hwp&rs=/upload/viewer/result/202210](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17235954954_20210401091235.hwp&rs=/upload/viewer/result/202210)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a). 정책-보육-보육사업기획-영아수당.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204&PAGE=4&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204&PAGE=4&topTitle=)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b). 정책-복지-기초생활보장-급여수준-급여개요-급여상세설명-생계급여.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5&PAGE=5&topTitle=](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5&PAGE=5&topTitle=)에서 2022년 9월 22일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c). 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201&PAGE=1&topTitle=](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201&PAGE=1&topTitle=)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d). 정책-인구아동-아동복지정책-아동수당지급.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1&PAGE=1&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1&PAGE=1&topTitle=)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22a). 사업별소개-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39](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39)에서 2022년 5월 18일 인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22b). 사업별소개-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69](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69)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22c). 사업별소개-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24](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24)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서울신문 (2019.5.7.) “애는 낳아야지” “인생이 불쌍해”... 이중 시선에 우는 어린부모.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17326](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17326)에서 2022년 8월 15일 인출.

아름다운재단, 캠페이커 (2022). 청소년부모 지원 사례관리 매뉴얼북. [https://www.kingmaker.or.kr/bbs/board.php?bo\\_table=file&wr\\_id=55&me\\_code=6010](https://www.kingmaker.or.kr/bbs/board.php?bo_table=file&wr_id=55&me_code=6010)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2022). 아이돌봄 사업소개.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5&L\\_MENU\\_CD=020101&H\\_MENU\\_CD=0201&SITE\\_ID=FRONT&MENU\\_SITE\\_ID=FRONT](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5&L_MENU_CD=020101&H_MENU_CD=0201&SITE_ID=FRONT&MENU_SITE_ID=FRONT)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2.18.). 한부모가족을 위한 든든한 정책4가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9094>에서 2022년 7월 27일 인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2a).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양육-양육지원-아동양육비.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21.d](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21.d)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2b).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자립.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30.do](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30.do)에서 2022년 9월 20일 인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2022). 새일센터소개-사업소개. [https://saeil.mogef.go.kr/hom/HOM\\_Main.do](https://saeil.mogef.go.kr/hom/HOM_Main.do)에서 2022년 9월 22일 인출.

직업훈련포털HRD-Net 홈페이지 (2022). 정보마당-직업능력개발사업 안내-개인-국민내일배움카드 <https://www.hrd.go.kr/hrdp/gi/pgibo/PGIBO0100T.do>에서 2022년 9월 22일 인출.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022). 사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란-지원대상.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Trgt.d>에서 2022년 9월 22일 인출.

厚生労働省. (2010. 4.1.).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について.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s\\_gaiyo.pdf](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s_gaiyo.pdf)에서 2020년 9월 15일 인출.

## 〈분석 데이터 자료〉

통계청 (1997).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1998).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1999).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00).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01).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02).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03).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04).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05).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06).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07).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08).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09).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10).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11).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12).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13).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14).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15).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16).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17).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18).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19).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20).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세종: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부 록



# 부록

## 1.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설문지



###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현재 「청소년부모 정책 소의 실태 및 정책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부모의 주거, 취업과 경제상황, 교육, 건강, 자녀양육, 가족·사회적 관계 영역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부모를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가(부 또는 모의 올해 나이가 25세 이하(1998년 이후 출생)인 가구)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며, **설문응답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되며, **통계 산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철저히 지켜 보장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거절할 수 있고, 응답 도중에 설문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 및 거절, 참여 중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위협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 조사의 자발적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조사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조사가 정부정책 수립과 추진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6월

연구책임자 :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아동정책연구센터 이상경 센터장

조사수행기관: ㈜에스티아이 김유현 연구원(02-785-9247)

####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응답자 선정을 위한 일반사항(배우자 유무, 혼인신고 여부, 응답자 본인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 자녀 유무, 자녀 수, 자녀 성별, 자녀의 출생연월, 자녀 취학상태), 주거, 경제와 고용(고용 및 지출, 채무 관련 사항), 교육(학업, 자립을 위한 교육 관련 사항), 건강(응답자의 건강상태, 임신출산 관련 사항), 자녀 양육, 가족·사회적 관계 영역,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요구 파악, 응답자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청소년부모의 주거, 경제와 고용, 교육, 건강, 자녀 양육, 가족·사회적 관계 영역,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요구 등 삶 전반에 관한 요구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 및 보완을 위한 자료로 활용, 답례품 제공을 위한 연락처 수집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위 사항들을 이해하였고,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으로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6월 일

■ 참여자 이름: \_\_\_\_\_ 서명: \_\_\_\_\_

■ 답례품 제공을 위한 연락처: \_\_\_\_\_

※ 연락처(핸드폰 번호)는 답례품 제공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 답례품은 조사 응답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제공됩니다.

## Screening Questions

이 설문지는 **조사연도(2022년) 기준** 아래의 상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합니다.

- ① **본인 또는 배우자(또는 애인, 아이 아버지)의 올해 나이가 25세 이하(1998년 이후 출생)**  
 ② **현재 배우자(또는 애인, 아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임신 중**

SQ1-1) 귀하는 현재 배우자(또는 애인, 아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1. 배우자(또는 애인, 아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음 (사실혼, 동거, 결혼 모두 포함) → **SQ1-2)로 이동**  
 2. 함께 살지 않음 (사별·이혼 포함) → **조사 중단**

SQ1-2) 현재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혼인신고 후 함께 살고 있는 상태  
 2.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상태 → **SQ1-3)으로 이동**

SQ1-3) **[SQ1-2의 2번 응답자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보호자(부모) 동의가 필요해서  
 2. 정부의 한부모지원서비스 받기 위해서  
 3. 그냥 사귀는 사이이기 때문에  
 4. 기타( )

**SQ2-SQ4는 배우자가 있는 분(사실혼 포함)만 응답**

SQ2) 귀하와 배우자의 태어난 생년월일을 말씀해주시시오.

| 응답자 본인               | 배우자                  |
|----------------------|----------------------|
| _____년 _____월 _____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

→ 응답자 본인과 응답자의 배우자 **모두 올해 나이가 26세 이상(1998년 이전 출생)**이면 조사 중단

SQ3-1) 귀하가 자녀가 있으십니까? 현재 임신 중인 경우에는 “①예”로 응답해주시시오.

1. 예 → **SQ3-2)로 이동**  
 2. 아니오 → **조사 중단**

SQ3-2) 귀하가 **현재 함께 생활하며 기르는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하여** 응답해주세요.

예를 들어 **첫째 자녀가 있고, 임신 중인 경우는 자녀 수를 총 2명**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총 \_\_\_\_\_명 → **0이면 조사 중단**

SQ3-3)

귀하의 **첫째 자녀의 생년월일**를 적어주십시오.

☞ 임신 중인 경우에는 임신개월 수를 적어주세요.

| 자녀의 나이                 |                      |
|------------------------|----------------------|
| 첫째 자녀의 생년월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
| 첫째 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 임신개월 수 | 임신 _____개월           |

SQ3-4)

**첫째 자녀의 아버지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입니까?**

1. 예

2. 아니오

## 1. 주거

◆ 다음은 주거와 관련된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A1)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 16. 경남 | 17. 제주 |        |

A2) 귀하는 현재 배우자 외에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함께 사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 1. 자녀                  |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아버지/어머니 |
|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할아버지/할머니 |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인척     |
| 5. 친구, 동료 및 지인         | 6. 기타(적을 것: _____)    |

A3) 귀하는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 |                                        |           |
|----------------------------------------|-----------|
| 1. 나의 집(자가, 전세, 월세 등 관계없이) → A3-1)로 이동 |           |
| 2.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 등 가족 및 친인척 집          |           |
| 3. 친구 또는 지인 집                          | → A4)로 이동 |
| 4. 생활(복지)시설(모부자 관련 시설(원터))             |           |
| 5. 기타(적을 것: _____)                     |           |

A3-1) [A3의 1 응답자만]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원룸(다가구)
2. 아파트
3. 다세대/빌라
4. 오피스텔
5. 하숙
6. 기숙사
7. 고시원
8. 단독주택
9. 기타(일반주택의 방 하나만 임대 등)

A3-2)

**[A3의 1 응답자만]**

귀하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 형태(또는 주거비용 지불 방식)는 무엇입니까?

1. 자가
2. 전세
3. 보증금이 있는 월세
4. 보증금이 없는 월세
5. 무상

A3-3)

**[A3의 1 응답자만]**

주거비용 마련은 누가 하겠습니까?

- ☞ 주거비용은 자개인 경우 구입비용, 전세인 경우 전세금,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 월세 등을 의미함
- ☞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금융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을 누가 갚느냐 기준으로 응답함

1. 전부 본인(또는 배우자) 스스로 마련
2. 본인(또는 배우자)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
3.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해주시고 본인(또는 배우자)이 일부 도움
4.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심
5. 청소년부모 지원 기관 등에서 도와줌
6. 기타(적을 것: \_\_\_\_\_)

A4)

향후 주거 마련에 있어서 다음 항목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1. 주거비용(매매가격, 전월세가격 등)
2. 주택유형(아파트, 다세대/빌라, 원룸(다가구), 오피스텔 등)
3. 주택상대(주택규모, 노후도, 방의 개수, 인테리어 등)
4. 주택위치(직장/학교와의 거리, 부모님과의 거리)
5. 주택환경(의료/문화/상업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교통, 교육환경 등)
6. 향후 주택 가격 변화(미래에 나의 재산으로써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
7. 기타(적을 것: \_\_\_\_\_)

A5) **정부의 주거관련 지원**에 대한 필요여부,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 정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주거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 제공하는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

| 정책                    | A5-1)<br>필요 여부 |         | A5-2)<br>인지 여부 |          | A5-3)<br>이용 경험<br>[A5-2의 2<br>응답자만] |          | A5-3-1)<br>도움 정도<br>[A5-3의 2 응답자만] |                      |    |           |           |
|-----------------------|----------------|---------|----------------|----------|-------------------------------------|----------|------------------------------------|----------------------|----|-----------|-----------|
|                       | 필요<br>없음       | 필요<br>함 | 모름             | 알고<br>있음 | 경험<br>없음                            | 경험<br>있음 | 전혀<br>도움<br>되지<br>않음               | 별로<br>도움<br>되지<br>않음 | 보통 | 다소<br>도움됨 | 매우<br>도움됨 |
| 1) 주거급여<br>(국민기초생활보장) | 1              | 2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원 전세·월세 자금 보증**: 목돈 마련이 어려운 국민을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및 월세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자금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사업

| 정책                             | A5-1)<br>필요 여부 |         | A5-2)<br>인지 여부 |          | A5-3)<br>이용 경험<br>[A5-2의 2<br>응답자만] |          | A5-3-1)<br>도움 정도<br>[A5-3의 2 응답자만] |                      |    |           |           |
|--------------------------------|----------------|---------|----------------|----------|-------------------------------------|----------|------------------------------------|----------------------|----|-----------|-----------|
|                                | 필요<br>없음       | 필요<br>함 | 모름             | 알고<br>있음 | 경험<br>없음                            | 경험<br>있음 | 전혀<br>도움<br>되지<br>않음               | 별로<br>도움<br>되지<br>않음 | 보통 | 다소<br>도움됨 | 매우<br>도움됨 |
| 2) 정부(지방자치단체)지원<br>전세·월세 자금 보증 | 1              | 2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공공분양 주택」에는 아래의 주택들이 해당됩니다.

- \* **공공분양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이하의 주택으로써, 소득이 낮은 무주택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족, 노부모 부양자 등에게 특별공급 1순위로 우선공급
- \* **신혼희망타운주택**: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만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에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가점제로 우선 공급

| 정책         | A5-1)<br>필요 여부 |         | A5-2)<br>인지 여부 |          | A5-3)<br>이용 경험<br>[A5-2의 2<br>응답자만] |          | A5-3-1)<br>도움 정도<br>[A5-3의 2 응답자만] |                      |    |           |           |
|------------|----------------|---------|----------------|----------|-------------------------------------|----------|------------------------------------|----------------------|----|-----------|-----------|
|            | 필요<br>없음       | 필요<br>함 | 모름             | 알고<br>있음 | 경험<br>없음                            | 경험<br>있음 | 전혀<br>도움<br>되지<br>않음               | 별로<br>도움<br>되지<br>않음 | 보통 | 다소<br>도움됨 | 매우<br>도움됨 |
| 3) 공공분양 주택 | 1              | 2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공공임대 주택」에는 아래의 주택들이 해당됩니다.

- **영구임대:** 무주택자이자 저소득층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장애인 등에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국민임대:** 무주택저소득 가구인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에게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행복주택:** 청년(19-39세),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 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매입전세 임대주택:** 아래의 대상에게 LH 또는 지방주택도시공사가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공급하는 제도  
(대상)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 대학생(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종료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 정책         | A5-1)<br>필요 여부 |         | A5-2)<br>인지 여부 |          | A5-3)<br>이용 경험<br>[A5-2와 2<br>응답자만] |          | A5-3-1)<br>도움 정도<br>[A5-3의 2 응답자만] |                      |    |           |           |
|------------|----------------|---------|----------------|----------|-------------------------------------|----------|------------------------------------|----------------------|----|-----------|-----------|
|            | 필요<br>없음       | 필요<br>함 | 모름             | 알고<br>있음 | 경험<br>없음                            | 경험<br>있음 | 전혀<br>도움<br>되지<br>않음               | 별로<br>도움<br>되지<br>않음 | 보통 | 다소<br>도움됨 | 매우<br>도움됨 |
| 4) 공공임대 주택 | 1              | 2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2. 건강

◆ 다음은 귀하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 <B. 건강 관련 사항>

B1)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B2) 귀하는 지난 1년간(2021년 6월~2022년 5월)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B3)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1.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B4)로 갈 것
2.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3.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4. 기타(적을 것: \_\_\_\_\_) → B3-1)로 갈 것

B3-1) [B3의 2, 3, 4 응답자만]

귀하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3.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4.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5. 기타(적을 것: \_\_\_\_\_)

B4) 귀하는 지난 1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껴셨습니까?

| 구분                        | 극 히 드 룰 다<br>(일주일에 1일 미만) | 가 끔 있 었 다<br>(일주일에 1-2일간) | 중 중 있 었 다<br>(일주일에 3-4일간) | 대 부분 그 렸 다<br>(일주일에 5일 이상) |
|---------------------------|---------------------------|---------------------------|---------------------------|----------------------------|
|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 0                         | 1                         | 2                         | 3                          |
| 2) 비교적 잘 지냈다              | 0                         | 1                         | 2                         | 3                          |
| 3) 상당히 우울했다               | 0                         | 1                         | 2                         | 3                          |
|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 0                         | 1                         | 2                         | 3                          |
| 5) 잠을 설치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 0                         | 1                         | 2                         | 3                          |
|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 0                         | 1                         | 2                         | 3                          |
|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 0                         | 1                         | 2                         | 3                          |
|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 0                         | 1                         | 2                         | 3                          |
| 9) 마음이 슬펐다                | 0                         | 1                         | 2                         | 3                          |
|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 0                         | 1                         | 2                         | 3                          |
|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 0                         | 1                         | 2                         | 3                          |

B5) 귀하께서는 아동·청소년기에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구분                                          | 없다 | 있다 |
|---------------------------------------------|----|----|
| 1)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 1  | 2  |
| 2) 양육자로부터 과도한 체벌 또는 정서적 공격을 당한 경험           | 1  | 2  |
| 3) 정서적/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었던 경험            | 1  | 2  |
| 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 1  | 2  |
|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한 경험                          | 1  | 2  |
| 6)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 1  | 2  |
| 7) 가출했던 경험                                  | 1  | 2  |
| 8) 가정 밖에서 생활했던 경험(양육시설, 쉼터,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 | 1  | 2  |

B6) 아래에 사다리 그림이 있습니다. 사다리의 맨 첫 칸을 “10”(당신에게 가능한 가장 좋은 삶)으로 보고 맨 아래 칸을 “0”(당신에게 가능한 가장 나쁜 삶)으로 봅니다. **현재 당신은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                       |    |         |
|-----------------------|----|---------|
| <input type="radio"/> | 10 | 가장 좋은 삶 |
| <input type="radio"/> | 9  |         |
| <input type="radio"/> | 8  |         |
| <input type="radio"/> | 7  |         |
| <input type="radio"/> | 6  |         |
| <input type="radio"/> | 5  |         |
| <input type="radio"/> | 4  |         |
| <input type="radio"/> | 3  |         |
| <input type="radio"/> | 2  |         |
| <input type="radio"/> | 1  |         |
| <input type="radio"/> | 0  | 가장 나쁜 삶 |

B7) 귀하는 다음의 건강관련 정책 중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건강검진 지원 정책
2. 심리지원 서비스 정책
3. 생활 체육시설 확대 정책
4.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
5. 출산지원 정책
6. 기타(적을 것: \_\_\_\_\_)

◆ 다음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C. 임신 및 출산 관련 사항>

C1) 귀하의 **첫 자녀** 출산 당시 귀하의 연령과 아이 아버지의 연령을 응답해주세요.

| 첫 자녀 출산<br>당시 연령 | 응답자 본인      | 아이 아버지      |
|------------------|-------------|-------------|
|                  | (       세 ) | (       세 ) |

C2) 귀하가 출산을 결정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나의 아이이므로 출산을 고민하지 않음
2. 출산을 고민하였으나 아이 아버지와 함께 키우기로 약속해서 결심
3. 임신중절을 고려했으나 결심을 할 수 없어서
4. 임신중절 시기를 놓쳐서
5. 임신중절하려 했으나 비용이 없어서
6. 가족 등 주변의 강한 지지로
7. 청소년부모에 대한 인식변화로 주변의 차별이나 편견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8. 기타(적을 것: \_\_\_\_\_)

C3) 귀하가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1. 도움 준 사람 없음
2. 아이 아버지
3. 나의 부모
4. 나의 형제·자매
5. 아이 아버지의 가족
6. 나의 친구
7. 나의 학교 선생님
8. 직장 동료 및 상사
9. 시설 또는 기관 상담원
10. 종교인
11. 청소년부모인 친구나 지인
12. 기타(       )

C4) 귀하 **첫째 자녀**의 임신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임신 \_\_\_\_\_ 주째

C5) 귀하 **첫째 자녀** 출산 전 임신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C6)로 갈 것**

C6) **[C5의 2 응답자만]**

귀하가 **첫째 자녀** 임신 당시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출산이 가까워질 때까지 임신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2. 산전진찰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3. 건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따로 진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4. 받으려 했지만 시간이나 상황상 여유가 없어서
5. 받으려 했지만 비용이 부담되어서
6. 병원에서 청소년부모인 것을 알 것 같아 불편해서
7. 기타(적을 것: \_\_\_\_\_)

C7) 임신·출산부터 현재까지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여부, 인지도부, 이용경험, 도움 정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가이드>

-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만19세 이하 임신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1회당 120만원 이내)
- \* 엽산·철분제 지원: 임신 확인을 통해 보건소에서 수령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보살피며 산후관리 지원
-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에게 가정방문 산후서비스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 \* 기저귀 지원사업: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 구매비용(월 6만 4천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22.1.1. 이후 출생아 대상으로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정책                             | C8-1)<br>필요 여부 |         | C8-2)<br>인지 여부 |          | C8-3)<br>이용 경험<br>[C8-2의 2<br>응답자만] |          | C8-3-1)<br>도움 정도<br>[C8-3의 2 응답자만] |                      |    |           |           |
|--------------------------------|----------------|---------|----------------|----------|-------------------------------------|----------|------------------------------------|----------------------|----|-----------|-----------|
|                                | 필요<br>없음       | 필요<br>함 | 모름             | 알고<br>있음 | 경험<br>없음                            | 경험<br>있음 | 전혀<br>도움<br>되지<br>않음               | 별로<br>도움<br>되지<br>않음 | 보통 | 다소<br>도움됨 | 매우<br>도움됨 |
| 1)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1              | 2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2) 엽산·철분제 지원                   | 1              | 2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3)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 1              | 2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4)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1              | 2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5)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 1              | 2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6) 기저귀 지원 사업                   | 1              | 2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7)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 1              | 2       | 1              | 2        | 1                                   | 2        | 1                                  | 2                    | 3  | 4         | 5         |

C8) 귀하를 임신·출산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임신·출산 관련 긴급상담전화(위기임신·출산 상황에 필요한 지원 및 상담)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출산 준비에 드는 비용 및 품종 지원
- 임신·출산 기간 동안 생활비(출산관련 비용 및 진료비를 제외한 비용) 지원
- 임신·출산 기간 동안 지낼 수 있는 주거 지원
- 출산 후 필요한 산후조리 서비스(도우미 지원 등)
- 임신·출산 과정에서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 아이를 낳자마자 돌보는 방법(먹일 때, 씻길 때, 울 때, 응급 시 등)에 대한 교육
- 기타(적용 것: \_\_\_\_\_)

### 3. 취업과 경제 상황

◆ 다음은 귀하의 취업과 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입니다.

#### <D. 취업 관련 사항>

D1)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1. 맞벌이(나와 배우자, 모두 돈을 벌고 있음)
2. 외벌이(나와 배우자, 둘 중 한 명만 돈을 벌고 있음)
3. 비해당(나와 배우자, 모두 돈을 벌고 있지 않음)

D2) 귀하는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주일에 18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도 '일을 하였음'입니다.

1. 일을 하였음  → **D3)으로 이동**
2. 휴가 및 일시 휴직
3. 일을 하지 않았음 → **D5)로 이동**

#### 일하는 사람만 응답

D3) 다음은 현재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일자리란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상태였던 일자리를 말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지난주에 가장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한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동일한 경우 임금도 많은 일자리, 시간과 임금이 동일한 경우 최근에 시작한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구분              |                   | 내용                                                                                                                                                                                                       |
|-----------------|-------------------|----------------------------------------------------------------------------------------------------------------------------------------------------------------------------------------------------------|
| 현재<br>일자리<br>기준 | 1) 고용 형태          | 1. 정규직(상용직)<br>2. 비정규직(임시·일용직)<br>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br>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br>5. 무급가족종사자                                                                                                                       |
|                 | 2)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 3-2-1) 현재 일자리를 통해 받고 있는 월급(세후금액)<br>약 <input type="text"/> 만 원<br>3-2-2) (지난 달 기준) 월급과 기타 수입을 모두 포함한 총 소득<br>☞ 근로소득(월급), 정부보조금(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아동수당, 아동양육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br>약 <input type="text"/> 만 원 |
|                 | 3) 근로시간 유형        | 1. 전일제 근로<br>2. 시간제 근로(파트타임/아르바이트) → <b>D4)로 이동</b>                                                                                                                                                      |

D4)

**[D3-3의 2 응답자만]**

귀하가 현재 전일제 근무를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집안일이 많아서
2. 육아 또는 자녀교육 때문에
3. 건강상 이유 때문에
4. 여가를 즐기기 위해
5. 학업 병행을 위해
6. 다른 일자리와 병행하기 위해
7. 직업훈련을 병행하기 위해
8. 학력, 경력 부족으로 전일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9. 기타(적을 것: \_\_\_\_\_)

**일 안하는 사람만 응답**

D5)

귀하는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자리)을 구해 보았습니까? (창업준비도 포함됩니다)

1. 직장을 구해보았다 → **D5-1)로 이동**
2.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 **E1)로 이동**

D5-1)

**[D5의 1 응답자만]**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자리)이 구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1. 직장이 구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E1)으로 이동**
2.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D5-2)로 이동**

D5-2)

**[D5-1의 2 응답자만]**

귀하가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
2.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3.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4.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5. 진학 준비 중이어서
6. 취업 준비 중이어서
7. 기타(적을 것: \_\_\_\_\_)

<E. 경제 상황 관련 사항>

E1) 귀하의 **한 달 가족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 가족에는 **귀하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 **가족 생활비 포함 내용**: 나물 포함하여 가족 전체가 쓰는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식비, 의료비, 교통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관 등), 보건의료비, 자녀 양육비(돌봄 비용, 교육비, 피복비 등) 등

우리 가족의 한 달 생활비는 약  만원

E1-1) **가족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우리 가족의 한 달 생활비 중 약  만원을 지원 받음

E2) 귀하를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습니까?

1. 있다 (약  만원) → **E2-1)로 이동**  
2. 없다

E2-1) **[E2의 1 응답자만]**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자금 마련
- 주거비 마련(전·월세자금 대출 등)
-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등)
- 창업 자금 마련
- 임신 및 출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 기타(적을 것: \_\_\_\_\_)

E3) 귀하를 지난 1년간(2021년 6월-2022년 5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부모님 및 친척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비용 및 냉/난방비 지출에 대해 본인이 모를 경우에만 1), 2)에 '9.잘 모름'에 체크)

| 구분                                            | 예 | 아니오 | 잘 모름 |
|-----------------------------------------------|---|-----|------|
|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1 | 2   | 9    |
|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 1 | 2   | 9    |
|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1 | 2   |      |
|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 1 | 2   |      |
|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 1 | 2   |      |
| 6) TV를 가지고 있지 <b>않았다</b>                      | 1 | 2   |      |
| 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b>않았다</b>                     | 1 | 2   |      |
| 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b>않았다</b>                     | 1 | 2   |      |
|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또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 1 | 2   |      |

## 4. 교육

◆ 다음은 학업, 직업훈련 등의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 <F. 학업 관련 사항>

#### 모두 응답

F1) 귀하의 최종 학업 상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응답 가이드>

☞ 방송통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도 해당 학업 상태에 응답해주세요.

☞ 청소년 한부모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도 해당 학업 상태에 응답해주세요.

\*청소년 한부모 대안교육기관: 재학 중 임신으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단기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며 학업을 지속할 수 있음.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 수료 후, 수료 여부가 기존 학교로 전달됨.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재학중
3. 중학교 중퇴/휴학
4. 중학교 졸업
5. 고등학교 재학중
6. 고등학교 중퇴/휴학
7. 고등학교 졸업
7. 대학교 2·3년제 재학중
8. 대학교 2·3년제 중퇴/휴학
9. 대학교 2·3년제 졸업
10. 대학교 4년제 재학중
11. 대학교 4년제 중퇴/휴학
12. 대학교 4년제 졸업
13. 대학원 이상

F2) [F1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휴학/졸업, 고등학교 중퇴/휴학/졸업인 응답자만]

귀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1.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2.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3.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4.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5.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6.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7. 자녀의 임신·출산 또는 양육 때문에
8. 기타(적을 것: \_\_\_\_\_)

F3)

**[F1의 중퇴/휴학 중인 응답자만]**

그 때, 학업을 중단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2. 임신 및 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3. 주변의 차별과 편견을 견디기 어려워서
4.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이나 가족의 권유 때문에
5. 생활비(양육비)를 벌기 위해
6. 학교의 정제와 강요 때문에
7. 기타(적용 것: \_\_\_\_\_)

F4)

**[F1에서 재학 중인 응답자만]**

귀하가 현재 학업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     |  |     |  |
|-----|--|-----|--|
| 1순위 |  | 2순위 |  |
|-----|--|-----|--|

1. 학업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음
2.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함
3.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
4. 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움
5. 스스로 느끼는 또래와의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문제
6. 청소년부모의 학업 지속에 대한 주변의 편견과 차별적인 시선
7. 배우는 내용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8. 기타(적용 것: \_\_\_\_\_)

**<G. 자립을 위한 교육 관련 사항>**

G1)

귀하는 자립을 위해 귀하의 현재 학력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G1-1)

**[G1의 3, 4 응답자만]**

귀하는 자립을 위해 최소한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학교 졸업
2. 고등학교 졸업
3. 2-3년제 전문대 졸업
4.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G1-2)

**[G1의 3, 4 응답자만]**

귀하가 현재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갖추기 위해 학업을 더 한다면 어떤 유형의 교육을 가장 받고 싶으십니까?

1. 정규 학교교육(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
2. 대안학교 교육 후 검정고시
3. 독학이나 홈스쿨 후 검정고시
4. 원격교육기관(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입학/편입,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등) 진학
5. 기타(적을 것: \_\_\_\_\_)

## 5. 자녀 양육

- ◆ 다음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취학 전 경험을 토대로 응답해 주세요.

<H. 미취학 자녀>

H1) 귀하는 미취학 자녀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방식을 모두 골라주세요.

- |                               |                     |
|-------------------------------|---------------------|
| 1. 내가 직접 돌봄                   | 2. 기관 이용(반일제 학원 포함) |
| 3. 조부모 돌봄                     | 4. 나의 형제자매 및 친인척 돌봄 |
| 5.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이용      | 6. 민간 양육도우미 이용      |
| 7. 사설 학원 이용(영어, 미술, 음악, 체육 등) | 8. 기타               |

H2) 일주일 중 미취학 자녀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있는 날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 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는 날이 전혀 없다 → **H3)으로 갈 것**
2. 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는 날이 1주일에 1-2일 정도 있다
3. 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는 날이 1주일에 3-4일 정도 있다
4. 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는 날이 1주일에 5일 이상 있다

H2-1)

**[H2의 2, 3, 4 응답자만]**

미취학 자녀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집에 혼자 있는 날에는 하루에 대부분 몇 시간이나 혼자 있습니까?

1. 1-2시간 미만
2. 2-3시간 미만
3. 3-4시간 미만
4. 4-5시간 미만
5. 5시간 이상

H3) 귀하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     |  |     |  |
|-----|--|-----|--|
| 1순위 |  | 2순위 |  |
|-----|--|-----|--|

1. 아이 양육비나 교육비가 부담스럽다
2. 아이를 돌보거나 챙길 시간이 부족하다
3.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
4. 아이 생활태도 지도나 훈육이 어렵다
5. 어린 부모의 자녀라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차별·따돌림 받거나 적응을 못해 걱정이다
6. 아이에게 가족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
7. 기타(적을 것: \_\_\_\_\_)
8.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H4)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음의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정책**에 대한 필요여부,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 정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 **아동수당**: 만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 \*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사업)**: 만 5세 이하 월 3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86개월 미만 영유아(소득무관 전계층)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월 10-20만원) 지원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지원)
- \* **영아수당(2022.1.1.일 이후 출생)**: 만 2세 미만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월 30만원) 지원
- \* **보육료 지원**: 만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 \* **유아학비 지원**: 만3-5세 유치원 재원 중인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하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
- \* **공동육아나눔터**: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육아를 함께 하고, 정보를 나누고 도움 수 있는 돌봄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지역 내 장소 제공
- \* **드림스타트**: 만0세-12세(초등학교)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대상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아동 심리상담 및 치료, 돌봄기관 연계,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산전산후관리 등)

| 정책                                           | H4-1)<br>필요 여부 |     | H4-2)<br>인지 여부 |          | H4-3)<br>이용 경험<br>[H4-2의 2<br>응답자만] |          | H4-3-1)<br>도움 정도<br>[H4-3의 2<br>응답자만] |                      |    |           |           |
|----------------------------------------------|----------------|-----|----------------|----------|-------------------------------------|----------|---------------------------------------|----------------------|----|-----------|-----------|
|                                              | 필요<br>없음       | 필요함 | 모름             | 알고<br>있음 | 경험<br>없음                            | 경험<br>있음 | 전혀<br>도움<br>되지<br>않음                  | 별로<br>도움<br>되지<br>않음 | 보통 | 다소<br>도움됨 | 매우<br>도움됨 |
| 1) 아동수당                                      | 1              | 2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2) 아동양육비<br>(한부모가족지원사업)                      | 1              | 2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3) 가정양육수당 지원<br>(보육시설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 지원) | 1              | 2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4) 영아수당<br>(보육시설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 지원)      | 1              | 2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5) 보육료(어린이집) 지원                              | 1              | 2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6) 유아학비(유치원) 지원                              | 1              | 2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7) 아이돌봄서비스                                   | 1              | 2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8) 공동육아나눔터                                   | 1              | 2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9) 드림스타트                                     | 1              | 2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6.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다음은 가족 및 주변 관계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11)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동거)생활에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한다    2. 불만족한 편이다    3. 만족하는 편이다    4. 매우 만족한다

12) 귀하는 자녀 밑에서 배우자와 얼마나 자주 싸웁니까?

1. 거의 싸우지 않는다    2. 일년에 1-2회 싸운다    3. 일년에 3-4회 싸운다  
4. 일년에 5-6회 싸운다    5. 한달에 1-2회 싸운다    6. 일주일에 1-2회 이상 싸운다

13) 자녀 양육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2.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 1         | 2      | 3    | 4       | 5      |
|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관찰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4.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 1         | 2      | 3    | 4       | 5      |
| 5. 나는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보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 1         | 2      | 3    | 4       | 5      |
| 6. 나는 부모로서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 1         | 2      | 3    | 4       | 5      |
| 7.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 1         | 2      | 3    | 4       | 5      |
| 8.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 1         | 2      | 3    | 4       | 5      |
| 9.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 1         | 2      | 3    | 4       | 5      |

14) 귀하는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 <응답 가이드>

- \* 부모님 두 분이 헤어지거나 안 계신 경우에는 실장 과정에서 본인을 주로 길러주신 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예) 자리면서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와 주로 생활한 경우 아버지와 관계를 응답해 주세요.
- \*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연락하며 지내는 경우, 연락하고 지내는 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  
2. 연락을 끊지는 않았지만 잘 연락하지 않는다  
3. 연락은 가끔 하지만 잘 만나지는 않는다  
4.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잘 지낸다(같이 사는 경우 포함) → 15)로 갈 것

14-1) [14의 1, 2, 3 응답자만]

연락을 잘 하지 않거나 잘 만나지 않고 지내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어릴 때부터 떨어져서 자라서
2. 학업·취업 등으로 집을 나와 살게 되어서
3. 본인의 임신·출산을 계기로
4. 아이 기르면서 바쁘게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5. 기타(적을 것: \_\_\_\_\_)

15)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이 있으십니까?

| 구분                                            | 없다 | 있다 |
|-----------------------------------------------|----|----|
| 1)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1  | 2  |
|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1  | 2  |
|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 1  | 2  |
| 4)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1  | 2  |
| 5)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1  | 2  |
| 6)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1  | 2  |
| 7)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 1  | 2  |

## 7.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및 서비스

◆ 다음은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J1) 귀하가 첫째 자녀를 임신출산했을 때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기관은 어디입니까?

1. 구청·주민센터
2. 지역복지시설
3. 고용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4. 모·부자 관련 시설(미혼모자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청소년부모지원기관 등 민간 지원 기관)
5. 건강가정지원센터
6. 드림스타트
7. 보건소
8. 학교
9. 인터넷(청소년부모 카페, 맘카페 등)
10. 기타(적을 것: \_\_\_\_\_)
11. 도움 받는 기관이 없다

J2) 귀하가 **첫째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 구청·주민센터
2. 지역복지시설
3. 고용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4. 모·부자 관련 시설(미혼모자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청소년부모지원기관 등 민간 지원 기관)
5. 건강가정지원센터
6. 드림스타트
7. 보건소
8. 학교
9. 인터넷(청소년부모 카페, 맘카페 등)
10. 기타(적을 것: \_\_\_\_\_)
11. 도움 받는 기관이 없다

J3) 귀하가 **자립을 하는 때**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 구청·주민센터
2. 지역복지시설
3. 고용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4. 모·부자 관련 시설(미혼모자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청소년부모지원기관 등 민간 지원 기관)
5. 건강가정지원센터
6. 드림스타트
7. 보건소
8. 학교
9. 인터넷(청소년부모 카페, 맘카페 등)
10. 기타(적을 것: \_\_\_\_\_)
11. 도움 받는 기관이 없다

J4) 귀하를 청소년부모에 대한 국가지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 골라주세요.

|     |  |     |  |
|-----|--|-----|--|
| 1순위 |  | 2순위 |  |
|-----|--|-----|--|

1. 지원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다
2. 지원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대상자인지 아닌지 이해 안가는 등)
3. 지원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다
4. 국가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
5.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시선이나 편견을 느낀다
6. 기타(적을 것: \_\_\_\_\_)

J5)

귀하는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     |  |     |  |
|-----|--|-----|--|
| 1순위 |  | 2순위 |  |
|-----|--|-----|--|

1. 학력을 갓출 수 있도록 지원
2. 다양한 직업 훈련 교육과정(프로그램) 제공
3. 근무 시간 조정이나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확대
4. 교육, 훈련, 일자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
5. 학업이나 일을 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 및 서비스
6. 학업이나 취업과정, 일하는 곳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환경 조성
7. 자립수당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의 확대
8.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주택 또는 주거비 지원 등)
9. 기타(적을 것: \_\_\_\_\_)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청소년부모 FGI 질문지

### 붙임 「청소년부모 정책 소외 실태 및 정책 개발」 청소년부모 포커스그룹인터뷰 질문지

- ▶ 본 질문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소년부모 정책 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연구의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위해 구성된 질문지입니다.
- ▶ 인터뷰 참여자 분들께서는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편안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 인터뷰 참여자 분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연구에 반영하고자 **인터뷰 내용에 대한 녹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어떻게 청소년부모가 되었습니까?

- 스스로를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청소년부모'라는 용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떠한 경로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까?  
- 현재까지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청소년부모가 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 누구의 도움으로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 청소년부모가 된 후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 긍정적 변화는 무엇이고, 부정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 청소년부모가 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 청소년부모로서의 삶은 어떠합니까?

- 임신·출산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본인과 자녀에게 건강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누구의 도움으로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 자녀 양육·교육에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해 현재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누구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청소년부모의 임신·출산, 자녀 양육·교육을 어떻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 또는 민간 지원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 또는 민간 지원 중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지원은 무엇입니까?

### 3. 부모로서가 아닌 나 스스로의 자립상황은 어떠합니까?

- 토래의 일반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스스로의 자립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

- 스스로가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병이 있습니까? 관련하여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

- 경제, 주거 상황은 어떠합니까?  
- 정부 또는 민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 정부 또는 민간 지원을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학업, 취업 상황은 어떠하며, 관련하여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관련하여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합니까? 어떤 지원을 원하십니까?

---

- 사회적 관계는 어떻습니까?  
- 주로 누구와 연락하며,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까?  
- 어려움(문제점)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 (배우자)부모님과 관계는 좋습니까? 생계, 자녀 돌봄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4. 우리나라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비(검정고시 등), 아동양육비(한부모 35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등의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청소년부모를 청년정책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수당, 주거, 취업 등이 청소년부모에게도 도움이 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으로서 청소년부모의 자립실태 및 욕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생애주기적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으로서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부모 지원의 기반이 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대상으로서의 청소년부모 소외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자립실태와 욕구를 실태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교육, 고용·경제, 건강, 가족·사회적 관계 영역 등에서 부모 당사자의 자립과 자녀의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의 지원을 위한 욕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부모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 개선 방향과 청년정책 내에서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청소년부모 정책지원 방향과 추진과제로 청소년부모 발굴 및 지원체계 마련, 청소년부모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및 서비스의 개선을 제안하였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으로 정의 및 지원, 취약 청년으로서 청소년부모 우선 지원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청년정책 추진과제로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elf-reliance status and needs of adolescent parents as 'youth-raising children' to examine ways to enable continuous and integrated life-cycle policy support in the process of achieving self-reliance. The size and current status of adolescent parents under the age of 24 as young people raising children were identified, and the current status of systems and policies that are the basis of support for adolescent parents were analyzed to analyze the reality of alienation of adolescent parents as a policy target. In addition, the actual conditions and cases of self-reliance and desire of adolescent parents aged 24 or younger who raise their children were investigated. In the areas of education, employment, economics, health, and family, social relations, parents' needs for self-reliance and childbirth, childbirth, and support during childrearing were analyz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policy improvement directions reflecting the needs of adolescent parents and policy tasks that need to be promoted within the youth policy were presented. As the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task of policy support for adolescent parents, discovering adolescent parents, preparing a support system, and improving systems and servic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parents were proposed. In addition, definition and

support as 'young people in the early stages of raising children', prioritized support for adolescent parents as vulnerable youth, and improvement of information accessibility were proposed as youth policy initiatives.

##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                                                                                                    |
|----------------|----------------------------------------------------------------------------------------------------|
| 연구보고22-기본01    |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 황여정·임희진·오승근                                                                   |
| 연구보고22-기본02    |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 최인재·오해섭·김민·정건희                                                      |
| 연구보고22-기본03    |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최정원·이지연·김현수·박지숙                                                        |
| 연구보고22-기본04    |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 / 최용환·좌동훈·박윤수                                                         |
| 연구보고22-기본05    |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김영한·이유진                                                     |
| 연구보고22-기본06    |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황세영·강경균·김남수                                                                  |
| 연구보고22-기본07    | 북한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전영선·차승주                                                                   |
| 연구보고22-기본08    |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 임지연·김정주·한지형                                                             |
| 연구보고22-기본09    |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김지경·김윤희·송현주                                                        |
| 연구보고22-일반01    |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
| 연구보고22-일반01-01 |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 김신영 |
| 연구보고22-일반01-02 |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최홍일                                    |
| 연구보고22-일반02    |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전현정·이용해                                                             |
| 연구보고22-일반02-01 |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전현정·김나영·이용해                                                         |
| 연구보고22-일반03    |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이정민·정윤미·엄진섭·장윤선·전경숙                                                         |
| 연구보고22-일반03-01 |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양계민·이정민·정윤미                                                      |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종단자료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01) 심층분석 보고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윤경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1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 연구Ⅲ: 후기청소년 / 이창호·이경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2 후기청소년(19-24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1)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강진숙·권오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3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2) 연구Ⅲ -후기청소년-기초분석보고서 / 이창호·이경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8-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정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6) 김형주·장근영·박미선·정세정·변금선·배정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9-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7) 이행기 청년의 자립 / 유민상·신동훈·신영규·박미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1 청년종합연구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 김지연·백혜정·김미향·김성아·정소연·이우태·이상정·박광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2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1) 김지연·백혜정·김미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3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2) 이우태·조정아·이규창·이지순·최규빈·김정원·장인숙·박환보·최종학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4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3) 이상정·류정희·변수정·하태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5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4) 박광옥·이기연·이복실·안예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Ⅰ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 성윤숙·문호영·천정웅·이희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2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01) 지원정책 평가 / 홍성효·장수명

##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2-수시0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유민상·신동훈
- 연구보고22-수시02 COVID-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경준·권일남
- 연구보고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김윤희·서정아
- 연구보고22-수시04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과 방향 연구 / 김윤희·남화성
- 연구보고22-수시0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문호영
- 연구보고22-수시06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 / 이유진·박찬걸

## 수 탁 과 제

### 〈 일 반 〉

- 연구보고22-수탁01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 활성화: 메타버스 설계구축 및 운영 / 임지연
- 연구보고22-수탁02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서정아·황진구
- 연구보고22-수탁03 경기도형 청소년 정책참여 추진체계 개발 연구 / 이윤주
- 연구보고22-수탁04 2022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 최용환·송헌재·장혜윤
- 연구보고22-수탁05 경기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양계민
- 연구보고22-수탁0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좌동훈·황진구
- 연구보고22-수탁07 학생의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 장근영·김윤희
- 연구보고22-수탁08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 연구 / 임지연·최려나·문세진
- 연구보고22-수탁09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모상현
- 연구보고22-수탁10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연구 / 김지연·김미향·조윤경·박광욱·오옥찬·조양진
- 연구보고22-수탁11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하형석·박지수·이인영
- 연구보고22-수탁12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정윤미·송현주·김균희
- 연구보고22-수탁1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황여정·임희진·좌동훈·오승근
- 연구보고22-수탁14 2022년 인성교육 확산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
- 연구보고22-수탁15 2022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성윤숙
- 연구보고22-수탁16 인성교육의 추진에 관한 평가·분석 / 성윤숙·문호영·김현수

|                |                                                             |
|----------------|-------------------------------------------------------------|
| 연구보고22-수탁17    | 2022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성윤숙                   |
| 연구보고22-수탁18    |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성윤숙                                |
| 연구보고22-수탁19    | 출발! 함께해요 인성교육(초등학교용) / 성윤숙                                  |
| 연구보고22-수탁20    | 인성교육으로 자유학기에 날개 달기(중학교용) / 성윤숙                              |
| 연구보고22-수탁21    |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br>김영지·김지연·서고운·전현정·김미향·최홍일           |
| 연구보고22-수탁22    |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 /<br>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
| 연구보고22-수탁23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임희진·서고운·유성렬                        |
| 연구보고22-수탁24    |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br>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
| 연구보고22-수탁24-01 |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br>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

####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             |                                                                    |
|-------------|--------------------------------------------------------------------|
| 연구보고22-학폭01 |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br>(중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
| 연구보고22-학폭02 |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br>(중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
| 연구보고22-학폭03 |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br>(고등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
| 연구보고22-학폭04 |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br>(고등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
| 연구보고22-학폭05 | 2021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                                 |
| 연구보고22-학폭06 |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이경상·김현수                      |
| 연구보고22-학폭07 |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성윤숙                                 |
| 연구보고22-학폭08 |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결과 분석 연구 / 성윤숙                                  |

####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             |                                              |
|-------------|----------------------------------------------|
| 연구보고22-대안01 |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이호준·윤홍주·김훈호·송원일           |
| 연구보고22-대안02 |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교육요구조사 및 지원 방안 / 김영지·유민선·박하나·김현수 |
| 연구보고22-대안03 |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실태 조사 / 황세영·오해섭·김세훈·이지혜 |
| 연구보고22-대안04 | 민·관협력형 대안교육 운영 선도모델 개발연구 / 조창호·김세광·한숙희       |

## 자 료 집

### 〈 세 미 나 〉

- 세미나22-01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과보고회 (22.1.27.)  
세미나22-02 2022 미디어 교육 주간자료집 (22.1.19.)  
세미나22-03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참여의 방향 (22.12.21.)  
세미나22-0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2.12.23.)

### 〈 위 크 쑈 〉

- 워크숍22-01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22.2.8.)  
워크숍22-02 2022 상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자료집 (22.4.22.)  
워크숍22-03 2022년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1.25.)  
워크숍22-04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자료집 (22.1.26.)  
워크숍22-0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22.4.29.)  
워크숍22-06 2022년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워크숍 (22.7.12.~13.)  
워크숍22-0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22.12.15.)  
워크숍22-08 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워크숍 참고 자료 (22.7.22.)  
워크숍22-09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대면 워크숍 (22.8.4., 22.8.12.)  
워크숍22-10 2022년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워크숍 (22.8.17.)

### 〈 포 럼 〉

- 포럼22-01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기후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22.4.26.)  
포럼22-02 2022년 제1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22.4.20.)  
포럼22-03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 (22.5.11.)  
포럼22-04 2022년 제2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 (22.5.17.)  
포럼22-05 2022년 제3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참여 정책의 재구조화 (22.6.24.)  
포럼22-06 2022년 제4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 (22.7.12.)  
포럼22-07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2.8.11.)  
포럼22-08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22.8.12.)  
포럼22-09 제46회 청소년정책포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 (22.9.2.)  
포럼22-10 제47차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22.9.21.)

- 포럼22-11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현장 사례를 말하다」 포럼 (22.10.14.)
- 포럼22-12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2.10.13.)
- 포럼22-13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정책소외계층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22.11.15.)
- 포럼22-14 2022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22.12.2.)

### 〈 콜 로 키 움 〉

- 콜로키움22-01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1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Vietnam (22.6.8.)
- 콜로키움22-02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2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Ethiopia (22.6.14.)
- 콜로키움22-03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22.9.6.)

###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2-01 2021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2-02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3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
- 자료22-0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5 2021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집
- 자료22-06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 자료22-07-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관리자)
- 자료22-07-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관리자)
- 자료22-08-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원)
- 자료22-08-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원)
- 자료22-09-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행)
- 자료22-09-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행)
- 자료22-10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 자료집
- 자료22-11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 자료22-12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2-13 2022년 대안교육기관 교원 연수

##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0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05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0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07호)

## 기타 발간물

###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37호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 138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139호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 140호      「메타버스 선거랜드」 구축과 선거교육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분석
- 141호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14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3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144호      10대시기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 NYPI Bluenote 통계 〉

- 64호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65호      장애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 현황과 여건
- 66호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 67호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 방안 연구
- 6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 69호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 70호      디지털 성범죄
- 71호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분석
- 72호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 73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협동연구총서 22-80-04  
연구보고22-일반08-03

---

###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인 쇄 2022년 12월 23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84-8 94330  
979-11-5654-380-0 (세트)



##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84-8

ISBN 979-11-5654-380-0(세트)